



3

주 제 87 (1998)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7(1998)년 제 3 호

(루계 제 605 호)



◆◆◆◆◆◆◆◆◆◆

차 례

◆◆◆◆◆◆◆◆◆◆

작가들은 새해에 명작창작을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리자	4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6
3 월의 그 봄은 영원히	7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한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시적형상	8
명백한 종자와 기발한 착상	10
백두산의 고향집 (외 1 편)	13
세월이 다하도록 따르며 모시리	13
숫눈우에 첫자욱	14
서울장안에 나타난 호랑이	15
언제나 해쫓는 바다에 사네	18
눈이 내린다	19
위대한 김정일원수님께	22
배길 70 리	22
끝없이 울려퍼지는 《동지애의 노래》	23
봄빛 질어가는 들에서	25
왕밤나무와 알락다람이	27
《대통령》의 박식자랑	28
섬초소에 새기신 사랑의 자욱	29
명언해설	30

봉화리의 새벽	31
유격구에서 온 사람	32
노래로 앞을 보라	38
집에 갇든 이야기	39
칠보의 노래 (외 1 편)	41
이 경계 이 높이에	41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거둔 혁신적성과	42
조국이며 앞으로 앞으로!	49
력사의 새벽길을 개척한 위대한 선구자의 빛나는 형상	50
우리는 기어이 승리의 날을 맞으리라	54
풀향기	55
통일세대의 노래	61
봉화는 불타고있다	62
별들이 웃는다	64
생일날에 대한 생각	72
군량미	73
소쩍새가 울면	74
이런 《법》도 있다	78
60돛 생일상을 차리지 말라	79
수정천, 고향의 강아	79

작가들은 새해에 명작창작을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리자

지금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해, 새로운 비약의 해인 주체87년 새해의 창작전투에 일제히 돌입하였다.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한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은 우리 작가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으며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다.

새해 공동사설의 기본정신은 전당, 전군, 전민이 《고난의 행군》에서 발휘된 그 불굴의 혁명정신과 기백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계속 힘차게 벌리자는데 있다.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이것이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이 추켜들고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투쟁으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기풍이다.》

올해는 사회주의강행군의 해이다.

새해 공동사설에서 강조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해에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고비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우리의 투쟁과 승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책동도, 우리앞에 가로놓인 그 어떤 난관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증시하였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새로운 력사적전환점에서 창작하는 특전을 누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새 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보루를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

더우기 올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 50돐을 맞이하게 된다.

공화국창건 50돐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는 중요한 계기이며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뿌리내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떨치는 의의깊은 사변으로 된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발휘된 그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계속 힘차게 벌림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나가야 한다.

공동사설에서는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는 구호를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로 제시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올해에 모든 창작을 당이 제시한 구호를 관철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따라 공화국창건 5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작품창작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우리가 진행하는 공화국창건 50돐기념 문화축전사업이야말로 뜻깊은 국경절을 사회주의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창작사업이다.

모든 작가들은 공화국창건 5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작품창작에 모든 탐구와 사색, 열정을 다 쏟아부어 기어이 명작을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공화국창건 50돐을 사회주의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창작에서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주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 김정숙동지의 위인상을 최상의 사상에술적경지에서 형상하는것이다.

만고절세의 위인, 백두산 3대장군의 위인상을 더 감동깊고 격조높이 형상하는것, 이것이 우리 작가들의 창작의 최고목표로, 최대의 창작적지향으로 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 작가들의 재능과 열정이 가장 높고 열렬하게 발휘되여야 하며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가 숭고하게 발양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위대한 어머님께서 념원하신대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창작에서 힘을 넣어야 할 주제 분야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그들에 대한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주제이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저히 옹호고수하는것이 현시기 가장 중요한 주제분야의 하나임을 명심하고 이 주제작품창작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상의 강경보루이고 신념의 성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백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무섭지 않고 《고난의 행군》을 열백번한다고 해도 두려울것이 없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량심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공고한 기초이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준엄한 결사전에서 사람들의 신념과 량심이 검증된다.

우리 작가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가 없으면 조국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 성실하게 일하는 량심의 인간들을 더 많이 형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우리 식 사회주의보루를 경제적으로 튼튼히 다져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우리앞에는 의연히 커다란 경제난관이 가로놓여있다.

작가들은 자체의 힘으로 오늘의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나가도록 하는데 불씨가 되고 고무적기치가 되는 전투적이고 호소성있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건설한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에 이바지할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 계속 큰힘을 넣어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는 작품창작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국토관리는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성스런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간직하고 누구나 다 자기가 사는 산촌을 제손으로 더 잘 꾸려나가려는 애국의 불타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도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군사적보루를 금성철벽으로 다져나가것은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둥이다. 인민군대의 위력에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이 있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군을 총폭탄대오로 튼튼히 꾸려나가도록 하는데서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게 될 력사적인 해이다.

우리는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을 더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뜻깊은 올해에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는 창작과제는 매우 무겁고 방대하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는 창작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창작활동에서 주제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우리 혁명의 생명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의 창작방식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식의 창작방식을 확고히 견지하며 창작에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것은 우리 혁명이 처한 준엄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오늘의 혁명정세하에서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오직 주체적문제사상이 가르치는대로만 창작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조선인민군 창작가, 예술인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것은 창작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모든 작가들은 인민군대 창작가, 예술인들 특히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일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데로 창작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짓부시고 예술지상주의와 같은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 내부에 황색바람이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의 전투성과 호소성을 더욱 높이는것은 매우 절실한 현실적요구이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화선식정치선동의 기수가 되며 현실속에서 창작하고 생활함으로써 현실과 문학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여야 한다.

올해 문학작품창작에서 특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당의 사상과 의도가 가장 민감하게 구현된 전투적인 형식의 작품을 질적으로 활발히 창작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당정책이 민감하게 구현된 작은 형식의 명작을 많이 창작하는 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짧은 형식의 명작을 창작하는데 탐구와 사색과 열정을 기울여야 하며 여기에서 매 작가의 특기와 재능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문학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늘 외우면서 즐겨 읊으며 투쟁과 삶의 길동무로 될수 있는 짧은 시들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작품에 혁명적량만이 뜨겁게 굽이치게 하는것은 시대와 현실의 긴절한 요구이다.

모든 문학작품에 혁명적량만의 정서가 짙게 차 넘치게 하여야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신

념과 락관을 가지고 혁명임무를 즐기치게 수행해 나갈수 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문학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사업은 매우 성스럽고 영예로운것이다.

우리 가는 길에 일시적인 시련과 난관이 있을수 있어도 우리가 심장을 다하여 뜨겁게 청송하는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표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고 승리의 결정적담보는 령도자와 인민의 불패의 혼연일체이다.

바야흐로 21세기로 치닫고있는 새 시대는 모든 작가들을 새로운 창작적앙양으로 부르고있다.

작가들이여! 시대와 혁명의 엄숙한 부름을 가슴에 새기고 새해에 명작창작 강행군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정은옥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마치도 거대한 산악이
우리의 마음에 솟구쳐오르는듯
그렇듯 가슴벅찬 이 말이
이 땅에서 새해를 맞은
우리의 심장과 심장에 우뢰친다

우리는 이 말을
신문의 활자속에서 읽지 않았다
우리 장군님 혁명을 이끄시고
새해의 첫 아침
최전연초소를 찾으시는
그 근엄한 모습에서
우리는 이 말을 읽었다

아, 이 땅에
즐거운 설날을 주시고
생활의 웃음을 주시고
명절의 그 아침 그이께선 벌써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혁명의 제 1 선에 계셨나니

생각도 깊어라

인민을 안아
조국을 안아
이 세상 행복의 절정우에 세우시려고
눈보라치는 산밭을 누비시며
옮겨가시는 그 거룩한 자욱자욱이여

하여 우리는 새겨안았다
하늘땅사이를 꼭 채우며 빛발쳐가는
그이의 해빛같은 미소에서
력사우에 장엄히 선언하시는
그 위대한 심장의 웨침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웃으며 헤쳐온
승리의 지난날들이 비껴있는 이 말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내고
이 땅, 이 하늘아래 최후의 승리자로 웃고야말
우리의 래일이 약속되어있는 이 말

이제 우리는 이 말을
혁명의 붉은기에 새겨안고
비약의 노래높이 달려가리니
나가자 인민이여, 조국이여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3월의 그 봄은 영원히

김송남

이끌린듯 내 마음
3월의 발머리에 얹드려
해묵은 꽃잎들을 헤치고
아득한 세월을 거슬러
내 끌어안고 달아오른 뺨을 부비는
력사의 거룩한 발자욱이어

봄이 영원히
희망의 계절로 되고
봄이 끝없이 기쁜
사랑의 숨결로 부풀어오른
못잇을 날들을 되새겨주며
수령님 그 자욱 여기 그냥 뜨겁구나

먼산의 아지랑이
아직은 농민들의 한숨처럼 감돌아들던
논두렁우에 밭이랑우에
기울어진 농가집 그 초가지붕우에
얼마나 뜨거우신
그 사랑의 눈빛이 없어졌던가

흘러내리는 눈석이물 소리에서도
세기를 두고 얼어붙었던
땅의 숙망을 헤아리시며
한자욱 또 한자욱
근거지의 밭이랑에 몸소 안아키우신
조선의 새 봄을 심어가시던 우리 수령님

《토지는 발갈이하는 농민에게!》
손길 높이 드시어
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하실 때
농민들은 감격의 더운 눈물 흘리고
이랑이랑 논밭은
어데선가 불어오는 훈풍에 설레었다

아, 3월의 그 봄은
한껏 부풀어오른 가슴을 펼쳐안고
산과 들 이랑이랑에
나서 처음 땅의 주인된
농민의 기쁨을 받아안았나니

마치 이날을 위해
눈바람 비바람 다 헤쳐오신
백두의 험산준령
그 간고한 날들이 계시었던듯
환히 미소 지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여

흘러간 세월 이제는 반세기도 넘어
그날의 봄날우에
그 몇십번 꽃계절은 오고갔어도
그해의 3월
그해의 그 봄은
영원히 젊으신 날의 수령님 그 모습으로
이 발머리에 남아서 미소를 짓는구나

최후승리를 향해가는 오늘의 강행군길
그 아무리 어려워도
수령님 유산인 사회주의 지키자고
쌀로써 당을 받드는 이 마음에
더 일찍 찾아오는 조선의 3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품속에서
더욱 활짝 피는 조선의 따뜻한 봄

그 봄은 영원히
3월의 그 봄은 영원히 영원히
꽃피는 계절로 찾아오누나
태양의 영원한 미소로 강산을 덮으며
해해년년 풍년가을을 부르며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한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시적형상

-서사시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를 읽고-

김일수

서사시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신병강)는 커다란 슬픔에 잠겼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3년상을 치르고 탈상하게 되는 새로운 력사적시점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혁명의 기수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반드시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락관, 기상을 탐구적인 시형상으로 훌륭히 펼쳐보인 또하나의 성과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성과 정서적체험이 그 위대한 인간세계의 높이에 접근하고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잘 살리는 작가만이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수령형상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서사시는 백두산과 수령님의 한평생, 백두산과 수령님의 영생에 대한 심오한 철학의 세계를 펼쳐보이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의 세계, 또한본의 백두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뜨겁게 형상하고있다.

서사시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시형상을 통하여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신다는 시대와 력사의 진리를 심오하게 밝혀내고있다.

삼지연못가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백두산호랑이》, 항일의 전설적명장 20대의 청년장군이신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우러르며 한없는 그리움의 걱정을 터치는것으로 시작된 서사시는 우리 인민들이 수령님은 백두산과 더불어 영생하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심원한 철학적해답을 주고있다.

시는 우선 수령님을 생각할 때 백두산을 생각하게 되고 백두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수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리만큼 《수령님의 한생과 잇닿은》 백두산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였기때문이라는것을 감명깊게 해명하고있다.

시에서 노래하다싶이 백두산은 《진정 수령님의 청춘시절의 <집>이였고 만경대일가분들의 피의 자욱으로 다져진 고향집뜨락》이었다.

사연도 많은 백두산... 안개덮인 밀림 아득한 저기엔 수령님께서 병깊으신 어머님앞에 좁쌀 한말 남기시고 떠나셔야 했던 그날의 소사하초가집이며 울며 따라서는 동생과 피눈물을 삼키시며

작별하신 그날의 량강구객주집이 있으리라...

정녕 백두에 새겨진 그 하많은 이야기들을 천연수림의 끝없는 설레임소리인들 어이 다 전할수 있으랴.

백두산, 그 하늘아래서 수령님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이민위천》의 사상이 나래쳤고 수령님 타신 《인민행렬차》가 백두밀림을 횡단하여 모진 세월의 눈비와 폭풍을 헤치며 행복의 오늘어로 줄달음쳐왔기에 우리 인민은 그리도 백두산을 못 잊어하며 심장에 새겨안고 사는것이다. 시에서는 이처럼 집약된 형상으로 한평생 인민의 총복이 되시여 영원한 백두의 《전투복》차림으로 이 나라의 산과 들을 다 걸으시며 인민의 락원을 세워 주신 수령님의 업적을 뜨겁게 칭송하고있으며 사령부귀틀집과 수령님의 휴식을 위해 마련해드린 수수한 단층각이 대한 형상적분석을 통하여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삶과 운명의 전부이시라는것을 절절히 깨우치고있다.

인민을 위한 헌신과 로고로 일관된 수령님의 한생, 그 업적에 대한 사색적인 분석과 감동적인 생활세부형상을 통하여 백두산은 《온 백두밀림이 그대로 수령님 체취로 안겨오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수령님의 한생과 순간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혁명의 생산》이며 따라서 수령님의 영생은 곧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하다는 의미임을 심오히 보여준 여기에 시가 이룩한 귀중한 성과의 하나가 있다.

시는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수령님은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 강렬한 주정을 터치고있다.

일찌기 수령님과 자신을 태양과 전사라는 격차를 두시고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고결한 충성으로 수령님을 명실공히 태양으로 받들어모셔오신 우리 장군님.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의 그 이름도 《백두산홀》이라 부른 이곳 중앙현관홀(립상홀)에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선물이 울리게 하여 찾는 사람마다 백두의 준령을 넘나드리며 오늘의 행복을 찾아주시고 꽃피우신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다시금 추억하게 하신분도,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백두의 붉은 노을속에 모시도록 하신분도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관

의 최고표현이었으며 수령님의 영생을 뜨겁게 기원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시는 수령님은 장군님의 모습으로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백두령장이신 장군님께서 수령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계신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이다.

《장군님 계시여 수령님은 오늘도 백두산에 서계신다》- 이 얼마나 심오하고 격동적인 시대의 서정인가. 여기에는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대한 심오한 철학이 장엄한 시대의 메아리로 울리고 있으며 두분의 백두산령장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빛나게 계승완성되어가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위대한 역사를 엮어가는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역사관의 의미가 깊이있게 밝혀지고있다.

시의 이러한 강렬한 사상미학적주장은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수령님의 3년상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우리 인민의 신념으로, 역사의 의지로 힘있게 확인하였다. 여기에 바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수령영생의 새 역사, 영원한 태양의 역사를 격조높이 노래한 이 시의 철학적심오성이 있다.

서사시는 다음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리념, 의지의 세계를 역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나가면서 진실하게 노래함으로써 수령송가문학으로서의 사상에술적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있다.

수령형상작품은 수령의 위대한 품도와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역사문헌적의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은 수령형상창조의 원칙, 주체문학의 요구이다. 이 시는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가시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역사적사실자료들을 시화하여 감명깊은 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시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청춘벽력같은 소식에 접했던 7월의 그 날에도 백두산담사행군길만은 멈추지 말고 곧바로 자기의 행군로를 이어가도록 하신 사실, 수령님을 잃고 처음으로 백두산에 홀로 오셨던 그 5월의 이야기, 백두산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백두의 해돋이를 보도록 뜻깊은 말씀을 하신 사실 그리고 전선길을 걸으시며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기어 이 실현하실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신 이야기 등 역사적사실들이 시적으로 묘사되어있다.

이것은 작품이 수령의 혁명활동과정과 사실을 실지 있는 그대로 재현하여야 한다는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철저히 의거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허구적형상창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작품의 역사문헌적의의를 보다 높은 수준에

서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면서도 시는 장군님의 위대성, 업적을 보여주는 역사적사실들을 노래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적자료를 전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자체가 가지고있는 심오한 뜻과 의미를 격동된 감정의 표현으로 정서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비상히 강렬하고 숭엄한 서정세계를 펼쳐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겪던 7월의 그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담사행군대오만은 행군을 멈추지 않고 《자기 로정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을 내리신 사실자료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러나 시에서는 역사적사실자료에 대한 평범한 설명이 아니라 그에 깃들어있는 가슴뜨거운 사연과 심오한 사상적의미를 깊이있게 파고들면서 거창하고 격동적인 서사적화폭을 펼침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에 강한 정서적흥분과 감동이 물결치게 하고있다.

참으로 이 빛나는 사적자료에는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체현되어있는것인가. 백두산행군길이 끊어진다는것은 우리 혁명의 명맥이 끊어진다는것과 같다. 백두산을 떠나 조선이 존재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이 흥할수도 없는것이다. 《백두의 그 길에서 조선이 왔고 백두의 그 혈통만이 천만대 이어갈 조선의 피줄기》이거늘 《닥친 비분의 언덕이 천만층 높다한들》 그 길, 그 혈통은 순간이 나마 끊어져서는 안되는것이다. 우리 수령님 생전에 그토록 바라신것도 백두의 혈통을 이어나가는것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 피의 자욱자욱으로 열어주신 이 길만은 절대로 멈출수 없는 영원한 혁명의 행군로임을 온 세계에 힘있게 확증》하신것이다.

여기에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이 그 후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의 진리가 맥박치고있다. 독자들은 여기서 수령영생위업을 펼쳐가시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숭고한 리념, 드림없는 의지를 더더욱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시는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와 령도업적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사상과 그에 체현되어있는 심오한 의미를 미학적으로 분석하여 시화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에술적품격을 한층 높이고있다. 그것은 《백두산에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돋이를 보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사상을 시화하여 거기에 담겨진 뜻과 무게를 시적으로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시는 《백두산해돋이를 보라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새기라는 뜻》이며 《타오르는 붉은 노을을 붉은기로 높이 들고 끝까지 혁명을 해야 한다는 뜻》임을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사람들을 커다란 감동의 세계에로 이끌어가고 있다.

시는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사적에 깃들어있는 숭고한 리념과 의지의 세계를 시적으로 깊이있게 일반화함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휘황한 래일을 형상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서사시는 다음으로 예술적형상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장하고있으며 오늘의 거창한 현실과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새롭고 독특한 구성형식과 형상수법의 리용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일정한 인간관계와 일관한 사건줄거리를 가지고 묘사의 객관성이 보장된 시적화폭을 창조하는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어왔다. 기성의 형상창조방식의 굳어진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그와는 달리 일정한 감정정서적흐름선과 주제사상적공통성에 기초하여 력사적사실을 엮어나가면서 자유분방하게 서정을 펼쳐나가는 방식은 최근 서사시문학발전에서의 새로운 개척이며 우리 식 서사시의 혁신적면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특징의 한 측면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이 서사시구성 역시 일관한 사건줄거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사상정서적지향선에서 력사적사실을 일반화하면서 시대의 전형적사상감정을 펼쳐보여주는 형상방식에 의거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시는 따로 장, 절을 나누지 않고도 시대의 기본사상감정을 원만히 해명할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치밀하게 조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개척과 그 빛나는 계승과 승리를 위하여 바쳐오신 아버지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헌신

과 로고의 력사를 어제로부터 오늘에로 자유분방하게 오가면서 감명깊은 시적세부와 사실자료들을 세련된 구성속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시에서는 백두산답사행군로정을 밟아가고있는 시인의 시점을 설정하고 백두산과 우리 혁명의 력사와 결부된 사적과 일화, 세부들을 묘사대상으로 선택하여 서사시를 구성하면서 그에 대한 무게있는 주정토로와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시적인 묘사를 통하여 감정의 축적과 폭발의 연속과정으로 되게 하면서 시적감정을 고조시켜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시는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서계시며 우리 인민을 주체위업완성의 길로 이끌어주고계신다는것과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그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확신의 감정, 시대의 의지를 사상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의 구성이 수령형상작품으로서의 력사문헌적성격과 그 생리에 맞으며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실현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독창적인 구성방식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처럼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백두산에 계시며 우리 인민을 이끄신다는 력사의 진리를 심오히 깨우쳐주고 수령영생위업, 주체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업적을 뜨겁게, 절절하게 노래함으로써 그 사상예술적성과에 있어서 우리 식 서사시발전의 새로운 특징과 혁신적면모를 더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연단

명백한 종자와 기발한 착상

김경준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는 시인만이 시대와 인민대중의 열렬한 지향을 담은 명백한 종자를 찾아쥐고 기발한 착상으로 형상을 꽃피울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의 머리를 움직이게 할뿐아니라 심장을 격동시키며 사상을 안겨줄뿐아니라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가 진짜 문학작품의 종자이다.》

어떤 종자를 찾아쥐고 어떻게 착상하는가 하는 것은 문학창작에서 그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시기 인민군교예단 종합교예를 지도하여주시면서 문학예술작품은 종

자가 명백하고 기발하게 착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주시였다.

서사시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이어》(김만영)는 아버지수령님은 영원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수령님의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가를 제기하고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는 작품이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4월은 있어도 7월은 없다는 피의 절규가 깃들어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올리고 칭송하는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의지와 신념에 기초한것이다.

때문에 수령님을 잃은 때로부터 《그리움이 쌓이고쌓여 시련이 겹치고겹쳐 결코 짧지 않은 3년》에《우리 눈물겹게 체험하고 가슴사무치게 절

감한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인은 우리의 3년은 수령님과 멀어진 3년이 아니라 우리와 더 가까워진 3년이라는 명백한 종자를 찾아줘게 되었다. 시인이 찾아낸 이 종자는 결코 주관적인 욕망이나 추상적인 사상리론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 체험해온 현실적인 타당성으로 하여 진리적이며 절대적인 신념과 의지로 확고해진 심오한 철학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 3년동안 생활의 갈피갈피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얼마나 격동된 심정에 휩싸이곤 했는가.

아버지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한 태양상으로 모시기 위한 정력적인 사업과 세심한 지도, 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이 나라 방방곡곡의 전선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낮과 밤들,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발휘되는 것이라면 자그마한 소행까지도 크게 내세워주시고 수령을 최고선배로 여기고 수령의 사상을 영원한 기치로 드림없는 신념으로 안겨주시기 위해 리론실천적인 고전적로작들도 매 시기에 걸쳐 발표해주시지 않았던가.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은 아버지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이시고 수령님의 사상을 펼쳐가시며 더욱더 빛내가시는 우리의 수령이시다. 우리 인민은 그이의 모습에서 수령님을 뵈옵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에서 수령님의 덕망과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있으며 장군님께서 계시어 수령님은 영생하신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기가 찾아낸 이 종자에서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으며 우리 장군님의 3년에 대하여 흥분하지 않을수 없었다.

시인이 찾아온 종자는 바로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과 효성의 감정이 날을 따라 더욱더 뜨겁게 끓어치고있는 우리 시대의 높이에서 지극히 웅당한 진리이며 명백한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이것은 시인 자신이 온몸으로 질감하고 피부로 느낀 시대에 대한 정서적인 감각이며 뼈와 살로 체질화된 열렬한 지향과 의지의 함축이다.

시인은 이러한 가치있는 종자, 명백한 종자를 꽃피울수 있게 기발하게 착상하였다.

서정시에서는 물론 서사시에서도 착상은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담고 사상적대를 옹바로 세우며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드러내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수령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는 서사시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수령의 고귀한 업적내용과 감동적인 사실자료에만 매혹되어 그것을 라렬하고 거기에 설명을

덧붙이는 식으로써는 정서적인 견인력을 강하게 할수 없으며 감흥도 크게 줄수 없게 된다.

시대와 인민의 열렬한 감정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고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자면 그 착상을 기발하게 해야 한다.

서사시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여》에서는 우리의 3년 세월이 흘러간 추억의 길에서 시적계기를 포착하고 착상을 무르익히었다.

길은 추억의 상징인 동시에 지나온 로정과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간다는 것과 온다는 것의 두 의미를 동시에 실을수 있는 생활적인 바탕으로 된다.

못잊을 추억을 불러주는 3년 세월을 돌이켜보느라 우리 인민모두는 한결같이 멀고 험한 전선길을 너무도 많이 걸으시고 오직 수령님만을 생각하시며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 사색과 로고의 낮과 밤을 너무도 많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충성과 숭고한 의리의 로정앞에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게 된다.

시인은 바로 여기에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느꼈으며 우리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그 길의 세계에 매혹되었다. 즉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그 길로 수령님의 모습그대로 걷고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에서 수령님의 영생을 받아안았던것이다.

수령님의 필생의 뜻
수령님의 영생을 위해
3년 세월 한지에 계시며
우리 장군님 걸으신 길은
그 얼마이더냐

그 길은 그 길은
우리 장군님
시대의 최전선
혁명의 최전선
사회주의최전선에 계시며
이 세상 처음 열어놓으신
아버지수령님 영생의 길!
위대한 영생의 대로!

그 길로
우리 수령님 오시였다
언제나 해가 지지 않는 금수산성지
그 숭엄한 계단을 내려
낮이나 밤이나
우리에게 오시였다
인민에게 어제와 오늘도 찾아오시였다

이것은 그 어떤 추상적인 론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바탕을 이루고있는 길에 대한 시적일반화이며 3년간의 우리 인민의 체험과 뜨거운 지향

에서 착상된 산물이며 그 결실이다.

우리 수령님의 영생을 위하시는 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의 착상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하지만 시인은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위업을 한몸에 지니시고 그것을 완성해나가는 우리 장군님을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 감수한데 기초하여 장군님과 수령님이 함께 걷고계신다는 주정화를 가장 효과적인 표상으로 안겨주고있다. 즉 두분이 함께 오신다는 생활의 편상을 불러일으킬수 있도록 그 착상을 기발하게 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착상으로 하여 시인은 3년 세월에 이룩하신 우리 장군님의 고귀한 업적을 이리저리하게 라렬하거나 설명하는 식을 피하고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으로 정서적인 건인력을 일관하게 보장할수 있었으며 사적인 감흥을 크게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즉 수령님을 추억하시고 수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야 하루일을 시작하시는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시던 일중에서 안경에 대한 일화, 먼 산촌길을 가시다가 산기슭에 세운 수령님의 현지도표식비앞에 이름모를 나 어린 소녀들이 놓은 세송이의 들꽃을 보시고 차를 멈추신 이야기를 가슴뜨거운 수많은 사적내용들을 그저 소개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길우에서 생활적으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리하여 가장 비통하고 어려웠던 3년을 걸어오시며 승리의 상상봉을 마련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걸음걸음마다에서 뜨겁고 열렬한 감동과 정서가 짙은 서정을 일으키게 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생각하며 나래친 시인의 착상은 또한 한갓 그 로정에 대한 사상정서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만 머무르고있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정서로써 시적일반화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눈여겨보시라
눈여겨 새겨보시라
우리 장군님 걸으신 그 자욱자욱이
내리는 눈비속에 보여오고
굽이굽이 흘러가던
군용차의 불빛속에 어려오는 길

걸음걸음 뜨거운 길이어라
우리 바라보는 저 언덕 바위우에서
찬죽을 드시고 가지는 않았는지
저 굽인돌이에서
잠시 군용차를 세우시고
쪽잠에는 드시지 않았던지
저 이름없는 강변에서
젖은 옷을 말리워입고 가시지나 않았던지

송구해라

3년 세월

우리 장군님

이런 길 가지 않으시면 안되었던가

여기에서 《찬죽》과 《쪽잠》, 《젖은 옷》 등은 먼길과 관련된 세부들로서 우리 인민모두의 장군님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감정을 보여주고있다.

흔히 길을 떠나면 고생이 뒤따르기마련이고 먼 길을 떠난 사람에 대하여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는것이 생활의 감정이다.

3년 세월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눈비속을 뚫고 찬바람을 맞으시며 가시였는가. 안개자욱한 판문점, 파도사나운 초도, 최전선의 메부리만 1211고지... 쉬임없이 걷고걸으신 그 길우에 무슨 고생인들 없었겠는가.

바로 시인은 자기의 착상에서 우리 장군님에 대한 인민모두의 뜨거운 감정을 느끼였던것이다.

시줄을 따를수록 눈굽을 뜨겁게 하여주는 이러한 생활감정은 바로 시인이 기발하게 착상한 생활바탕에서 발현된것이다.

참으로 수많은 생활의 편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길에 대한 착상은 시인으로 하여금 우리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3년의 길을 더듬으며 자기의 주정을 자유분방하게 시대정신의 응당한 높이에서 터뜨릴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백한 종자의 요구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

7월의 이 언덕우에서

인민은 말한다

인민은 말한다

아, 아-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3년은

혁명의 최전선에서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오신

최고사령관의 3년이라고

수령님을 떠나보내신 3년이 아니라

수령님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신 3년이라고

김일성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빛내여준

3년이라고

서사시 《변영하라 **김일성**조국이어》는 시인이 얼마나 시대적인 감각으로 자기의 심장을 불태우며 종자를 탐구하고 그 착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문학창작에서 명백한 종자를 탐구하고 기발하게 착상함으로써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지를 옹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백두산의 고향집 외 1편

리정택

누구나 고향을 생각할 때엔
어느 도시의 한거리
농어촌 마을의 정다운 집이 떠오르리
흘러간 소꿉시절이 묻힌
동구밖의 시내물, 뒤편의 푸른 숲
태어난 고향이 서로 달라
떠오르는 추억도 천만가지리

허나 오늘
고향을 그리는 마음속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장엄히 안겨와라
태고의 밀림이 설레이는 소리
삼천리 끝까지 뻗어간 백두대산줄기를 안고
높이 솟아 빛나는 정일봉

밀림속에 열어놓은 길따라 풀안에 들어서면
어머님 금시라도 마중나오실듯
아, 따뜻한 우주의 해발이 다 모인
백두밀영의 고향집 우리 마음의 고향집이어

위대하여라
영원토록 빛날 인류의 태양
여기 백두에서 솟아
통일될 삼천리 그날을 밝히고
온 세계의 자주화, 21 세기를 비치나니

수억만리 떨어진 5 대륙에서
찾아오는 사람 끝이 없는
혁명의 고향집 인류의 고향집이어
오랜 력사 세상일 다 뒤돌아보아도
이름난 수령들 도시와 거리 그 이름으로
불리우고
위인이라 나타났던 사람들
그 이름으로 거리와 마을이 전해져도

알지 못해라
민족의 운명이 있고 빛나는 미래가 있는
도시와 마을이 아닌
혁명의 성지에 솟은 고향집
하늘아래엔 하나뿐이어라
백두산의 고향집

혁명의 성산에 솟아 빛나는
마음의 고향집
이 세상 어디서나 다 보이더라
이 세상 어디로 가나 다 길이 뻗어
행성의 끝까지 이어졌어라
인류의 태양이 솟아오른
백두산의 고향집이어!

세월이 다하도록 따르며 모시리

날아준 은혜로운 사랑이 하도 커서
그리도 다정한가 어머니란 말
모든 정을 다해 온넋을 쏟아부어
키워준 그 수고가 하도 많아
어려서도 늙어서도 같은 말로 부르던가

조국을 잃었던 그날에도 불렀노라
자식들에게 들썹위치는
왜놈들의 총칼도 막아줄수 없었던
연약한 너인의 몸이었지만
놈들의 총알받이로 끌려가고 죽으면서도
아들딸들이 그려본 그 모습 어머니

그렇더라 어머니란
피와 살로 뉘으로 이어진 말
그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수도 없는
숨결처럼 공기처럼 이어져있는 말

이 어머니란 말을 오늘 우리 인민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부르노라
지나온 력사가 아름다운 시대가
따르고 받들어 높이 모신 어머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빼앗겼던 모든 소원 모든 념원 풀어주시려
아버이수령님의 친위전사로

항일의 혈전만리 불길속을 헤쳐오신 어머니
 자식 하나의 운명도 지켜줄수 없어
 피눈물로 웅어리진 이 나라 너인들의 가슴들에
 어머니의 존엄과 진정한 사랑을 안겨주신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

어머님 걸어오신 영광의 그 자옥따라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으로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태양으로 우러러
 태양민족의 자랑 온 세상에 펼쳐가나니

어머님은 주셨어라
 장군님만 계시면
 언제나 이긴다는 백두의 신념
 어려운 날, 시련이 앞을 막아나서는 오늘도
 장군님만 따르면 승리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어버이수령님의 방패가 되시여
 놈들에게 멸적의 총탄을 퍼붓는 승고한 모습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어도
 고향보다 먼저 나라의 곳곳을 찾으시며
 새 조국 건설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는 모습

백두산 3대장군의 빛나는 영상
 하늘의 태양처럼 모시고 사는 내 나라
 다가오는 찬란한 미래
 통일된 조국의 환호성 넘치는 강산에
 모시고싶은 마음
 하늘과 땅에 넘쳐나서
 온 민족이 부르며 안겨드네, 어머님품에

세세년넌 해가 바뀌고
 력사가 흘러 덧쌓일수록
 더더욱 그리움이 넘쳐나
 공산주의 먼 앞날에도 부르리
 세월이 다하도록 따르며 모시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숫눈우에 첫자옥

신문경

새해 첫시간
 숫눈우에 첫자옥
 멀리 전선으로 초소로 이어진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자옥

어깨우에 실린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떠메시고
 가벼운 흰눈우에
 무겁게 찍으신 그 자옥

눈바람속 험한 산 굽이굽이
 얼어붙은 강줄기 굽이굽이
 혁명앞에 놓인 험로역경 헤쳐
 창창 대로를 여는 그 자옥

이해의 행군로가 그 자옥에서 펼쳐지고
 우리 행군의 보폭이 그 자옥에서 정해졌다
 우리 마음속 어데선가 봄우뢰소리...
 자연의 눈석이가 아니라
 그이의 크나큰 심장의 불에

첩첩 시련의 얼음장이 녹아내리는 소리
 승리의 새봄이 태동하는 소리

그 자옥에서 터져오르리
 처억처억
 붉은기대오의 행군의 자옥소리
 그 자옥에서 피여오르리
 인민의 웃음에 화창히도 열린 푸른 하늘이

아, 봄은 오리라
 봄이 오고 눈은 녹으리라
 허나 그 자옥은 지워지지 않으리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장장 력사우에 빛나오를 그 자옥

최후승리 강행군의 진두에서
 조국을 이끌어
 천리 최전선길로 이어진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
 숫눈우에 첫자옥...

서울장안에 나타난 호랑이

언젠가 서울장안에 호랑이가 나타났었다는 소문이 경향각지에 찌하니 퍼진적이 있었다.

어떻게 심산속에 사는 호랑이가 사람들이 운집해있는 대도시에 나타났을까? 하도 이상해서 어느 한사람이 그 소문을 추적해보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호랑이에 대한 소문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남조선 강원도 녕월군에 사는 한로인이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갔다와서 퍼친 이야기였다.

여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심이 반영되어있으니 그 로인의 이야기를 아래에 그대로 전한다.

오로인이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사는 둘째아들네 집에 올라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한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는 번거로운 도시생활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소음, 탁탁한 공기, 분주스러운 도시생활, 그저 어디가나 사람천지였다. 로인은 서울생활이 지겨웠다.

그는 한생을 땅과 더불어 자연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자연을 몹시 사랑했다. 헌데 여기엔 그런 자연이 없었다. 예로부터 자연과 친근한 사람중에는 악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로인은 성품이 어지고 늘 부지런하였다.

새벽이면 이집저집에서 닭울음소리 울리고 울바자를 감고 오르는 나팔꽃이 푸- 나팔을 불고... 저녁이면 박꽃이 지붕위에 하얗게 피는 그 정서가 로인에겐 더없이 그리웠다.

그런데 그는 왜 서울에 올라왔는가?

둘째아들내외는 몇달전부터 부모님들중 어느 한분만이라도 올라와달라고 여러번 편지를 했었다.

그러나 만이와 함께 농사를 짓는 두 늙은이는 누구도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골에서 늙은이들이 할 일이 좀 많은가?

집집승도 치고 손자녀석들 뒤시중도 바쁘는데 어떻게 자리를 뜬담. 그들은 제잡담 아예 모르쇠를 했다.

그랬더니 얼마후엔 둘째아들이 시골로 찾아내려왔다. 그는 부모님들중 한분을 꼭 모셔가야겠다고 떼를 썼다.

지금 서울서는 어린이유괴사건이 하도 많아 부모들이 조금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데 누구든 와서 손자애들을 좀 봐달라는것이였다.

다른것이라면 몰라도 귀여운 손자애들때문이라니 로인내외는 막무가내로 거절할수 없었다.

그래 토론끝에 오로인이 얼마동안 먼저 올라가있기로 하였던것이다.

일생 오금을 놀리며 살아온 로인은 방안에 앉아 손자애들 궁둥이나 두드려주며 지내자니 여간 답답하지 않았다. 힘든 일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팔다리가 쭈시는것 같았다. 아들며느리는 생업에 정신없이 돌아치느라고 언제 조용히 말을 나눌새도 없었다.

하긴 서울생활은 눈감으면 코를 베가는 숨씨가 있어야 살아간다니 언제 여유가 있겠는가.

여유가 없으니 정서가 없고 정서가 없으니 사람들은 메마르고 속되어진다.

자그마한 리해관계를 가지고도 걸핏하면 싸움질을 하고...

그래 사람들은 점점 더 야박해지고 포악해져갔다.

로인은 어느날 손자애들을 데리고 시내구경을 나갔다. 그런데 어디 가나 사람들이 붐비니 그는 머리가 핑 돌 지경이였다.

방안에 가만 앉아있자니 갑갑하기 그지없고 나가자니 악마구리 뿜듯하는 거리가 눈앞에 떠올라 머리부터 아팠다.

로인은 이궁리저궁리 하던 끝에 장경원에 있는 동물원구경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손자애들 손목을 잡고 동물원에 가니 좀 마음이 가라앉는듯싶었다.

여기서는 그래도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다.

여러가지 크고작은 새들과 열대의 희귀한 동물들이 제가끔 제소리로 뭐라고 웅쳐대고있었다.

그는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소와 닭과 계사니의 울음소리가 제일 가슴에 젖어왔다.

맹수사에 들리니 어룡어룡 검은줄이 간 범들이 있었다.

범들은 낮잠을 자는지 눈을 감고 구경꾼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죽은듯 가만있었다.

아이들이 살창을 두드려대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느냐는듯 마지 못해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아버리였다.

오로인은 소시적에 힘이 장사여서 한때 범사냥을 다닌적도 있었다. 로인은 범을 보니 그 시절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왔다.

범우는 소리를 오래간만에 한번 듣고싶었다. 그런데 그놈은 눈을 뜨지 않으니 참으로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제나 저세나 하고 점도룩 앉아 기다렸다.

손자애들이 집으로 가자고 자꾸만 조르는바람에 그는 종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저녁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 아들며느리는 때없이 늦어오는 아버지를 반겨맞으며 무척 걱정을 했다고 하였다.

70을 눈앞에 바라보는 늙은이라 손자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았나 해서였다.

로인은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창경원으로 찾아갔다. 했으나 언제한번 범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너무 자주 찾아가니 손자애들도 이제는 종로구 쪽으로 가는 빠스정류소에 서기만 해도 때를 쓰며 가지 않겠다고 할 지경이었다. 그래 로인은 집안에 불박혀 손자애들 《경비》를 서고 화분이나 가꾸면서 무료한 날을 보내고있었다.

아들네집에는 화분이 많았다. 그중에는 진귀한 꽃나무를 심은 화분들도 여러개나 있었다. 그러나 아들내외는 생계를 이어대느라 늘 시간이 없어 화분들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있었다.

그래 로인은 그 화분들이라도 잘 가꾸어서 꽃을 피우는 재미를 느끼며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였다. 하긴 꽃은 자연의 한부분이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한부분이 아닌가!

그러나 모든 일은 생각과 욕망대로만 되는것이 아닌가보다.

로인이 극성스레 화분을 가꾸는데 웬일인지 꽃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꽃이 피지 않는것이였다. 뭐니뭐니 해도 화분이야 꽃을 피우자고 가꾸는것인데 꽃이 피지 않으니 농사로 치면 이삭은 없고 줄기만 왕성하게 자래운격이였다.

(꽃나무도 가꾸는 방법이 있을텐데...난 그저 물만 주었으니 이럴수밖에. 허참, 아무래도. 나에겐 서울생활이 맞지 않아. 내가 시골로 내려가고 대신 로친을 보내야겠어.)

그는 이런 속구구를 하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부터 아들며느리는 며칠째 들어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잘 안되는 모양이였다.

로인은 아들을 만날수 없어 오늘래일 손꼽아가며 기다리고있었다.

일단 가자고 마음먹으니 하루 한시간이 새로왔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손자애들에게 아침밥을 해먹이고 동자질까지 끝낸 로인은 방안에 들어와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며 이궁리 저궁리 하고있었다.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의 오만가지 다반사가 다 떠올랐다.

갖가지 그림을 따오려붙인 그림책인듯 회로에 락으로 가득찬 인생은 지내놓고보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 망국노로서의 한생에 무슨 회가 있고 락이 있었겠는가. 광복후 이북에선 가진것 없는 무산자들이 **김일성**장군님 치하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어 락을 누리고있다는데... 하긴 인젠 그분도 안계시니 그분의 슬하에서 마음편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보자고 하였건만 그것도 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로인의 눈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발고랑같은 주름을 타고 귀밑으로 흘러내렸다.

이때였다. 바깥 어디선가 따웅- 하는 소리가 알릴듯말듯하게 들려왔다.

《엉?!》

로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시 귀를 강구니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무렴 대낮에 그것도 서울장안에서 범울음소리가 웬일인가.)

그는 다시 자리에 누우려고 하였다. 이때 또 《따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범울음소리였다. 그는 창문을 열어제끼고 바깥 귀를 돌구었다.

또다시 범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북악산쪽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로인은 부리나케 밖으로 뛰어나갔다.

《따웅! - 따웅!-》

범울음소리는 련이어 울리였다. 범이 점점 가까이로 오는지 울음소리는 더 크게 들리였다.

아마도 범이 삼각산에서 북악산으로 내려 오다가 인왕산숲속에 갇혔는지 《따웅! -》 하는 소리가 하늘땅에 메아리쳤다.

얼마후엔 그 범울음소리가 남쪽에서 들리였다.

로인은 혹시 창경원 동물원의 범이 뛰쳐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데없는 범울음소리에 놀라 사람들은 그쪽으로 달려갔다.

오로인의 발걸음도 그곳으로 향하였다.

오래간만에 범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쨍! - 열리고 온몸에 소시적의 장수힘이 다시 샘솟듯 한감을 느꼈다.

범울음소리를 따라 뛰어가니 어느덧 여의도광장에 이르렀는데 범은 바로 거기에 앉아있었다.

《범이다!》

《호랑이가 저기 있다!》

여의도광장에 구름처럼 모여든 서울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치며 술렁거리였다.

그렇지만 누구도 범이 있는 가까이로 다가갈 엄두는 내지 못하고있었다.

오로인은 사람들을 해집고 맨앞에 나가 호랑이를 가까이에서 보았다.

왜서인지 오로인은 그 호랑이가 조금도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친근감을 자아내기가 지 하였다.

그 호랑이는 지금껏 보아오던것에 비해 실히 두배는 더 커보였다.

이마에 새겨진 뚜렷한 임금왕자의 무늬며 아름다운 털색갈, 동이만한 발통과 늘씬한 몸매, 웅망스럽고 위엄있어보이는 기상은 분명 백두산호랑이였다.

이글거리는 호랑이의 두눈은 정과 노를 함께 내뿜고있었다.

《백두산호랑이다!》

로인은 이렇게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백두산호랑이다!》

《백두산호랑이다!》 하는 말소리가 광장에 가득 찼다.

왕년에 백두산포수들과 함께 사냥을 다닌적이 있는 오로인은 백두산호랑이를 잘 알고있었다.

더우기 몇해전에 백두산호랑이를 그린 《백두산호》도가 서울에 나돌았는데 그때 둘째아들이 집에 가져왔던 그 그림에 있는 범과 꼭 같았던것이 다.

백두산호랑이를 보니 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해지고 팔뚝엔 힘이 솟구쳐올라 절로 주먹을 으스러지게 쥐었다.

그런데 여의도에 있는 《국회》청사에서 범울음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사람들은 백두산호랑이를 보자 사시나무떨듯 부들부들 떨었다.

《따웅! -》

호랑이가 앞발을 들었다놓으며 천지를 진동하는듯한 울음소리를 지르자 《호랑이다, 백두산호랑이다!》 하더니 어떤 사람은 까무라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희색이 만면하며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백두산호랑이가 서울에 나타난걸 보니 필시 무슨 길할 조짐이 틀림없소.》

풍채좋은 한 로인이 깊은 생각에 잠겨 머리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이북에 계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서울에 나오신다는 예고가 아닐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받자 그 로인은 《내 생각이 바로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서울에 나오신다! -》

오로인은 이 말을 되뇌이며 어쩌면 자기 생각

과 꼭같은가 하고 놀람을 금치 못해하였다.

백두산호랑이는 그날 저녁무렵까지 여의도광장에 그냥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노을이 스러진 다음에야 자리를 뗀데 인왕산으로 들어갔다가 북악산, 삼각산을 거쳐 북쪽으로 사라졌다.

호랑이는 사라졌으나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오로인도 밤이 이슬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 언제 돌아왔는지 아들며느리가 로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너희들도 백두산호랑이야길 들었느냐?》

《예, 집으로 오다가 길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어떻게 서울장안에 백두산호랑이가 나타났을가?》

로인은 아들며느리에게 방금 보고온 백두산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난 아들은

《아버지, 우리 집에도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하고 말하였다.

《신기한 일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 옷방에 좀 가시지요.》

며느리가 아버지를 옷방으로 안내하였다.

옷방문을 열자 이게 웬일인가?

진한 꽃향기가 코를 찔렀는데 로인이 가꾸던 화분마다에 가지각색 꽃들이 피여있는것이였다.

《이런 희한한 일이라구야!》

로인은 너무 놀라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도 처음 보세요?》

《처음 보지 않구. 아침만 해도 꽃망을 하나 맺히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 가꾸었으나 여적 그 어느 하나도 꽃이 피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사이에 꽃들이 만발하였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아들은 자기가 없는 사이 혹시 아버지가 화분을 잘 가꾸어 꽃을 피우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그런것도 아니였다.

로인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더니 한창만에 입을 열었다.

《이게 다 범상한 일들이 아니구나. 대낮에 백두산호랑이가 서울에 나타나고 화분마다엔 이렇게 꽃들이 활짝 피여 향기를 풍기니 이것은 다 하늘이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준것 같구나. 필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서울에 나오실것같구 나라의 통일이 눈앞에 박두한게 틀림없다. 광복되기 몇해전 개성 남대문의 한벽에 소 스무마리와 세쌍의 새를 그린 그림이 나붙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새 세상이 온

다고 말하더니 정말 주체34(1945)년 8월 15일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광복시켜주시였단다. 그러니 이제 머지않아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을 통일시켜주실것이 분명하다.》

8.15광복직후 서울에 나오시는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하기 위해 역에 나와 며칠밤을 새운적이 있는 오로인은 그때 일이 되살아나는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김일성주석님과 꼭같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그분의 위업을 계승하시여 인민을 위한 정사를 펴나가시니 우리 민족이 나아갈 앞길엔 만사가 다 잘될것이라는 믿음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그날 갑자기 꽃들이 피어난것은 오로인네 집에서만 생긴 일이 아니였다. 다른 집들에서도 때아니게 꽃들이 많이 피어나 놀람과 기쁨속에 밤이 새는줄을 몰랐다고 한다.

서울시민들은 말하기를 백두산호랑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오시는것을 환영하여 일시에 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풍기였다고 하였다.

그후 오로인은 아들에게 자기는 시골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서울에 **김정일**장군님께서 오실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있겠노라고 하였다.

아들도 머느리도 손자애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지금도 오로인은 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고 한다.

서울에 백두산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것은 《백두산호》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것 같다.

왜냐하면 《백두산호》도가 처음으로 서울에 나타난것은 1993년봄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백두산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돈것으

로 보아 그렇게 추정하는것도 무리가 아닌것 같다.

그때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의 침략적인 핵전쟁위협에 단호히 대처하시여 전국, 전군, 전민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신 때였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호랑이의 용맹한 모습에서 백두산의 아드님으로 알려지신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단호한 기상을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런데 그후 한해가 좀더 지난 다음엔 또 새롭게 그린 《백두산호》도가 나타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그것은 붉은 술이 달린 투구에 갑옷을 입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산정에서 호랑이를 타고계시는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였다.

이 그림에는 《백두산의 아들》이라는 그림제목과 《갑술년 구월》(1994년 9월)이라는 창작날자가 새겨져있었다.

이 그림은 제목과 창작날자가 말해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주체위업을 이어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그 누구도 이복을 감히 건드릴수 없으며 인민들은 장군님만을 숭배하면서 우러러 받들고 따른다는 남녘의 민심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이런 《백두산호》도가 남조선의 여러 가정들에 가보로 소중히 보존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니 백두산호랑이가 서울에 나타났다는 전설이 전해지는것은 응당한 민심의 반영이다.

가사

언제나 해쫄는 바다에 사네

고영수

아침해 쫄으면 마음설레네
장군님 맞이하던 그 아침처럼
섬초소 지켜가는 해병의 마음
언제나 해쫄는 바다에 사네

눈비에 젖어도 가슴뜨겁네
장군님 그 품에 다시 안긴듯

바다를 맡겨주신 그 믿음 안고
언제나 해쫄는 바다에 사네

설레는 파도처럼 가슴 불타네
장군님 몸가까이 모신날처럼
수뇌부 웅위해갈 병사의 마음
언제나 해쫄는 바다에 사네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산에 들에
거리와 마을에
소리없이 흰눈이 내린다

한송이 한송이에
뜨거운 추억을 실으며
마지막일력장을
조용히 번지는 이 마음

시가의 붓을 들고 걸어온
이해의 365 일
만경대의 눈보라속에서 시작되어
12 월의 령마루에 올라섰건만
이 가슴을 울리는 노래는
이제 시작이런듯

빛이 가닿지 못하는곳에도
노래는 가닿더라
봄바람이 가닿지 못하는곳에도
사랑의 시는 가닿더라

허나
우리 시인들
온 한해 노래를 불렀건만
노래가 닿지 못하는 그곳에
그이의 거룩한 자욱이 찍혀지고
그이의 뜨거운 숨결이 흘렀으니...

그 자욱
그 숨결이 새겨진
하루하루를 더듬어보며
우리 생각 이리도 많을진대
온 한해를 다 안고 걸어오신
우리 장군님께서야
그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랴

장군님에겐
정녕 류다른 해였다
만경대의 눈보라속에서
품에 안아주시던 원아들
옷자락을 적신 그 눈물이
아직도 심중에 남아있는 해

파도설레는 못잇을 해안포진지

감나무아지엔 눈꽃이 피었건만
치녀병사가 안고온 그 감 한알이
지금도 장군님 마음속에
붉게붉게 익어 남아있는 해

그 감 한알이
천만의 가슴에 무르익고
온 나라에 주렁저
그 향기 이 강산에 넘치는 해

장군님 뵈고싶어하는
병사들의 그리움에 젖어
인민을 보고싶어하시는
장군님의 그 그리움에 실려
이 땅에 흐르고흐른 해와 달

그리움으로 간절했고
상봉으로 뜨거운 해
장군님을 뵈워
인민은 그리도 기뻐했건만
병사들을 찾아
인민들을 찾아
그 먼길을 오시느라
고생인들 얼마나 많으셨으랴

헤아려보자니
눈물부터 앞서는가
눈내리고 비내리는 련련한 산발
천리전선길은 어떻게 헤치셨고
길길이 일어서던 파도는
어떻게 넘으셨던가

못잇을 정월초하루
온 나라 인민이
설명절을 즐기었건만
오직 한분만이
만경대의 눈보라속에서 계시었으니
그이는 우리 아버지 **김정일**장군!

수령님의 축복을 받으시며
금수산기념궁전의 계단을 내리신 그이
찬바람은 자신이 안으시고
숫눈길을 헤쳐가실 때
남기고 가시는 자욱에서는
봄바람이 불었다

이해의 못잇을 이야기는
그 봄바람속에서 피어난것이 아니었더나
이해의 기쁨과 환희는
그 봄바람이 터친것이 아니었더나

구월산 단풍은
9 월의 단풍이라지만
기다리는 병사들의 그리움이
이산저산 물들어
철늦어도 지지 않던 구월산 단풍!

오시면 맛보시라고
잠시라도 기뻐하시라고
긋은비 찬서리에 떨어질세라
병사들이 고이 익힌
구월산의 머루다래

그 마음 안고 살아
염분진의 이름없는 녀인은
꿈속에서 뵈웁던 장군님
생시에 다시 뵈오며
그리도 목메여하지 않았더나

레사로운 날
레사로운 밤
기적소리 하나 들어도
장군님 타신 렬차의 기적소리를 아는 인민
굽이굽이 렬길에 찍힌 차바퀴자욱을 보아도
장군님 가신 길을 다 아는 인민

그 렬차
그 야전차가
온 한해 우리 장군님 계신 숙소였다
불빛 꺼지지 않는 집무실이였다
조선혁명의 최고사령부였다!

눈내리고 비내리는 차창가
성에불리고
이슬맺혀 흐르는 그 차창가에
노을이 물들고 별빛이 비꼈다
이 땅의 사계절이 따라섰다

흔들리는 그 창탁우에
수도건설의 새 설계도가 있었고
김철용해공들의 투쟁소식도 있었다
아이들이 울린
소박한 편지도 있었고
우리 울린 시뭍음도 있었으니
조국을 떠메고가시는 그이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우시었으랴

이해의 그 어느 하루
그 어느 한밤
우리 장군님 편히 쉬어보신 날 있었으랴
손발이 시릴 때면
장군님이라고 어이 따뜻한 아래목이
그립지 않으셨으랴

이해의 년력에는
인민이 다 쉬는 일요일도 명절날도 있었건만
총포성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열어주신 그 길
단신으로 헤쳐가신 그 자욱자욱에
일요일이 있었던가
명절날이 있었던가

우리의 해여
1997 년이여
정녕 너를 보낼수 없구나
제야의 종소리가 울린다 해도
우리 어떻게 너를 보낸단말이나

떠나보내기엔
네우에 새겨진 날과 날이
너무도 뜨겁구나
헤여지기엔
이 땅에 남긴 너의 자욱자욱이
너무도 귀중하구나

수령님 서거 3 년상을
반만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추모의 날로 맞은 해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그 감격이
10 월의 광장에 꽃보라로 터져오른 해
회령의 고향집마당에
온 나라가 찾아와
어머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 해

아버이장군님 우리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신 애국의 마음이
불길되어 솟구쳐오른 한해였다
김일성민족의 자존심을
높이높이 세워주신 한해였다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인녀성들
자본주의땅을 대원정하고
친정아버님의 품으로
돌아온 해였다

시간은 흐른다 하라
날과 달을 안고
세월은 흐른다 하라
허나 우리의 해는
가지도 흐르지도 않거니

조국의 운명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걷고걸으신
장장 5만여리 장정의 길이
한지에서 보낸 그 나날
젖은 옷을 말리워 입고가신
외진 강변의 그 우등불자리가

찬바람 눈바람 다 막아주시는
장군님의 그 품이 있어
우리 한해는 노래도 많았다
웃음도 많았다
기쁨에 실린 통구공들이 하늘을 날고
그 즐거움속에
우리 생활은 더 밝아졌다

하여 너를 세워두노라
조선의 아침은
백두산에서 밝아왔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
이 땅의 영원한 아침으로 불러주신
백두의 해돋이에 너를 세워두노라

장군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그 불멸의 진리를
장군님을 더 잘 받들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총폭탄의 맹세를
이해의 갈피갈피에 새기었나니

그래서 이 땅위에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1997년이여
너는 저물지 않으리
너는 가지 않으리

오, 우리의 해
장군님의 해
우리는 이해를
행운이라 부른다
승리라 부른다

우리는 너를 추억만 하지 않으리
추억만 하지 않으리

우리는 너를 가슴에 안고
래일로 가리
미래로 가리

걸음걸음
우리 식의 걸음새로
력사우에 새로운 양양기를 펼치며
총진군의 포성 드높이
우리 가리라

밝아오라 새해여
희망넘친 1998년이여
우리 생활이 어렵고
가는 길에 시련이 겹쌓인다 해도
장군님 따라 나아가는 대오앞에
붉은기는 더욱 세차게 나뭇기리니

혁명의 최고사령관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내 나라 내 조국은
주체성의 강국
민족성의 강국으로
그 존엄 만방에 떨치리라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장군님을 길이 모셔갈
뜨거운 축원의 마음을 안고
송이송이 흰눈이
이 강산에 내린다

아, 우리의 한해를
무궁한 미래로 이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저물지 않는 이해와 함께
녹지 않는 이해의 그 눈송이와 함께
우리 시인들은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노라

이해에 못다 부른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장군님 따라 가고 또 가리니
우리의 어버이이시여
우리 운명의 은인이시여
새해에
부디 건강하시라!
부디 안녕하시라!
부디 행복하시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1997. 12. 29)

위대한 김정일원수님께

유리 까스뜨로

위대한 김정일원수님이시여
당신은 언제나
조선혁명을 위하여 싸우시는분
인민의 의지 한몸에 지니시고
수령님 위업 받들어
만민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조선 일떠세우시였어라

위대한 김정일원수님이시여
당신의 업적 력사에 길이 남아있으리라
형형색색의 어지러운 바람 불어오고
온갖 시련 앞을 막아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올바른 투쟁의 길 밝혀주시며
수령님 개척하신 위대한 혁명위업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원수님이시여
여기 빼루에 사는 당신의 벗들
당신의 성스러운 위업 무조건 지지하거니
민족의 통일위업 반드시 성취하고
김일성대원수님 념원대로
21 세기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모범 창조하시라

위대한 김정일원수님이시여
조선인민과 온 세계는
당신을 따르고 따르리라
영원히 해와 달이 다하도록!

(필자는 빼루시인임)

배길 70 리

김휘조

들물에 날물에 이 마음 앞세워
오가는 길이라오
비단섬에서 《비단공장》까진
배길 70 리
오늘도 한배 가득 갈단을 싣고
기관소리 통통통
올려가는 70 리

밀려오고 밀려오는 저 물결타고
생각도 이랑이랑 밀려오는 길이라오
비오는 궂은날 비단섬을 펼치시려
수령님 모시고 오신 장군님
그날의 그 영상 어려오는 70 리

흰눈같이 하얗, 하얗 쏟아지는
《비단공장》 갈숨을 쥐여보시며
환히 웃으시던 그 모습도 어려와서
이 물길로 비단갈 어서 나르자고
좋은 배를 띄워주신 그 영상도 어려와서
자꾸만 이 마음이 더워오는 길이라오

저보오 출렁이는 금물결 번쩍이는 물결에
그날의 장군님 미소가 어려오네
필필이 비단필 고운 꽃무늬
오늘도 활짝 피워주시는
그 사랑 못잊어 봉- 봉- 올려가는
배고동소리도 목이 메였소

저긴 벌써 보여오오
《비단공장》 쌍굴뚝이 하늘가에 보이오
구름처럼 쏟아지는 하얀 갈숨이
꽃처럼 환히 웃는 사람들 얼굴이

노을은 붉게 물결에 퍼지는데
내 오늘도 통통통 갈배를 몰아
미끄러지듯 물이랑을 타고넘는 70 리
이 배길 70 리는 사랑의 70 리
그이를 우러르는 한마음 뜨거운 마음
천리로 뻗는 길이라오 만리로 뻗는 길이라오



끝없이 울려퍼지는

《동지애의 노래》

지난해 10월 10일 당보지면에는 한편의 가요가 실려 사람들을 세찬 격동과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다. 그 노래는 바로 18년전에 창작되어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온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 《동지애의 노래》였다.

지난해 10월 10일, 그날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맞은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이였다.

그 뜻깊은 날에 우리 장군님께서 수많은 노래들가운데서 바로 다름아닌 《동지애의 노래》를 골라 당보에 실도록 하시였으니 장군님의 그 웅심깊은 뜻이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사색의 세계에 잠기게 하고 세찬 흥분에 휩싸이게 하였던것이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갈수록 바람세찬 화전의 언덕에서부터 오늘에로 이어져온 우리 혁명의 전력사가 한꺼번에 어려오고 조선혁명의 승리와 영광의 비결에 대한 생각으로 목이 꼭 메여오는 《동지애의 노래》.

그것은 결코 단순한 한편의 노래가 아니다.

그 어떤 척도로써도 잴수 없는 심오한 무게가 거기에 실려있다.

그러면 《동지애의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곡으로 태어나기까지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원래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는 《동지애의 노래》가 없었다. 창작가들은 여러모로 진지하게 논의하던끝에 이 영화에서는 새로 주제를 짓는다고 할것없이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그대로 주제가로 하기로 하였었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며 심장으로 부른 노래 《조선의 별》, 영화도 노래의 제목과 같이 《조선의 별》인데 그것을 그대로 주제가로 한다고 하여 무리가 갈것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혁명영화 《조선의 별》 촬영현장을 찾으시고 영화창작사업을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작곡가를 찾으시여 그에게 영화의 주제를 어떤 곡으로 하려고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그대로 주제가로 하고 그밖에 다른 노래를 하나 지으려 한다는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영화에는 반드시 명곡이 있어야 한다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였다.

그후에도 여러차례 영화의 주제가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느날 또다시 한 일군에게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는 반드시 명곡으로 된 주제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야 비로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아닌 다른 주제를 념두에 두고 계심을 알게 된 일군은 그이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며 창작가들을 찾아갔다.

창작가들도 그제서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운 주제를 바라고계시는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당장 그 뜻을 받들자고 하였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주제를 지을것인가? 창작가들은 생각을 보았다.

문득 그들에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화의 주제를 밝혀주시면서 혁명영화 《조선의 별》은 혁명적동지애와 결부시켜 창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말씀이 되새겨졌다.

혁명적동지애, 이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주제의 종자였다.

창작가들에게는 영화의 주제가에 대하여 너무도 단순하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잘못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사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동지애를 사상적핵으로 하는것만큼 웅당 그와 관련한 주제가가 따로 있어야 하였다.

창작가들은 깊은 자책과 함께 창작적흥분을 금치 못했다.

작가는 당장 가사를 쓰겠다고 나섰다. 그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했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타는 충성의 마음그대로 심혼을 바쳐 한줄한줄 가사를 써나갔다.

높은 시정신과 고상한 예술성으로 가득찬 가사는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영화 《조선의 별》 주제가의 가사가 나오는데 대하여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곡도 명곡으로 완성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가사를 받아든 작곡가들은 금방이라도 명선률이 튀어나올것만 같은 창작적흥분에 휩싸여 즉시 작곡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막상 노래를 지으려고 하니 곡을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짓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었다. 《동지애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 전적으로 운명을 의탁하고 한없는 경모의 정으로 수령님을 우러르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불타는 충성의 노래로 되어야 하였다. 그러자면 송가형식으로 되어야겠는데 그렇다고 생활에 발을 붙이지 못한 일반적인 공허한 웨침으로 되어서는 안되었다.

작곡가는 노래의 이러한 사상미학적요구를 해결하려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좋은 곡상은 뜻대로 떠오르지 않았다.

썼다가는 지우고 지웠다가는 또 쓰고, 그러기를 수십번...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시대 명곡창작의 원칙적문제들과 함께 중요한 방법론적요구를 제시해주셨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곧 그대로 작곡가에게 《동지애의 노래》의 곡상을 찾게 하는 고무로 되었다. 작곡가는 비로소 《동지애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원단심 충성다했던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웅심깊고 진실하게 펼쳐보여주는 사색적이고도 절절한 선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노래는 드디어 창작완성되어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영화를 보아주신 자리에서 《동지애의 노래》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작곡도 잘하였습니다. 혁명적동지애에 대한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그 노래를 주선물로 끝가니 좋습니다.》

자신의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창작가들을 치하해주시는 그이의 겸허한 말씀에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영화에 나오는 동지애에 대한 노래가 명곡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혁명동지애에 대한 사랑과 의리감이 안겨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사도 명가사이고 곡도 명곡이라고 거듭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시대의 명곡으로 창작완성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대한 노래 《동지애의 노래》.

노래는 세상에 나온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동지애로 무장시키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동지애로 개척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전령사,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된 위대한 동지애의 철학이 반영된 《동지애의 노래》.

노래에는 또한 혁명동지 한사람한사람을 절대적 사랑과 믿음으로 따쫓아 품어안아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참다운 동지로 키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온지 얼마 안되던 때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가요 《동지애의 노래》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적내용에 대하여 상기시켜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적동지애야말로 우리 당의 정신력이고 우리 혁명의 근본추진력이다, 혁명적동지애를 떠나서 우리당을 생각할수 없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계속하시어 우리에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영원한 동행자, 진짜동지와 진짜동지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진정한 동지들이 있고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심으로 뭉친 단결의 힘만 있으면 천만대군도 두렵지 않고 사나운 광풍도 휘파람으로 날려보낼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인것이다.

그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건히 새기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 창건 52돐이 되던 지난해 10월 10일 당보에 《동지애의 노래》를 싣도록 하신것이다.

당보에 실린 《동지애의 노래》.

그것은 영원히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동지애를 불패의 무기로 하여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찬란히 빛내여가실 우리 장군님의 엄숙한 선언이고 맹세이다. 또한 그것은 자신께서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인민모두에게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하여도 다진 맹세 변치 말고 끝까지 혁명의 한길을 가자고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격려가 담겨져있는 위대한 당부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들은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으로 가슴적시며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에 더욱 높이 울려퍼지는 《동지애의 노래》.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시련의 폭풍이 휘몰아쳐 온다고 하여도 영원한 신념과 의리의 노래 《동지애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랑스러운 승리자로 최후승리를 맞이할것이다.

본사기자

봄빛 질어가는 들에서

봄이 왔다.

포근히 내리쬐이는 봄볕아래 만물이 소생하는 활력의 계절, 환희의 3월이다.

아직도 개울가에는 살얼음장이 녹지 않고 음달진 곳에는 눈무지들이 보이건만 봄은 역시 봄이어서 모든것에서 약동하는 생의 기운이 안겨오는 협동벌.

봄같이 바쁜 프락포르의 기세찬 동음에서도, 누렁황소를 재촉하며 거름달구지를 몰아가는 농장원의 걸음새에서도, 은은하게 들려오는 처녀들의 노래소리에서도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에 떨쳐나선 열정과 기백이 느껴진다.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마음을 안고 울리는 노래소리.

노래소리에 잠겨 추억의 갈피를 더듬어가는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 진눈까비 날리던 그날 여기 농장벌에 뜨거운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경애하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한껏 어렸다.

바람이 사납게 불던 그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구월산기슭에 자리잡은 여기 농장벌을 찾아주셨을 때는 중천에 뿜던 해가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어지고있었다.

멀리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뵈우고 황황히 달려온 농장일꾼들은 그이를 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모시려 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방에 들어가 앉아있을바에야 무엇때문에 이 먼곳에 오겠습니까.**》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벼단과 강냉이단들이 듽성듬성 무져있는 논밭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벌을 한번 돌아보자시며 포전으로 나오시었다.

포전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벼이삭하나를 골라드시고 이삭당 알수를 하나하나 친히 세여보시고나서 일꾼들에게 논벼와 강냉이 정보당수확고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일꾼들은 수확고를 말씀드리며 이것은 땅이 척박한 이고장에서 처음보는 대풍이라고 자못 자랑스럽게 덧붙었다.

사실 이고장은 땅에 모래기가 많고 찬 샘물까지 스며들어 농사가 잘 안되어 해방전에는 《거지들》이라고까지 불리웠었다. 이런 땅에서 그만한

수확을 낸것만도 대단한것이라고 일꾼들은 생각하고있었다.

일꾼들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땅을 갈구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시비체계는 어떻게 세웠으며 평당포기수는 제대로 보장했는가 하는것을 자세히 물으시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적리치에 맞게 농사를 지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소출을 낼수 있다고 하시며 모래기가 많은 땅에는 흙갈이를 하고 랭습지에는 암거를 설치하여 토지를 개량하며 시비체계를 과학적으로 세워 비료를 구색에 맞게 치며 종자를 잘 선택하고 평당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세세히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고장은 땅이 원래 나쁘다고 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고장 땅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이나 땅을 믿고 농사짓는 때가 아닙니다. 과학농사의 시대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으면 지금보다 알곡을 두掴은 더 낼수 있습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농장일꾼들은 이때까지 땅타발만 하면서 농사일을 알심있게 짜고 들지 못하고 현재수준에 은근히 만족해하던 일들을 가슴 아프게 자책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00정보가 넘는 농장벌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농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둔덕에 오르시었을 때에는 어느덧 해가 서산마루에 지고있었다. 게다가 바람은 점점 더 세지고 진눈까비까지 날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람부는 언덕에 그냥 서시여 저녁연기가 자오록이 서려오르는 마을을 이윽도록 굽어보시다가 간단히 요기나 하고 떠나자고 하시며 함께 온 일꾼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도록 이르시었다.

아니, 눈앞에 마을을 두고 바람부는 이 언덕에서 식사를 하시다니? ...

깜짝 놀란 일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날도 저물었는데 마을에 내려가 식사를 하실것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가벼이 웃으시며 들에서 먹는 음식이 별맛이라고, 자신의 걱정은 조금도 말라

고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이 준비해온 식사를 보니 주먹밥 몇개와 한두가지 남새무치개, 보온병에 넣은 더운물이 전부였다. 그 간소한 식사를 보며 일꾼들은 너무도 가슴이 뜨거워 눈굽을 적시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다같이 잘살게 하시려고 이 외진 농장에까지 찾아오시여 한지에서 주먹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밤낮을 가림없이 애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모습은 진정 한평생 농촌문제해결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험한길, 굵은길, 마른길 가림없이 걷고 또 걸으신 아버지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부터 몸소 가대기도 끌어보시며 제 땅이 없어 당하는 이 나라 농민들의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신 위대한 수령님.

그러하시기에 해방후 첫 민주개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도록 해주시고 친히 농촌마을을 찾으시여 평생 지주집 머슴군으로 지지리 짓밟히며 살아온 농민의 분여지에 손수 표말을 써서 박아주시고 이 땅을 영원히 부치며 지주놈 부럽지 않게 잘살라고 축복해주신 아버지수령님.

수령님 손수 올리시는 지심을 올리는 표말박는 소리를 들으며 한평생 이 땅을 갈고 가꾸면서도 제것이 아닌탓으로 대대로 천대와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었던 지난날이 저주로와 울고 멎고 시들었던 자기들에게 새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덕이 고마와 또 울던 이 나라 농민들.

농민들에게 평생소원이던 제 땅을 안겨주시여 그들에게 행복의 터전을 마련해주시고도 그들의 보다 유족한 생활을 위하여 우리 수령님 그후에도 얼마나 많은 길을 걸으셨던가.

농업협동화시기와 사회주의농촌건설시기...

들판에 넘쳐나는 구수한 난알향기에 취할 때가 제일로 기쁘다시며 머리에 흰서리내린 고령에도 몸소 농업전선의 최고사령관이 되시여 농사를 진두에서 지휘해주신 수령님.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 어려있고 평생의 로고가 깃들어있는 이 길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어느덧 사방은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진눈까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세차졌다.

허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곳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문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차를 멈추게 하시더니 차에서 내리시었다.

일꾼들도 급히 차에서 내려 앞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벼짚단 하나가 길옆에 놓여있는것이 전조등불빛에 드러나보일뿐이었다.

그들이 영문을 몰라하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세차게 휘뿌리는 진눈까비를 온몸에 받으며 몸소 그 짚단을 안아드시고 벼짚무지쪽으로 걸어가시는것이였다.

일꾼들이 자책의 말씀을 올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벼짚 한단이 별치 않은것 같지만 그게 다 농민들이 봄내 여름내 땀흘려 가꾼 농장의 귀한 재산인데 잘 건사해야 합니다.》

농장원들에게 폐를 끼칠가봐 자신께서는 한지에서 주먹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짚단 한단도 다 농장의 재산이라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은 바로 이런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농장원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 이시다.

오늘도 그날의 그 사랑을 안으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전선길을 이어가시는속에서도 나라의 농사일을 두고, 농장원들의 생활을 두고 늘 마음쓰시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있어 우리의 농장별은 언제나 봄빛으로 파스하고 이 땅에는 해해년년 알찬 이삭만이 무겁게 드리워 설레일것이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이끄시는 올해의 최후 승리를 위한 강행군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열정으로 불타는 농장별, 그 열정으로 우리의 농장별은 질어가는 봄빛과 더불어 더욱 후덥다.

오늘도 평양하늘 승엄히 바라보면

우리를 불러주는 수령님 그 유혼

만풍년 노래속에 당의 뜻 꽃피워가며

못다 바친 효성을 다해 그 유혼 지키렵니다

해빛따사론 봄하늘가로 랑랑히 울려퍼지는 노래소리.

그 노래소리에서 우리는 풍년이삭이 설레일 장쾌한 풍년가을을 그려보며 최후승리의 언덕에서 울려퍼질 승리의 만세소리를 듣는다.

본사기자 최용호

왕밤나무와 알락다람이

리순복

화창한 봄날
왕밤나무에 꽃이 활짝 필 때
코를 발름거리며
제일먼저 찾아온
알락다람이 하는 말

《아이 꽃향기!
막 취할것만 같아요.
난 정말이지
아저씨한테 훌쩍 반했어요.》

무더운 여름날
왕밤나무 서늘한 그늘을 퍼니
해종일 가지타고 한들거리며
알락다람이
입다물새 없이 칭찬하는 말

《아이구 시원해.
어쩌면 잎이 이처럼 소담할가.
난 정말이지
아저씨결을 떠나면
못살것만 같아요.》

풍년든 가을날
마음좋은 왕밤나무
주먹같은 밤알을
후두둑 후두둑 쏟아주니
새벽부터 찾아와
자루 가득 채우며
다람이 하는 말

《해해! 마음도 정말 무뎌하시지.
이 신셀 어떻게 다 갚을까?》

다음해 봄이었네
겨울나고 찾아온 알락다람이
그만해야 놀라서 눈알이 울퉁
있도 퍼지 못하고

꽃망울도 없는 왕밤나무
공공 신음소리 내며
앓고있었네

(올해엔 왕밤나무 신세지기
다 틀렸구나.)

알락다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밤나무 힘겹게 말했네
《다람이야, 난 병이 들었다.
딱따구리의사를
좀 데려다주렴.》

밤나무 하는 말에
사르르 두눈을 내려뺐다 올려뜯 다람이
《아이! 이를 어쩌나?
사실 난 지금
약밤나무아저씨의 부락을 받고서
급히 가던길이랍니다.》

이렇게 말한 다람이
어디론가 뽀르르- 달아나려다
딱따구리의사와 마주치었네

그러자 알락다람이
눈웃음치며 하는 말
《아유! 마침이군요.
왕밤나무아저씨가 못된 병 만났으니
한번 잘 고쳐보세요.》

그 말 들은 딱따구리
성이 나서 웨쳤네
《리로울 땀 해해하며 아양 떨더니
불리할 땐 모르는척 꼬리사리는
량심없고 의리없는 알락다람아
너야말로 진짜 못된 병에 걸렸구나.》

(1997. 12. 17)

《대통령》의 박식자랑

정춘식

번뇌로 날을 보내고있는 김영삼
어느날 줄개들을 불렀네

《여보, 총리 당신은 내가 어째서
<한국>의 시장을 워싱턴에 맡겼는지 아오?
국방부장관, 당신은 내가 어째서
군에 대한 통수권을
<백악관>의 손에 그냥 두었는지 아오?》

줄개들은 입을 다물고
《대통령》의 얼굴만 쳐다보았네

《그것보오, <대통령>이 하는 일
잘 모르면서 날더러 저능아다
꼭두각시다 비난들을 한다는데
내참, 누가 저능아인지 모르겠단말이요.》

바빠난 줄개들 입을 모아 아뢰는 말
《각하에게 누가 감히 그런 험담을...》
시원한 대답 듣지 못해
속이 달아오른 김영삼
무슨 생각을 굴리는지
앉아서는 줄개들을 쏘아보고
일어나서는 창문가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더니-

엄엄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유자나무 자라고있는
창문가로 걸어갔네

방안은 물을 뿌린듯
숨소리마저 없는데

파란 유자잎과 노란 열매
이리 보고 저리 살피며

빙그레 웃음짓던 김영삼
이파리 하나, 열매 한알 툭 뺐네

그리고 유자잎은 총리에게
유자열매는 국방부장관에게 주었네
《여보, 총리
그 파란 잎은 당신이요.
그래 그 잎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것 같소?
국방부장관, 그 열매는 당신이요.
그래 그 열매의 목숨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생각해보았는가?》

하지만 줄개들은 두눈만 껌꺼껌꺼
서로 눈치만 살피는데
어깨가 잔뜩 올라간 김영삼
이번엔 유자의 뿌리를 뽑아들었네

《당신들이야말로 저능아들이요.
그래 그 잎과 열매와 줄기를 살리는
이 유자의 뿌리가 누구를 녀두해두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소?》

그제서야 모두 숨을 후-
《야, 우리 각하가 현명하신걸.》

약삭바른 《국무총리》
이때라 난딱 나서며
입에 꿀바르고 하는 소리

《누가 감히 각하를
저능아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미국에 있다는것을
유자나무로 비유한 <대통령>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1997. 12. 17)



위대한인간—섬초소에 새기신 사랑의 자욱

푸르려 설레이는 조국의 바다!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끝없이 설레이고 있다.

파도 사나운 날바다위에 솟아있는 작은 섬에 깃든 어버이 그 사랑은 오늘도 래일도 우리 초병들의 가슴마다에 무적의 힘과 용맹을 안겨준다.

륙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섬이지만 조국의 바다를 지켜선 초병들이 언제나 굳건히 서있다.

보이는것은 푸른 바다이고 들리는것은 파도소리뿐인 단조로운 섬에서 사는 초병들에게서 언제나 그리운것은 사람이고 육지였다. 하기에 육지에서 편지를 날라오거나 후방공급물자를 실은 배가 와도 섬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깊은 밤 섬 가까이 지나가는 배에서 비쳐오는 한점의 불빛마저도 이곳 섬방어대초병들에게는 어머니조국의 정다운 눈길마냥 소중하게 여겨지곤하였다.

이렇듯 외진 작은 섬에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사나운 파도를 헤치시며 지난해 6월 23일 몸소 찾아오시었으니 정녕 장군님을 맞이한 초병들의 감격은 끝이 없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어버이장군님!》

끓어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한 초병들은 흘러내리는 눈물도 씻을념을 앓고 장군님을 목매며 부르며 그이의 품에 달려가 얼굴을 묻었다.

다들 잘 있었는가고, 동무들이 보고싶어서 찾아왔다고 하시며 사랑하는 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따듯이 안아주시는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그들모두에게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었다. 진정 최고사령관과 전사들간에 뜨겁게 흐르는 혈연의 정이 세차게 굽이치는 감동적인 상봉이었다.

해풍에 검실검실하게 탄 전사들의 얼굴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섬에서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며 앓는 사람은 없는가, 고향의 부모형제들한테서 편지는 오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초소들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는 초병들의 가슴마다에는 다함없는 충성의 열정이 높뛰었다.

이날은 초여름이지만 몹시 무더운 날씨인데다 바람 한점 없이 잠풍한 백사장과 도래굽이에서 풍기는 열기로 하여 숨이 킁킁 막힐 지경이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더위에는 아랑곳 많으시고 섬방어대 초병들의 병실과 식당, 교양실, 초소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생활과 전투임무수행정형을 세심히 료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섬에서는 남새가 그림졌는데 우선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바다에서 여러가지 고급어족들을 많이 잡아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야 한다고 지휘관들을 따듯이 일깨워주시었다.

섬방어대 초병들의 생활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부대지휘관들은 장군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과 문화생활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불편을 모르고 지낸다고 사실 그대로 말씀올렸다. 그러자 멀리 육지쪽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철 바람세찬 섬에서 사는 군인들인데 왜 불편이 없겠는가고 하시면서 육지생활도

그리울것이고 보고싶은것도 많을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섬방어대 군인들에게 록화기와 록음기도 더 많이 보내주고 후방물자도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관문을 지켜 외진 섬에서 수고하는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었다.

초병들의 심정을 속속히 헤아려주시며 뜨거운 어버이사랑을 꾸어주시는 장군님의 한량없는 은정에 지휘관들과 전사들은 감격에 목이 메어 눈시울 적시면서 충성을 맹세다졌다.

초병들의 근무생활은 물론 군인가족들의 살림살이와 자녀들의 교육교양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필요한 대책을 일일이 세워주시고서야 다소 마음이 놓이신 듯 미소 어린 안색으로 섬마을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시었다.

(아! 이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다심하고 인정깊으신분이 또 어데 있으랴. 파도 사나운 외진 섬초소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깊이 헤아려보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는 진정 우리모두의 친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함없는 은정에 목이 멘 초병들은 크나큰 행복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모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고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으로 한목숨 바쳐 싸워갈 드높은 결의에 차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별이 쏟아지는 도래굽이를 오래도록 거니시면서 섬방어대앞에 나선 전투적과업들을 일일이 주신 다음에야 지휘부마당으로 향하시었다.

오매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촬영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안고 기념촬영대우에 정렬한 군인들과 가족들은 섬이 떠나갈듯이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환호에 따 뜻이 답례하시면서 부대지휘관들에게 군인들과 가족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가하였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은 가슴뜨거워지는 걱정을 금치 못하며 얼마전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섬방어대로 떠나시기 얼마 전이었다. 해당 부문 일군들로부터 준비사업 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념촬영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섬방어대 군인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기념 사진을 찍어야 하겠습니다. 기념촬영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가시켜야 합니다. 기념촬영시간에 동무들이 경계근무를 대신 서주면 모든 전사들이다 사진을 찍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살림살이하는 군인들의 안해들과 부모들도 기념촬영에 참가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념촬영에만 한명이라도 빠진다면 그가 얼마나 섭섭해하셨는가 하고 하시며 조직사업을 잘하라고 채삼 당부하셨던것이다. ...

한사람이라도 빠질세라 것처럼 세심하게 조직사업을 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사진을 찍기전에 또다시 알아보시니 전사들에 대한

아버이 그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섬방어대 초병들과 가족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는 이 영광의 시각에 섬초소마다에는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전사들을 대신하여 총을 메고 경계근무를 서는 전설같은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하기에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넓은 품에 안겨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초병들과 가족들은 이 세상 만복을 다 받아안은듯 감격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머금으며 밝게 웃는 섬초소의 초병들과 가족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은 위대한 아버이를 모신 영원한 한가정, 한식물의 빛나는 모습이었고 길이 전해갈 사랑의 서사시였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섬방어대 초병들과 가족들은 오늘도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볼 때마다 이 세상 만복을 다 받아안던 감격의 그 순간을 그려보며 심장의 땡세를 다진다.

우리 비록 물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섬에 살지만 조국의 관문을 지켜선 초병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안겨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있다. 하기에 우리는 절해고도에 있다 해도 오직 아버지장군님을 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어 크나큰 그 사랑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리라하고...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름없는 외진 섬초소에 새기신 사랑의 자욱은 날과 더불어 인민군전사들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명언해설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이 바로 조국애이며 주체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은 조국애와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의것, 우리 나라의 모든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상감정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조국을 사랑하며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자기 나라의것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구체적인 감정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것,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원, 자기 인민이 이룩한 모든 창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훌륭히 가꾸어

나가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조국애이며 주체이다.

자기 나라의것을 사랑할줄 모르고 자기 인민이 이루어놓은 창조물들을 남의것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천시하는것은 애국주의와 인연이 없으며 주체사상과도 인연이 없는 민족허무주의이다.

우리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나라의 모든 자원과 혁명의 귀중한 전취물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그것을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봉화리의 새벽

류민호

사위는 어두워
푸르른 숲마저 잠든듯
내 지금
안개흐르는
봉화리의 언덕에 섰노라

그 무엇이 나를 깨웠는가
그 무엇이 나를 이끄는가

걷고싶어
끝없이 걷고싶어
나의 옛 고향집같은
유서깊은 트랙을

걸음걸음 걸음발에
안개 휘감기고
이따금 나무잎에 맺힌 이슬
옷자락에 떨어지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
박우물의 샘물솟는 소리
령너머 열과강 흐름소리마저 들려올듯

고요속에 잠긴 이밤
《지원》의 송고한 뜻이 가슴에 더 깊이 새겨져
그날의 그 새벽을 느끼노라

문득 걸음 멈추고 우러르니
그날처럼 서계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영상이여

어서 오라고
명신학교 종소리도 울려주실듯
어서 오르자고
봉화산으로 성큼 먼저 오르실듯

순간 후두둑 가슴 뿔뿔여라
바로 이런 새벽이었으리
바로 이런 안개속이었으리

바로 저 길

봉화산으로 치달아오른 길
저 길로 김형직선생님따라
온 마을의 발걸음이 이어지던 그 새벽

그 걸음발에 새들이 깨고
그날에 울린 호각소리 나팔소리에
온 봉화리가 깨어나고

그날에 울린 랑랑한 나팔소리
학생들의 우렁찬 노래소리
그 소리는 이 땅에 아침을 부르던 소리
조선을 깨우던 소리
2천만 동포를 부르던 소리

오, 그렇게 새벽은 밝아왔으리
캄캄한 어둠 산야에 덮였던
그 어둠을
짓밟힌 수난의 밤들을 한몸으로 헤치시는
김형직선생님의 거룩한 그 자욱을 따라

이런 새벽이었으리
선생님은 이슬에 늘 옷자락 적시시며
동지들을 찾아 몇천리
헤쳐가신 그 길이

아, 이런 새벽
선생님 헤쳐가신 그 길이 있어
이 나라 혁명의 려명은 동터오고
《지원》의 그 뜻은
기어이 해빛으로 이어졌나니

새벽이여
봉화리의 새벽이여
우리 어이 너를 잊으랴
우리 어이 추억으로만 너를 간직하랴
너는
세대를 넘어 세월을 넘어
우리 마음에 눈부신 아침을 부르는
민족의 새벽
내 나라의 영원한 새벽이여라

유격구에서 온 사람

김교섭

1

한정없이 깊어보이는 음침한 무인지경의 골짜기길로 스물이 되나마나한 애젊은 총각이 걸어가고있었다.

아구리를 꼭 졸라맨 깡통한 배낭을 등에 진 그의 가슴에는 자그마한 광고판이 드리워있었다.

《7살, 4살난 동생을 찾고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성큼한 목에서는 두 컬레의 자그마한 아이들의 고무신이 매달려 대롱거리며 춤을 추었다.

가슴에 드리운 광고판도 그렇지만 목에 매달린 신발로 하여 어린 동생을 찾아 헤매는 총각의 모습은 가공해보였다.

적통치구역에서 동생을 찾고있는 이 총각은 사령부에서 파견한 유격대공작원 오성해였다.

한달전에 12도구 지하조직책임자가 가족들과 함께 일제놈들한테 체포되어 자기 집에서 불에 타죽은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었다.

어느 변절자가 오랜 지하공작원을 놈들에게 밀고하였던것이다. 천명이라 할지 마침 그의 두 자식이 동네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놀다가 재난을 면하고 살아남게 되었다. 마음어진 동네놈은이가 놈들의 손이 미치기전에 재빨리 두 아이를 빼돌리었던것 이다.

이 사실은 지하조직을 통하여 사령부에 보고되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우리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워주자고 하시면서 교아가 된 지하조직책임자의 두 아이를 유격구에 데려오도록 하시었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통신원 오성해가 적구으로 파견되었다. 그가 12도구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 아이들이 없었다.

지하조직책임자의 형님벌이 된다고 하는 낯모를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서 두 아이를 어디로인가 데려갔다고 한다. 그가 어디서 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오성해는 여기저기 널려있는 산간오지를 뒤져가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듣기도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끼워넣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사방 이백리 산골에 널려져있는 마을들을 참빗처럼 훑으며 다니고있지만 호수에 떨어진 조약돌처럼 아이들의 종적은 오리무중이었다.

밤낮으로 헤매다보니 퍼그나 지쳐버린데다가 이제는 식량마저 떨어져가고있었다.

산비탈에 지붕이 버섯모양으로 생긴 귀틀집이 한채 서있었다. 마을에서 초간히 떨어지고 숲이

우거진 후미진곳에 묘하게 틀고앉아있어 밖으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만 아니였다라면 집을 발견하지도 못했을것이다. 오성해는 이 집에서 하루밤 묵으면서 아이들의 행처를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길쪽에서 집을 인차 발견하지 못하도록 앞마당에 키높은 나무단으로 울바자를 둘러치였다. 울바자에 삿잡문이 달려있었다.

오성해는 삿잡문을 안으로 밀고 마당에 들어섰다. 불쾌한 비린내가 코를 쿡 찔렀다.

집안에서는 도끼로 푸근푸근하고 질긴 물건을 란도질하는지 툭툭 내리찍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님 제집니까?》

오성해는 부엌문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주인을 찾았다. 집안에서 들려오던 도끼질소리가 푹 멎었다. 개가 사납게 으르렁거리였을뿐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숨을 죽이고 바깥동정을 살피는것 같았다.

《동생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루밤 쉬고갈수 없을까요?》

오성해는 따뜻한 아래목에 앉아 몸을 녹이며 주인과 이야기하는 자신을 그려보며 가볍게 부엌문을 두드리었다.

《안돼오.》

박정하게 잡아떼는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개를 추겨대는 소리가 뒤따랐다.

개가 부엌문쪽으로 왈각 달려오더니 벌떡 일어서며 문을 사납게 허비여댔다. 오성해는 저도 모르게 한걸음 물러섰다.

오성해는 시장하고 지쳐서 더는 걸을맥도 없었다. 하지만 더 어둡기전에 이곳을 떠나는수밖에 없었다. 그가 마당에서 터벌터벌 걸어나가는데 집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아버지, 가요.》

《쉬, 소리내지 말아.》

마당에서 걸어나가던 오성해는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아이가 큰아버지라 부른다면 이 집식구가 아니라 어디서인가 다른 교장에서 온 아이가 분명했다.

《미안하지만 더운물이라도 한그릇 얼읍시다. 추워서 몸이 어찌나 떨리는지.》

오성해는 주인의 동정을 살피며 문고리를 더듬어잡았다.

《내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이눔.》

아이를 꾸짖는 엄한 목소리와 함께 드디어 구부정한 그림자가 불빛이 어린 방문에 실리었다.

오성해는 들어오라는 말도 하기전에 밖에서 먼저 문을 열고 부엌안으로 한걸음 들어섰다.

고콜에서 타고있던 광술불이 그가 몰아들인 바람을 맞고 위태롭게 꺼뚝거리다가 끝내 꺼지고말았다. 불이 꺼지는 순간 오성해는 곰같이 시꺼멓고 장대한 사나이의 손에 시퍼런 도끼가 쥐여진것을 보았다. 자기가 고기를 탕치던 시퍼런 도끼날끝에 면바로 이마를 내대고 서있다고 생각하자 오성해는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며 몸이 쭈아드는것 같았다.

(미친 사람인가?)

몸서리치는듯한 침묵이 깃들었다.

《허락도 없이 들어와 미안합니다.》

그는 도끼를 보지 못한듯 공손히 머리숙여 인사했다. 주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무겁게 발을 뒤로 끌며 한걸음 물러섰다. 오성해는 등에 지고있던 배낭을 벗어 부뚜막우에 내려놓고 호주머니안에서 성냥을 꺼냈다.

광술에 불이 달리자 오성해는 불손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주인을 살펴보았다. 버룩한 귀바퀴밑으로 시꺼먼 굴레수염이 수북한 40대의 사나이가 자기를 지켜보며 서있었다.

《더운물은 저기 있어.》

불청객이 순박해보이자 다소 마음놓이는지 약간 누그러진 태도로 주인은 나무뚜껑을 덮어놓은 쇠가마를 가리키었다.

오성해는 나무뚜껑을 조금 밀어놓고 설설 끓는 물을 바가지로 뜨면서 재빨리 구들을 올려다보았다.

니무꺄작옆에 사냥총을 기대여놓았다. 함지박안에는 방금 도끼로 각을 뜨다만 산짐승고기가 담겨있었다.

아이만은 보이지 않는다. 오성해는 초조해났으나 스스럼없는 태도로 말했다.

《이 동네에서 부모 잃고 헤매는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12도구 대왕골에서 살던 아이들인데 왜놈들한테 부모를 잃었지요. 아버지 이름은 최학민이구요.》

주인은 함지박옆에 쭈그리고앉아 고기덩이를 골라서 탕치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대왕골 소문을 들었지만 그 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길라도 한가? 모두 불에 타죽었다고 하던데.》

《두 아이가 구사일생으로 재난을 면했습니다.

누구인가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가 그애들의 형이란말이지?》

《형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찾아다니는지요?》

《부모를 대신하여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어주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몰라.》

그는 더운물을 후후 불어가며 조금씩 마시었다.

오성해는 푸쩍좃게 앉으며 목에서 광고판과 신발을 벗어 배낭우에 얹어놓았다.

《물을 마시었으면 가라구.》

《하루밤 신세집시다.》

《밤에는 누구도 받지 않아.》

사나이는 몸을 반쯤 일으키며 도끼든 손으로 부엌문을 가리키었다.

주인의 눈치를 보던 사냥개도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오성해는 하는수없이 배낭안에 광고판과 신발을 주섬주섬 걸여넣었다.

《그럼 편히 주무십시오.》

2

오성해는 부엌을 나서며 구들에 펼쳐놓은 이불이 움직이는것을 보고서야 아이를 숨겼다는것을 눈치챘다.

(별난 사람을 다 본다니까.)

밖으로 나온 그는 다시금 도끼모태를 깔고앉았다.

《후- 땀을 뺀다니까.》

집안에서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아이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갔어요?》

《가버렸다. 너도 한점 먹어라. 간이다.》

오성해는 이 집 마당에서 하루밤 보내고 아침에 아이의 얼굴을 확인해보려고 했다.

나무난가리밑을 오소리굴처럼 파내고 들어가 꼬부리고 자던 오성해는 몸이 움쉴움쉴하는바람에 눈을 번쩍 떴다.

추위를 막아보려고 아구리를 겹부레기로 틀어막아버려서 굴속은 먹물처럼 캄캄했다.

오성해는 비린내를 풍기며 희멜겉게 번들거리던 나무난가리우에 널어놓은 노루가죽이 피뚝 떠올랐다.

(곰이로구나.)

인가로 내려왔던 곰이 노루가죽을 찢어발기고도 성차지 않아 사람을 해치려고 덤벼든것이 분명했다. 급해맞은 오성해는 베고있던 배낭을 굴아구리를 향하여 힘껏 내던지었다. 피냄새를 맡고 포악해진 짐승에게 아무것이나 화풀이할 대상을 던져주어야 진정시킬수 있다는것을 곰사냥꾼들한테서 들었던것이다.

그런데 메투리신발이 다가오더니 《흐흠.》 하고 놀라는것이였다. 곰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땔나무를 부엌에 안아들이러 밖으로 나온 주인이였다.

《가지 않았됐구만.》

드디어 주인은 통명스럽게 내뻘었다.

《어두워서 떠날수가 있어야지요.》

상대방의 속심을 떠보듯 잠시 눈을 찌프리고 오성해를 지그시 굽어보던 주인은 불쑥 물었다.

《잘 들어두라구. 나는 사냥꾼이고 발이 넓은 사람이야. 대왕꿀 아이들을 찾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은 들었어.》

《...》

《날이 밝았으니 가라구. 여기서 우물거리다간 재미없어.》

오성해는 주인이 말을 끝낼 때까지 줄창 태연하게 웃고있었다.

아이의 얼굴이라든 보려고 온밤 한지에서 떨다가 끝내 보지 못하고 떠나자니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루밤 신세지고 갑니다.》

오성해는 주인에게 머리숙여 인사했다.

《신세는 무슨.》

주인은 낮빛이 부드러워졌다.

오성해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걸음을 떼었다.

오성해는 삼작문앞으로 걸어가면서 사람을 끄는 목소리로 노래불렀다.

천식아, 천숙아 어디 있느냐
불쌍한 고아들이 대답하려마
해지고 까마귀 울면 날이 저문다
저물기전에 나오렴 함께 가자야

오성해는 미심결에 고개를 돌려 열어놓은 부엌문을 돌아보았다.

아닐세라 부엌문앞에 예닐곱살난 소년이 나타났다.

《삼촌!》

별안간 등뒤에서 소년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총알처럼 날아왔다.

(삼촌?!)

오성해는 반사적으로 몸을 떨었다.

지하공작원의 집에 가서 놀이감팽이를 깎아준 아이가 분명했다.

《천식아, 여기 있는줄도 모르고 얼마나 찾았는지 알기나 하느냐? 됐다, 살아있으니 됐다!》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불을 때던 사나이가 황급히 달려나왔다. 그는 짙 부둥켜안고 떨어질줄 모르는 두사람을 아연해진 눈길로 바라보며 돌처럼 굳어지고말았다.

《애야, 이리 온.》

오성해의 가슴에 안겨있던 아이는 즉시 품에서 떨어져 주인의 곁으로 갔다.

《이녀석, 집에 들어가있거라.》

주인은 오성해의 얼굴에서 경계의 눈길을 떼지 않으며 그를 부엌문쪽으로 떠밀어보냈다.

《천식이는 바로 제가 찾고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데려가겠다는건가?》

《데리고가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가겠다고? 다시 한번 그런 말을 꺼내보지. 사등뼈를 분질러놓을테요.》

오성해는 아이를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주인이 고맙게 생각되었다.

오성해는 한쪽팔에 걸고있던 배낭을 벗겨 급히 목에 걸었다. 그는 눈치만 보고있는 아이에게 등을 내대었다.

《천식아, 어서 업혀라.》

아이는 오성해의 잔등에 얼굴을 대고 잠자코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은 몸을 흠칫 떨었다.

그는 드디어 마음을 수습한듯 타협조로 나왔다.

《난 맹포수라고 부르오. 그쪽에선 이름을 어떻게 부르오?》

《오성해라 부릅니다.》

《이름을 알았으니 우리는 구면이요. 벌써 알고 지냈을걸 그랬지. 허허.》

맹포수는 너털웃음을 터뜨리였으나 급히 웃음을 거두며 오성해의 앞을 막아나섰다.

《내가 그애를 기르기로 작정했으니 데려갈 생각은 말라구.》

《난 천식이를 데리고가야 합니다.》

《그래,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겠다는거요?》

《유격구로 데려가겠습니다.》

《음, 알만하네.》

맹포수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애의 동생은 어디 있습니까?》

맹포수는 아래마을에서 사는 한 녀인의 집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오성해는 막상 아이를 업고 떠나자고 하니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꾸 아래로 무겁게 처지는 아이를 추슬러올리며 귀틀집쪽을 돌아보았다.

나무단 웃초리를 거머잡고 올라타너머로 분노와 절망에 흐려진 눈으로 떠나가는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고있던 맹포수는 오성해와 눈길이 마주치자 가슴우로 천천히 머리를 떨구었다.

접어놓은 날개죽지처럼 어깨는 비쪽 솟아오르고 아침해빛을 받고있으면서도 얼굴은 죽은 사람과도 같이 광택이 없었다. 감때사나운 사람이었지만 아이를 빼앗기자 줄지에 무기력해지고 고독한 인간으로 되어버렸던것이다.

(이대로는 떠날수 없어.)

《아이한테 밥이라도 한술 먹이고 떠났으면 합니다.》

오성해가 먼저 입을 떼자 맹포수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아무렴, 먼길을 가자면 먹어야 하고말구.》

울바자를 에돌아 삼작문을 나선 맹포수는 곁으로 다가와 오성해의 등에 업혀있는 아이를 뉘큼

안아 자기 품으로 가져갔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내가 오늘은 귀신한테 홀리운가보다. 저게 네집이다. 네가 집을 두고 어디로 간단말이나.》

맹포수는 수염이 덩수룩한 얼굴을 아이의 머리에 마주 비벼댔다. 그리고는 오성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안으로 썩 들어가버렸다.

오성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들은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 맹포수도 유격구로 데리고가자. 그도 장군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

오성해는 자신이 스스로 걸머진 짐의 무게를 느끼자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졌다.

그는 맹포수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오자 아이를 안고 부엌에 서있던 맹포수는 쫓기듯 구들로 올라갔다.

《자네는 유격대원이지?》

구들로 올라간 맹포수는 부엌에 서있는 그를 보며 물었다. 오성해는 그렇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음, 어쩐지. 보통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지.》

《유격구로 잡시다. 그곳에는 인민혁명정부가 있습니다.》

《나도 한때 이애의 아버지와 함께 의병들을 따라다니며 왜놈들과 싸우던 사람이야. 이제는 초야에 묻힌 몸이 되었지만. 이애의 아버지한테 그만두라고 몇번이나 일렀는지 모르네. 내 말을 듣지않더니 무슨 꼴이 되었나 보게. 죽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살아있는 아이들이 더 불쌍하지. 그런데 왜놈들이 달려드는데 어디로 간다고 그러나?》

오성해는 맹포수도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운 사람이었다는것을 알게 되자 친근하게 여겨졌다.

오성해는 그때까지 목에 걸고있던 배낭을 벗어 들고 놓을 자리를 찾아보다가 그물중태가 걸려있는 통나무바람뿔에 나란히 걸어놓았다.

《제격 아침식사준비를 합시다.》

오성해는 그 인상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집 부엌에 들어선 사람처럼 재빨리 가마뚜껑을 열어보았다. 끓다만 가마안에는 노란 기름이 뜬 국물과 오그라든 고기덩어리들이 보였다.

《불을 더 지펴야겠군.》

오성해는 그동안 불길이 주저앉아버린 아궁지 안에 마른 나무를 꺾어 쏙어넣었다. 불이 확 달리자 인차 가마가 벌렁벌렁 끓기 시작했다. 가마가 끓기 시작하자 그는 뜨거운 국물을 맛본 다음 소금을 두어숟가락 뿌리고 가마안을 휘저어놓았다. 부지런한 아낙네처럼 부엌에서 바빠 돌아가며 식사준비를 하고있는 그가 이 집의 주인이고 구들에 올라가 아이를 안고 앉지도 못한채 불안해하며 서성거리는 맹포수가 손님같이 보였다.

《자, 식사를 시작합시다. 아이가 배고프겠습니까.》

오성해는 밥상을 벌려놓으려고 구들로 올라갔다.

《혼자서 먹으라구.》

《함께 먹읍시다. 천식아, 큰아버지 품에서 내려라.》

음식을 보고 아이가 다리를 버둥거리며 내려려 하자 맹포수는 혀를 찼다. 그는 아이를 옆으로 꺾 돌려 등에 업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무참하게 거절당한 오성해였으나 조금도 얼굴을 찌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기운이 나서 그를 따라밖으로 나갔다.

맹포수는 아이를 업고 마당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저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까?)

그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알수 없어도 무엇인가 결심을 내린듯싶었다.

오성해는 아무것도 못본체했다. 맹포수를 놀래우고 그로 하여금 만마음을 먹게 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모르는체하여야 했기때문이었다.

《아이가 배고파하는데 어서 들어가 식사를 하십시오. 나는 마을에 내려가 저애의 동생을 만나 보겠습니다.》

맹포수는 대답대신 침울한 눈길로 그를 뚫어보고 집안으로 들어가버렸다.

3

마을에 내려가 지하공작원의 어린 딸을 만나본 오성해는 귀틀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어린 계집애는 지난 겨울부터 만주땅에 창궐한 열병에 걸려 앓고있었다.

남편도 없이 딸자식 하나를 데리고 사는 무던한 녀인이 연약한 계집애를 돌보아주고있었다. 아이는 병이 퍼그나 완쾌되어 며칠후면 길을 떠날수 있을것 같았다. 동네아낙네들은 겨우내 궁져서 방안구석에 달아매두었던 씨오쟁이를 털어 밖에 내다가 거풍하고있었다. 늙은이들은 겨불무지결에 빙 둘러앉아 물푸레나무를 불에 쪼여가며 우그리어 소꼬투레를 만들고있었다. 아낙네들과 늙은이들 속에 끼여앉아 유격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어렸다.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다가 것처럼 안타깝게 찾고있던 아이들도 찾아내어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오성해는 온몸이 노그라져 걸어가면서도 즐기 시작했다.

《파스한 아래목에 누워 한잠 푹 잤으면 좋겠는걸.》

오성해는 빙그레 웃으며 달콤하게 하품하였다. 귀틀집이 가까와오자 오성해는 문득 정신차리며 멈춰섰다.

(왜 이리도 고요할까?)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귀를 강구었다. 귀틀집 쪽에서는 바스락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다.

(혹시?)

오성해의 가슴속에서는 널장이 떨어져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주먹을 부르쥐고 귀틀집을 향하여 달려갔다.

부엌문을 열어제끼었다. 벌이 들지 않아 대낮에도 어둡시근한 귀틀집은 텅 비어있었다. 나무 껍질과 이부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무거운 쇠가마는 뿔아서 그자리에 엎어놓았다. 집안에서는 랭기와 눅눅한 그스름내가 떠돌았다.

(아이를 끼고 도망쳤구나.)

오성해는 눈앞이 아찔해났다.

어떻게 찾아낸 아이였던가. 발바닥이 닳도록 사방 이백리 산간오지를 참빗처럼 훑어내며 간난신고 끝에 찾아낸 아이였다. 땀포수가 데리고 도망친 그 아이를 어디 가서 찾아낸단말인가.

오성해는 마당으로 뛰쳐나가며 목이 터지게 아이를 불렀다.

《천식아.》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 한동안 꼼짝않고 서있던 오성해는 자기가 맥을 놓고있는 사이에도 그들은 더 멀리 달아나고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배낭을 휘둘러 한쪽 어깨뒤에 붙이고 팔에다 급히 멜끈을 꿰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목구멍을 메우며 매캐한 겨불내가 울리었다. 얼굴에서는 비지땀이 줄줄 흘러내린다.

얼마동안 정신없이 달리던 그는 문득 멈춰섰다.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떠날수 없다는 생각이 제때에 떠올랐던것이다.

땀포수는 아이를 급히 빼돌리느라고 간단한 세간살이만 건어가지고 떠났다. 산간오지에서 무쇠가마 구하기 힘든데 어느때이건 무쇠가마 가지려울것이다. 행처도 모르는 그를 찾아떠나기보다 집에 앉아 기다리는 편이 나을것 같았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있는것이 아닐가?)

오성해는 공연한 미련으로 일을 망쳐버린것만 같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렸더라면 이런 랑패는 없었을것이다.

다음순간 오성해는 왜놈들과 싸워볼 생각조차 못하던 사람들도 유격구로 찾아오는데 한때 목숨을 내걸고 싸우던 땀포수를 그곳으로 데리고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안하였다.

지금은 한두사람씩 유격구로 가고있지만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인민들이 대하의 흐름을 이루며 장군님 품으로 찾아갈것이다. 오성해의 눈에 벌써 거세찬 대하의 흐름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의 마음은 무척히 고무어올랐다.

4

《촉한만 아니었으면.》

오성해는 몸을 우들우들 떨며 중얼거렸다.

그는 땀포수가 도망치면서 뿔아놓은 가마를 제자리에 걸어놓고 연기가 새지 않게 가마꼭도리를

돌아가며 흠매질을 했었다. 손을 씻었더니 몸이 오슬오슬해지며 고열이 났다.

촉한을 만나면 누구나 며칠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마련이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빈집에서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이 앓다가 심본 잘 못될수 있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전에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내려가야 했다. 사람들곁에 가야만 구원될수 있다.

오성해는 두손으로 구들바닥을 짚고 힘들게 몸을 일으키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었다.

부엌문앞으로 떠들떠들 걸어가서 문을 밖으로 내밀었다.

멀리 내려다보이는 마을에서 불빛이 하나둘 깜박이었다. 불빛은 여름밤의 반디불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락가락했다.

(쓰러 지지 말자.)

오성해는 이발을 사려물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옮겨놓았다. 마당을 나서던 그는 삿잡문기등을 두손으로 움켜잡고 거기에 몸을 기대며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자기가 마을에 내려가 앓고있는 동안 땀포수가 집에 남겨둔 세간살이를 가지러 올수 있었다. 그러면 땀포수를 놓치고만다.

오성해는 돌아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에서 그들을 기다려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집안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아래목에 누웠다.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밤이 되자 낮동안 잠잠하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숲이 설레이는 소리가 가슴을 무겁게 압박하며 음산하게 들려왔다. 한밤중에는 암내기가 되어 더욱 포악해진 승냥이무리가 암컷을 물고 집근처에 내려와 울어대더니 이발로 부엌문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드나들며 문턱에 묻혀놓은 쫌쫌한 소금기와 기름기를 뜯어먹고있는것이였다.

쉴쉴하고 고독한 밤이였다.

오성해는 자기를 동생처럼 극진히 사랑해주고 도와주던 동지들이 그리웠다. 이런 때 동지들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성해의 정신은 혼미해져갔다. 어느덧 그는 밤인지 낮인지 가려볼수조차 없었다.

《천식아, 가자. 유격구로 가자.》

입에서는 가끔 헛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린 처녀애를 데리고 귀틀집에 올라왔던 녀인만 아니었다더라면 오성해는 빈집에서 앓다가 귀신모르게 죽고말았을것이다.

《아이구, 살아났구만.》

녀인은 그의 이마를 짚으며 바짝 다가앉았다.

그는 닳새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었다. 정신차리고보니 그 녀인이 자기를 지키고앉아 걱정스레 들여다보고있었다.

《이걸 어쩔담. 몸은 아직도 불덩어리인데.》
몹시 불안해하는 녀인을 보고 오성해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의 무릎에는 아이가 앉아있었다. 오성해는 그 아이가 녀인이 말아서 간호해주고있는 지하공작원의 막내딸이려니만 생각하였다. 그런데 눈여겨보니 맹포수가 업고 달아났던 소년이였다.

오성해는 손을 내밀어 소년의 자그마한 손을 짹 움켜쥐었다.

그때 목갈린 사나이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오성해는 옆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맹포수가 두손을 마주잡고 아래로 축 드리운채 딸뚱처럼 서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사냥개가 앉아있었다.

맥을 놓고 누워있던 오성해는 녀인에게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 녀인이 부축해주자 오성해는 일어나앉았다.

《끝내 돌아왔구만요.》

오성해는 아이를 데리고 잠깐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대하듯 맹포수를 향하여 범상하게 말했다.

《이 정신 보지. 남정네들이 시장하실텐데.》

두사람을 번갈아 지켜보던 녀인이 무릎에 앉아있는 소년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는 아궁안에서 짜늘하게 식은 재를 긁어내고 불을 지피었다.

오성해는 저 녀인도 유격구로 데리고 가리라는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자기가 지금 제 한몸도 운신하기 어려운 때 무거운 짐을 자꾸 걸머지는 것이 힘겹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달리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

녀인은 밥을 지어놓고 처녀애를 데리러 마을로 돌아갔다.

맹포수는 부엌에 내려가 달그락거리더니 표주박에 시꺼먼 목갈은것을 담아들고 구들로 올라왔다.

《곰의 피일세. 마시라구.》

오성해는 비린내가 나서 얼굴을 찡그리었다.

《원기를 돋구자면 마셔야 해.》

오성해는 어쩔수 없이 피덩이를 꿀떡꿀떡 삼키었다.

《자넨 독한 사람이네.》

맹포수는 자기가 아이를 끼고 종적을 감추면 그가 모든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버릴줄 알았던것이다. 헌데 떠나가기느니더 빈집에서 혼자 앉으면서도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수비대에 잡혀갈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있었다. 나이는 젊었어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였다.

고집이 센 맹포수였건만 젊은이앞에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그래, 기어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것인가?》

맹포수는 무뚝뚝하게 물었다.

《아이들뿐만아니라 포수형도 유격구로 가야 합니다.》

오성해는 강경하게 말했다.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겠네. 왜놈들의 꼴을 보지 않으려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왜놈들이 두려워 산속으로 들어가다니요. 장차 부모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독립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나서게 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됩니다.》

오성해는 오금을 박았다. 맹포수는 시꺼먼 수염을 싹둑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슬며시 외면했다.

곰의 피가 온몸에 퍼지자 원기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자리에 눕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아래목에 누우라구.》

맹포수는 어느새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구들이 달아오르자 오성해는 저도 모르게 몸이 나른해 졌다.

그때였다. 울타리밖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울리더니 계집애를 업은 녀인이 헐레벌떡거리며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적은이, 빨리 떠나세요.》

마을에서 이곳까지 단숨에 달려온 녀인은 숨이 차서 마디마디 끊어진 소리로 말했다.

《왜놈들이 적은이를 붙잡으려 이쪽으로 와요. 어서 피하라는데두.》

녀인은 안타까와하며 발을 굴렀다.

《히-어, 끝내 일을 쳤군.》

맹포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오성해는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것 같았다. 이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피신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즉시 그 생각을 부정해버렸다. 인제는 놈들의 추적을 면치 못할것이다. 추적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물론 자기를 도와준 녀인과 맹포수도 화를 입게 될수 있었다.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맹포수는 오성해앞으로 소년을 확 떠밀었다.

《내가 아이들을 내놓겠네. 빨리 떠나라구.》

녀인도 어린 계집애를 풀어놓았다.

《총각, 애들을 데리고 어서 피하라는데두.》

겉에 질린 두아이는 달려가 오성해의 아래도리에 감기였다. 오성해는 두아이를 한품에 꼭 그리안았다.

《시간이 없네.》

울타리너머 오솔길쪽을 내다보던 맹포수가 소리쳤다.

오성해는 랑쪽저드랑이에 아이들을 하나씩 끼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포수형, 이애들을 데리고 떠나십시오.》

《내 걱정은 말라고 하지 않던가.》

맹포수는 와락 성을 내었다.

《유격구로 가야 합니다. 난 포수형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허-어, 이제보니 자네가 나때문에...》

억이 막혀 말끝을 맺지 못하는 맹포수의 우묵한 눈에서는 물기가 팽 돌았다.

아이들을 맡긴 오성해는 울타리쪽으로 돌아서며 오솔길을 내다보았다. 놈들의 검은 그림자가 나무들사이로 얼핏얼핏 보였다.

《아주머니도 포수형과 함께 유격구로 떠나주십시오. 배낭안에 아이들의 신발이 있습니다.》

너인에게 배낭을 쥐여준 오성해는 권총을 뽑아 들고 마당을 나섰다.

(쓰러지지 말아다오.)

그를 지켜보고있던 맹포수는 급기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날카롭고 짙막한 휘파람소리로 사냥개를 불렀다. 사냥개가 나타나서 훌쩍훌쩍 뛰어오르자 오성해가 걸어가는쪽을 가리키며 《물었》하고 짙막하게 소리쳤다. 주인의 요구를 알아차린 사냥개는 총알같이 내달리며 오성해를 따라앞섰다.

맹포수는 허리에 노상 차고다니던 도끼를 쑥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해빛에 번뜩이는 시퍼런

도끼날을 엄지손가락으로 만져보며 짧은 대원의 뒤를 따랐다.

×

산골짜기마다에는 구름안개가 무겁게 끼였다.

어느덧 산마루에 오른 일행은 너인의 보자기에 있던 강낭떡으로 요기를 하였다. 왼쪽어깨에 부상당한 오성해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한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이 사람, 그만하고 떠나지 않겠나. 비가 올것 같은데.》

사지판에서 왜놈들을 죽친 맹포수는 천연스럽게 말하였다.

《떠납시다.》

나무계락을 지고 그우에 천식을 앓힌 맹포수는 앞서걸었다. 그뒤로 호박꽃처럼 얼굴에 노란 병색이 도는 계집애를 업은 너인이 보통이를 인채 따라나섰다.

그뒤로 힘겹게 지팡이에 의지하고 걸어가는 오성해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어리었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걸어가던 행렬의 꼬리는 어느덧 밀림속으로 잠겨버렸다.

노래로 앞을 보라

주광일

미래를 사랑하는 청춘들이여
오늘을 노래로 즐기치게 이어가자
로동도 생활도 젊음도
노래와 함께 보람찬것 아니나

노래로 시작하게 하라
우리의 아침을, 새날의 발걸음들을
노래로 설레이게 하라
공장들 기쁨진 전야들을
노래로 들끓게 하라
우리의 거리 우리의 광장들을

노래로 강산을 울리며
노래와 함께 21 세기로 가자
노래로 새 세기를 시작하자
젊으나 젊은 우리의 심장들을
혁명의 노래로 차넘치게 하자

노래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노래속에 다 있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는 모든것이
추억과 소원 희망의 푸른 하늘
웃음과 랑만 기쁨의 푸른 대지가

오 승리하는 사람들에겐만 노래가 있거니
바위돌에 총창을 가는
비장한 시각이 온다해도
우리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피끓는 노래 폭탄같은 노래로
원썹들을 벌벌 떨게 하자

청춘들이여
노래로 앞을 보라
신념의 노래앞에 미래가 웃는다
노래는 창조, 노래는 승리
혁명의 노래 부르고부르며
사회주의 내 조국 태양의 나라를
새 세기우에 높이높이 받들어올리자

집에 깃든 이야기

-장수원에서-

최성진

강동지구에 있는 하리농장 백정보 다락밭과 단군릉을 돌아보기 위하여 길을 떠난 나는 교외를 채 벗어나지 못한채 걸음을 지체해야 할 일이 생겼다. 대성산의 장수봉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아담한 양지마을이 나의 눈길을 끌었기때문이었다.

하얀 소총살림집들이 질서있게 늘어선 마을은 어느 모로 보나 특색이 있고 깨끗해보였다. 그런데 나의 기행의 발걸음을 멈춰세운것은 마을의 깨끗함이나 특색때문이 아니였다. 얼핏 눈에 들어오는 간판때문이었다. 《장수원상점》이란 간판이었다. 그러니 여기가 장수원인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한번 가본다가본다하던 고장이였다. 나는 긴장한 조국기행의 길에 언제 또 여기로 와보라하는 생각에 마을을 찾아 들어갔다.

마을은 장수원협동농장이 자리잡고있는 소재지이다. 해방전에는 평안남도 대동군에, 그후에는 강동군 시족면에 속해있다가 지금은 행정구역적으로 평양시 삼석구역 로산동에 속해있다. 장수원협동농장이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을 옛날부터 장수원이라고 불렀다고 하여 친히 달아주신 이름이다. 력사의 오랜 자취가 새겨져 전설도 많은 고장이다.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리당부비서동무가 스스럼없는 구면처럼 나를 맞아주었다. 리당비서가 며칠간 일이 있어 자리를 뜨고 부비서동무가 그사이 리당사업을 맡아안고있었다. 한경옥이라고 녀자이름같은 이름인데 서글서글하고 불임성이 좋아보이는 중년남자였다.

《소재지마을이 참 깨끗하고 아담합니다. 문화주택이 특색있던데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 구상하시고 마련해주신 문화주택이지요.》

부비서의 눈에는 감회의 빛이 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촌지역들에 소총문화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시고 우리 삼석구역에는 그 시범으로 되는 살림집들을 먼저 건설할데 대한 파업을 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건설이 한창 진행되는 주체62(1973)년 3월에 몸소 우리 농장에 찾아오시였습니다.》

그때는 건설중이여서 주변에는 자재가 널려있었고 사방 흙더미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런 험한곳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사장에 들어서시여 마감단계에 들어선 살림집건설장을 찾

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향반이 좋은곳에 위치한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동을 짓는데 로력과 자재가 얼마나 드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건물안으로 들어가시여 방안이며 전실, 김장독을 넣기 위한 창고며 벽돌로 금시 쌓은 부엌의 부뚜막이머를 돌아보시였다. 수령님께서 농민들이 하루빨리 훌륭한 문화주택에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온돌을 하나 놓는것도 그것을 규격화하여 건설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나는 리당부비서동무와 함께 지금은 생활이 꽃피고있는 소재지마을의 소총살림집들을 돌아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에 오시여 돌아보신 사연깊은 살림집앞에 이르러서는 자연히 생각이 깊어졌다.

부비서동무도 매일과 같이 바라보는 살림집이지만 볼수록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위해 한평생 마음을 많이도 쓰시며 끝없는 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잊을수 없다고 했다.

이 장수원땅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일찍부터 찍혀졌다.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과 주체41(1952)년사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곳 농민들을 찾으시여 살림살이형편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령세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시기에 급격히 늘어난 령세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지금도 여기 장수원땅에는 수령님께서 들리시던 농민의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다고 한다. 나는 아무리 갈길이 바쁘더라도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집들을 보고싶었다.

그곳은 농장소재지에서 5리쯤 떨어져있었다. 넓은 도로를 따라 반시간 채 못되게 걸어가야 했다. 길에 나서니 이곳은 참 번영하는 땅이였다. 농장한가운대를 꺾여 휘넓은 도로가 지나간데다가 어느 산기슭에나 현대적인 주택지구가 일떠섰고 야산들은 모두 과원이였다. 하지만 옛날에는 주변이 온통 무성한 살림뿐이였다고 했다. 농사는 안되고 그나마도 착취자들한테 다 빼앗기고나

면 농민들의 집 난알독들은 가을부터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행복한 미래가 내다보이는 이고장을 바라보니 이 아름답고 훌륭한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나는 사적건물들이 있다는 내리마을에 이르렀다. 도로에서 벗어나 조금 들어가있는 안침진 골안이었다. 내리라는 지명도 골안에 들어가있는 마을이라는데서 유래된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그저 내리작업반이라고 통했다.

마을어구에 키낮은 담장을 두른 자그마한 살림집이 있었다. 지붕에는 돌기와를 올려였다.

이 집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0(1951)년 11월 25일 몸소 찾아오셨던 농민의 집이다.

그때로 말하면 전선에서 매일과 같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있었다. 미국놈들의 비행기는 밤낮없이 후방으로 날아들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줄폭탄을 퍼부어댔다. 땅은 뒤번져지고 집들은 불에 타서 재가 되어 날려였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언제나 걱정하신것은 인민들의 생활이었다. 하여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주 인민들을 찾아오시였다.

지금은 모두 야산들이 파원으로 되었지만 그때에는 아이들이나 녀인들은 들어갈념도 못낼만큼 숲술이 울창했는데 그 숲가에 다행히 폭격을 면한 농가들이 피엎피엎 널려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마을어구에 있는 이 집에 들리시여 집주인을 다정히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을농민들의 생활형편은 어떠한가, 집에서 식량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폭격에 상한 사람들은 없는가, 올해 농사는 어떻게 되였는가 하나하나 알아보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으로 하여 곤난을 겪고있는 농민들의 생활을 깊이 헤아리시며 이제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집도 더 많이 짓고 잘 살아보자고 말씀하시였다.

현재 이 집에는 당시의 집주인이며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영광을 지니였던 김태하농민의 아들 내이가 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나오시였던 그날을 잊을수 없어 아버지는 일생동안 이고장을 뜨지 않고 땅을 가꾸었고 난알을 거두어들였지요. 농민들의 생활을 념려해주시는 수령님께 농민들의 생활때문에 다시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김태하농민의 아들인 김동운의 말이였다.

사연깊은 이 집에서 100미터쯤 더 올라가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0(1951)년과 주체41(1952)년 두차례에 걸쳐 다녀가신 집이 있다.

내가 이 집에 찾아갔을 때는 마침 점심참이였

다. 방금 점심식사를 끝낸 주인들이 잠깐 휴식을 하고있는 때여서 나는 마침 주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집에 처음으로 오신것은 주체40(1951)년 11월 16일이였다. 그때 집마당에서는 팔마당질이 한창이였다. 도리깨가 부풀어 오른 팔단들을 내려칠 때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곤했다. 수령님께서서는 도리깨질을 하다가 흐르는 땀을 씻을 사이도 없이 황황히 달려나오는 집주인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팔이 잘 여물었는가, 현물세를 바치고나서 생활이 어렵지 않는가고 따듯이 물어주시였다. 온 나라가 어려운 전쟁을 하고있는데도 한 농민가정의 생활을 념려하시는 수령님의 물으심에 집주인은 가슴이 뜨거워 걱정없이 산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래도 마음놓이지 않으시는듯 살림형편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전선형편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였다. 미국놈들이 지금 발광하고있지만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잘 싸우고있기때문에 공화국이 반드시 승리한다 하시며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손수 도리깨질도 하시였다. 먼 하늘가에서는 비행기소리며 포소리가 들려오는듯한데 그이께서 도리깨질을 하시는 여기 마당에는 기쁨과 걱정이 차넘치고있었다. 도리깨, 도리깨, 그이께서 내려치시는 참나무도리깨, 평범한 농민의 가슴속에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그이의 도리깨질! 알알이 붉은 팔을 내려다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얼굴에도 기쁨이 한가득 어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온몸에 땀이 흐르도록 도리깨질을 하시며 주인의 일손을 도와주시고나서야 그곳을 떠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떠나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이듬해인 주체41(1952)년 10월 어느날 또다시 내리마을의 이 집을 찾으시였다. 그날에는 난알무지를 쌓아놓은 방안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두고 집주인과 오래동안 담화를 하시였다. 그리고 집주인이 마을세포위원장사업을 한다는것을 아시고 당세포사업을 잘하도록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한 평범한 농가에 찾아오시여 집주인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장시간동안 농민들의 생활을 념려해주시고 농촌당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다가 밖이 어두워워 무렵에야 그곳을 떠나시였다. 그날에 마을세포위원장이였던 림종걸의 아들 림창덕은 지금 내리마을의 부락당 비서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향마을을 더 훌륭하게 꽃피워가고있다.

여기 내리마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0(1951)년 11월 16일에 몸소 찾아주시였던 《녀인의 집》도 있다. 그때도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나오시였다. 수령님께서

는 집주인이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아이들과 함께 혼자 산다는것을 아시고 그것이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여기 오신길에 들리신것이였다. 너인의 집에는 지금 60살난 그의 아들인 최준걸농민이 살고있다. 수령님께서 오시였을 때 소년이였던 그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는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늘쌍 해준다고 한다. 수령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자식들모두가 대를 이어가며 우리 당을 받드는 충신, 효자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최준걸농민이였다.

나는 사적건물을 나서며 마을을 둘러보았다. 지금은 여기에도 소재지마을에서와 같이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들어찬 살기 좋은곳이다. 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정든 보금자리이다. 조국땅 그 어디에나 있는 집! 그 모든 집들마다에 수령님의 자취가, 수령님의 사랑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닌가!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속에 새 집들은 일떠서고 새 살림은 꽃피나고있다. 우리 수령님의 손길이 깃들어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켜주시는 사회주의 큰 지붕아래 이 땅의 인민은 눈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쳐와도 걱정없이 살아가고있다! 나는 생각깊은 걸음으로 그곳을 떠나왔다.

풍경시

칠보의 노래 외 1편

리영삼

수수천년
소중히 아꼈던 모습
장군님께 선보인 칠보산

담소마다 절벽마다
잎새붉은 단풍가지
목메이는 사랑에 물들었는가
장군님 그 미소 비껴
더 높이 쳐든 환한 얼굴
명승의 칠보산

바위마다 환희로다
봉이마다 노래로다
고요속에 간직하고
밝음속에 새겨새겨
귀천가득 들려주는 자랑스런 이야기

심금을 맑게 씻어주는
선경의 일만경치
산상의 기상은
폭포수로 뛰어내려

원파도를 얼싸안는구나

달문을 보라
개심사를 보라
뻗어내린 기암들의 놀라운 기개
사랑다해 더놓는
새들의 우짖음소리

천태만상의 조화를 펼쳐
숨김없는 고백을 주는
이 비교없을 아름다움앞에
삼가 찾는 이 서정
어이 무색하지 않으랴

보약같은 이슬을 털어마시며
쟁쟁 울리는 선를을 찾을제
눈시울 뜨거운 경건함뿐이니
구름우에 빛나는 네 모습
온 세상을 부르려
깃달고 하늘가에 솟은듯해라

이 경개 이 높이에

만고풍상이
안개를 털고 솟아난듯
기기묘묘 수려한 산천
이끼오른 절벽가에
노을이 비껴든다

발아래 깊이를 모를 낭골 따라
줄줄이 흐르는 푸른 빛은
내 지켜살
곧고 굳은 기상인듯

피줄에 용솟음쳐
천하으뜸임을
따뜻한 해빛이 미소로 알리는
내칠보의 풍치

장군님 부감하신 이 경개 이 높이
락원에 사는 기쁨 벅차라
포용하는 바람아
충성과 신의를 너 아느냐
명승에 다지는 맹세
절벽에 뿌리를 내린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거둔 혁신적성과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를 평함-

장형준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지금 독자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다. 나도 이 작품을 커다란 흥분속에 읽었다. 소설은 나를 격동시키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였다. 그래서 밤을 패여 읽었다.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다 작품의 세계에 매혹되어 나처럼 그렇게 잠들수 없었을것이다. 만일 아직 읽지 못한 독자가 있다면 빨리 읽어보시라. 그러면 핵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영상이 눈앞에 선히 떠오를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령장을 령도자로 모시고있는가를 심장으로 느끼며 천하제일명장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효일심으로 더 잘 받들어 모셔야 하겠다는 불같은 맹세를 다질것이다.

나는 이 소설가를 이미부터 알고있다. 그는 병사출신의 신인으로서 《행진곡 1번》을 비롯한 몇편의 단편소설을 쓰고 전쟁체험이 없으면서도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 《태백산줄기》를 대담하게 창작하였다. 이 작품에서 그는 싸우는 인민, 평범한 병사들과 함께 숨쉬며 고투치는 뜨거운 심장과 시대와 생활에 대한 현대적인 감각, 간명하고 박력있는 묘사력을 가진 풍부한 작가적재능과 장편소설가로서의 유망한 싹을 보여주었다. 그는 두번째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 《조선의 힘》을 창작하였는데 이 작품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그 준엄한 시기 제2전선의 비범한 전략으로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한것이다. 소설은 창작가가 혁명적수령관에 확고히 서서 작품의 사상적대를 똑바로 세울줄 안는 작가로 성장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그가 더 좋은 장편소설을 쓰리라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우리의 기대는 헛되지 않았다. 이번에 내놓은 그의 세번째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작가의 사상예술적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력작이다.

작품은 핵대결전을 세계적판도에서 폭넓게 보여주며 미제침략자를 굴복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격이 있게 형상하였다. 이 장편소설은 작가의 장편소설계렬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일뿐아니라 령도자형상작품의 봉우리위에 높이 솟은 기념비적작품이며 우리 주체문학의 위용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여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명작이다.

그러면 소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몇가지 측면에서 보기로 하자.

1. 위대한 령장, 핵대결전의 승리

소설의 형상적성과는 무엇보다도 조미핵대결전을 통하여 무적의 장군으로서의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형상한데 있다.

소설에는 1993년 봄의 조미핵대결전이 작품의 기본사건으로 묘사되어있다.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은 우리 조선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있으며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있지도 않는 《핵의혹》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발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미사이에 첨예한 핵대결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핵대결전은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심각한 판가리싸움이였다.

소설은 핵문제의 발단과 대결과정, 그 결말을 력사적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력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귀중한 교훈을 안겨준다. 그러나 핵대결전을 묘사한 형상적의의는 결코 여기에만 있지 않다. 보다 큰 의의는 그 거대한 력사적사변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훌륭히 형상한데 있는것이다.

령도자의 위대성형상에서는 덕성을 형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무릇 장군의 빛나는 업적은 주로 전쟁에서 이루어진다. 조미핵대결전은 사실상 총포소리없는 《제2의 조선전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핵대결전을 승리로 령도하시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시므로써 민족과 인류 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소설은 핵대결전을 작품의 기본줄거리로 하여 핵대결전에서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여 그이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고 사회주의의 수호자이시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며 그이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

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과 평군술을 지니고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핵대결전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신 최고사령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 그 무적장군의 품모는 적들의 《팀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재개에 대처하여 준전시상태를 결연히 선포하시는데서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우리의 두개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과 《제재》를 가하려고 시도하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발광할 때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는데서 그리고 적들이 《포커스작전》으로 냉변지구를 기습폭격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결정적인 시기를 선택하여 적들에게 우리의 전쟁의지와 군사적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군단규모의 대련합부대작전연습인 《섬광》작전을 단행하시는데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드센 공격을 련속 들이대어 적을 굴복시키고 끝내 미국대통령으로부터 항복서한을 받아내시었다.

작가는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그 탁월한 전략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면서 그 전략들에 체현되어있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에 커다란 형상적주목을 돌렸다. 이것은 아주 옳은 착안이었다. 예지와 담력은 명장의 품모와 자질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성격적특질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이시야말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이시기때문이다.

소설은 그이의 탁월한 전략적 방침들과 조치들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거나 생경한 논리로 서술하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의 심오한 사색과정과 결단, 그에 대한 측근인물들의 충격적인 느낌과 우리 인민들의 격동된 심정, 적들의 예민한 반응과 광범한 국제적반향 등을 립체적으로 묘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략적구상과 결단이 얼마나 비범하고 대담한것인가 하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그 한 레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구상하시고 결심하시는 장면들을 들수 있다.

비범한 예지는 심오한 사색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사색과정을 보여주는 심리묘사는 인물의 예지를 형상하는데서 힘있는 형상수단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은 정력적인 사색가이시고 그이의 모든 활동은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사색을 동반하고있으며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그 기상천외한 전략도 장군님의 심오한 사색에 의하여 구상된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작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건을 덮고 생각에 잠기시

였다. 문건자체는 기본적으로 잘되었다고 볼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진상이나 미국의 배후조종내막을 자료적으로 잘 까밝혔고 엄중히 항의하고 경고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망록으로써 적들의 기를 꺾어놓을수 있겠는가?!...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식 침략과 략탈의 철학을 가지고있었다. 그들은 스피노자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교리로 이발을 갈아왔고 니체의 <권력의지>로 발톱을 다스렸다. 가까운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둔 때 히틀러는 독일 군고위장령들의 회의에서 뿔스까를 격멸할 최종 지시를 주면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선전적구실은 내가 주겠다. 그것이 진실다운것이든 아니든 일없다. 앞으로 승리자라고는 그가 진실을 말하였는가고 묻지 않을것이다.>라고 웨쳐대었다. 지금 미국의 호전광들도 히틀러식사고방식에 매달려 우리의 핵문제를 전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선전적구실>으로써 <그것이 진실다운것이든 아니든 일없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관례만 따르면 되겠는가. 단호히 <항의>하고 <경고>한다고해서 적들이 뜨끔이나 하겠는가....

력사는 외교무대에서의 점잖은 항의가 돌이킬수없는 후파를 초래한 실례도 전하고있다. 1950년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직전 뉴욕에서 열린 유엔안보리사회때 유엔주재 소련상임대표 말리크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한것이 바로 그 실례이다. ...

...소련대표가 결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는 기회를 리용하여 미국은 유엔을 조종하여 우리를 <침략자>로 <규탄>하고 유엔이 군사적으로 남조선괴뢰들을 원조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던것이다.

사실은 바로 이러하다. 적들과의 대결에서는 절대 한시도 공격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공격은 날카롭고 드세고 치명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이러한 사색에 기초하여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대담한 전략을 구상하시고 단호하게 결심하신다. 그 결심이 어떤 용단이며 어떤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정치국회의의 장면에서 심오하고 예리하게 형상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그 대사에 명백히 천명되어있는바와 같이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의 탈퇴, 이것은 곧 핵전과방지를 세계전략의 하나로 삼고있는 미제의 세계지휘봉 즉 핵몽둥이를 꺾어놓는것이였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뿐만아니라 사회주의와 세계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주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맨 앞장에 나서서 미국과 결판을 지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대로 《그 결심이야말로

경천동지적인 대결단》이었다. 정치국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사뭇 격동된 심정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며 핵문제에서의 그 결심이야말로 담대한 심장과 철의 의지, 비범한 지략을 겸비한 령장만이 내릴수 있는 대용단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때 외교부 제1부부장 문선규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다. 그것은 그 결심이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의 지령점을, 그 명줄을 끊어버리는 대용단, 지구전체를 뒤흔들어 놓을만한 대결단이라고 생각되었기때문이다. 특히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최광의 느낌과 회상은 더욱 충격적인것이였다.

얼마전 조선인민군의 한 병종대회가 폐막되던 날 잠시 휴식하던 광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차수, 대장들에게 적들이 미친듯 핵무기를 퍼부어 우리 조국땅을 불모지로 만들려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차수, 대장들도 선뜻 대답올리지 못할 때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다음과 같이 결연히 말씀드리시였다.

《수령님! 만약 적들이 핵무기를 퍼부어 이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한다면 미국도 결코 무사치 못할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습니다! ...

이 땅에 단 한알갱이의 핵먼지라도 떨어는 날엔 미국은 불바다가 되고말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통쾌한 선언인가! 이것은 작가의 허구가 아니라 실지 있는 사실 그대로이다. 여기에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장다운 기상과 멸적의 의지가 집약적으로 체현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바로 이런 배짱과 투지를 지니신 위대한분이다. 그러기에 미제의 군사적위협과 핵전쟁도발책동에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놈들과 당당히 맞서나가신다.

이런 격동적인 체험과 감정축적이 있었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결심을 받아안은 최광의 충격은더더욱 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치국회의를 결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또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격동적인가!

《**김정일**동지의 그 결심이야말로 내가 바라던것이요, 극도로 오만해지고있는 미국놈들에게 다시 한번 조선의 본패를 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바로 최고사령관이 령장다운 대결단을 내렸단말이요. 대결단을! ...》

이것은 참으로 뜻이 깊은 명대사이다. 그리고 지구의의 조선에 대한 세부묘사와 《조선이 없는 지구가 있을수 있는가?!》라는 주정토로도 주옥같은 형상이다. 여기에는 대용단을 내리신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격찬의 감정과 그이의 결심대로 미국과 단호히 맞서싸우려는 확고한 의지와 만만한 투지가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소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장으로서의 위대성이 비범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그 성격적 기초와 원천에 대해서도 잘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제와의 전쟁을 결심하시였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고 핵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대담한 결단을 내리시며 《섬광》작전으로 적에게 련속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과연 무엇을 믿으시고 그처럼 미제와의 전쟁을 결심하시였는가? 소설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믿음이였다는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우리 나라에 왔던 유럽의 어느 한 나라 공산주의로동자당대표단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들의 조선에 대한 압살책동에 커다란 불안을 느끼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고 우려를 표시해 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힘이 있다, 그 어떤 현대적무기나 기술수단도 이것을 깨뜨릴수 없다, 그에 대하여 더 명백히 알고싶거든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들을 만나보시라, 그러면 우리의 신심과 락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지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장면은 장군님께서 믿고계시는 절대적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이 봉쇄를 하건 제재를 하건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합니다.》라고 가슴을 터치며 부르짖던 기계공장 로동계급의 그 미더운 모습에서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인민의 힘을 느끼였다. 여기에 바로 그이의 신심과 락관의 뿌리가 있고 이것이 그이께서 믿고계시는 절대적의 힘이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 작전국장의 정세보고를 들으시고 미제의 전쟁도발기도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시며 전쟁을 결심하시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려고 하시였을 때 그이께서 믿으신것도 바로 우리 인민의 힘과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을 펼쳐보이는 다음과 같은 심리묘사는 이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 평화를 바라며 그것을 귀중히 여긴다. 우리의 피와 땀이 스민 그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한다.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떠세운 우리 조국을, 우리의 사회주의를 사랑하며 자랑한다. 하거늘 누가 전쟁을 바라겠는가. 누가 우리의 생활이고 생명인 사회주의조국이 무참히 파괴되고 황폐화되는것을 바라겠는가! ...그러나 평화는 저절로 차례지지 않는다. 그 누가 선사해주는것도 아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평화를 진정

사랑하기에 우리 인민은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것이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을것이다! ...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의 이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믿고계시었다. 방금전에 만나보신 그 수수한 돌격대처녀들이 그렇게 소리높이 웨치지 않았던가. 그 처녀들이 노래처럼 웨치던 대답, 그 대답이 그대로 씌여져있는듯 여겨지시던 대형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러자 인민군 전사들의 모습도 떠오르신다. 무너진 수로뚝을 밤새워 고쳐쌓던 윤철소대장과 그의 대원들, 전사 림정산, 그 전사는 끝내 강하훈련에 성공했다고 한다. 하늘을 무서워하던 전사가 단 보름만에 성공하였다. 오영범도 새로운 전격적인 방안을 짰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농촌마을의 이름없는 로병들, 망망대해우에서 적들과 맞서 용감히 싸우고 있는 무역선 《무포》호의 선원들, 이러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

소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이처럼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그들의 힘을 느끼시고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굳히시는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로, 인민의 힘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을 결심하시고 비범한 전략들을 구상하며 무비의 담력으로 적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시는 위대한 장군으로 형상하고 있다.

조국과 민족, 인민과 병사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요한 성격적특질이며 그이의 위대성의 정신적기초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격형상에서 그이의 애족, 애국, 애민 사상을 보여주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애족, 애국의 사상은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습니다!》는 그 유명한 말씀에서 가장 힘있게 표현되고있다. 진정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조선의 존엄, 조선의 의지를 엄숙히 선언하실수 있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 애병의 사상은 애어린 전사 림정산과 그의 아버지 림희문, 경찰소대장 윤철과 그의 애인 수련, 무역선 《무포》호 선원들과 이름없는 로병들, 제1부부장 문선규와 장령 오영범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서 뜨겁게 안겨온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 애병 사상과 그이의 파사로운 손길에 의하여 그들모두가 사상적으로 발전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운명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잘 그리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혁명의 주체가 더욱 강화되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핵대결전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는 한편 그 준엄하고 다망한 나날에도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며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해나가시었다. 여기에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 애병의 덕성선을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작품의 형상세계가 폭넓어지고 깊어졌으며 소설이 생활로 차넘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애민, 애병 사상은 여러 인물들과의 인간관계에서뿐만아니라 군사훈련에 대한 지도를 통해서도 감명깊게 그려져있다.

기계화보병려단의 시범도하훈련이 예정된 1시간 30분만에 수행된데 대하여 군고위간부들은 대단히 만족해하였으며 오영범려단장자신도 그 성과를 확신하고있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훈련의 성과를 인정하시면서도 실전이라면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서만 전진이 가능했을것이라고 하시며 《왜 오영범은 시간을 줄여 시작과 끝을 동시에 진행할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가?》고 엄하게 비판하신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모든 작전은 사람들을 아끼는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고 모든 작전의 기초에는 애병사상이 놓여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막대한 피와 희생의 대가로만 얻어지는 승리를 난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작전의 기초에 애병사상이 놓여있어야 한다. 이 가르치심에는 인민을 사랑하고 병사들을 아끼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애민, 해병의 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어있으며 바로 여기에 그이의 주체적인 전법의 우월성과 그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믿음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간직하고계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물질적수단에 기초하여 군사활동과 전략전술이 결정된다고 한 엥겔스의 《폭력론》의 긍정점과 함께 그 제한성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인민대중, 군사대중의 비상한 정치적자각과 결의 그리고 그것을 최대로 발양시키며 제때에 적극 활용하는데 의해서 새 전략전술이 창조된다는 사람중심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을 새롭게 밝혀주신다. 이러한 형상에서 독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인민들을 사랑하시고 병사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인민과 병사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적을 타승하는 주체적인 전법과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위대한 령장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소설에서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열렬한 애족, 애국, 애민, 애병의 사상과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략과 전법으로 핵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령장으로 빛나게 형상되어있다. 이것은 령도자의 위대성형상에서

보여준 새로운 측면이다. 지금까지 령도자형상 작품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주로 혁명과 건설의 영재의 측면에서 형상하고 령장으로서의 위대한 품모는 아직 본격적으로 형상되지 못하였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핵대결전을 통하여 령장으로서의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령도자의 위대성 형상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중요한 혁신적성고가 있다.

2. 클린턴과의 대결, 미제의 항복

이 소설의 혁신적특징은 또한 조미간의 핵대결전을 조선과 미제와의 정치군사적대결로 보여주면서 그 과정을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대결과정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소설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공선을 주선으로 하여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와 현명한 령도를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하고있을뿐아니라 미국대통령 클린턴도 사건발전의 중요대목들에서 두드러지게 형상하고있다. 미제와의 대결을 형상한 작품들에서 미국대통령을 작품의 한두장면에서 잠깐 묘사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 장편소설에서와 같이 그가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기본갈등대상 인물로 설정되어 사건발전의 전과정에 걸쳐 일관하게 형상된 작품은 없었다.

물론 이 소설에서 우리의 최고사령관과 클린턴간의 갈등관계는 호상접촉에 의한 직접적인 충돌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의식하고 상대방의 의도와 전략을 누르려고 극적으로 대결하고있는것만큼 이 관계는 엄연히 갈등적관계이다.

작품은 미국대통령을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기본갈등대상인물로 설정하였을뿐아니라 만만치 않은 적수로 형상하고있다. 클린턴은 일부 작품에서 형상된 적대분자들과 같이 미욕하거나 나약한 약자로 형상되지 않고 핵대국의 위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발광하는 오만하고 횡포할뿐아니라 현실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리성도 있고 침략의지도 강한 《강자》로 형상되어있다.

소설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말살하려는 클린턴의 대조선정책을 《피어린 전쟁을 떠난 영웅이었다》고 보는 그의 호전적인 전쟁관과 《영웅》관, 《인생의 의미를 경쟁》이라고 보는 약육강식의 부르쥬아적인생관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명성을 력사에 떨치려는 공명심 등과 밀접히 결부시켜 잘 형상하고있다. 이것은 그가 력사에 이름을 남긴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과 경쟁할 속심 밑에 자기를 그 영광의 높은 위치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먼저 한때 영광의 절정우에 기여올랐던 선임대통령 부쉬를 딛고 올라서야 하며 그러자면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에 커다란 작용을 한 그마저도 허물지 못한 사회주의보루 조선을 정복하는데서 자기의 힘과 의지, 지도력을 과시하려고 하는데서 볼수 있다. 이런 침략적야망과 공명주의적야심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그는 대통령의 권좌에 앉은지 3일만에 부쉬때에 중지되었던 《팀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 재개명령에 서명하고 《핵문제》를 주패장으로 하여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발광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조미핵대결전은 두 나라사이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 즉 한편으로는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주적인 정책과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제의 침략정책간의 정치외교적대결이었고 다른편으로는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과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방대한 군사력간의 군사적대결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민족자주사상과 지배주의사상간, 인민대중의 힘을 절대적 힘으로 믿는 주체적군사사상과 군사기술적수단을 만능의 힘으로 믿는 반인민적군사사상간의 사상적대결이었으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찾는 주체의 인생관과 약육강식의 경쟁과 공명출세에서 삶의 《락》과 가치를 찾는 부르쥬아적 인생관간의 대결이었다.

그런데 두 나라사이의 대결은 바로 두뇌전이었다. 왜냐하면 최고사령관들은 총을 쥐고 적과 직접 싸우는것이 아니라 머리로 조성된 정세를 판단하고 적의 력량을 타산하며 이에 기초하여 전략전술을 구상하고 그 실현으로 전군을 신속히 조직동원하여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미핵대결전, 그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은 두 나라사이의 머리전, 전략전으로 특징적이었다.

우리 나라와 미국간의 핵대결전은 우리에게 대한 미제의 핵공갈과 군사적위협에 의하여 시작된것만큼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한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방어만 한것이 아니라 즉시 주동에 서서 반공격을 그것도 드세게 련속 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전략과 무비의 담력에 의하여 우리는 방어에서 공격으로 넘어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수 있었다. 핵대결전의 전과정이 보여주는 바와같이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적의 기도를 제때에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탁월한 전략들을 새롭게 내놓으시어 적에게 련속 공격을 가하시였으나 미국대통령 클린턴은 처음에 짜놓은 전쟁도발계획만을 그대로 안고 우리의 전략에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시종 피동에서 공격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

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미국대통령 클린톤을 머리전, 전략전에서 압도하시었다는것을 보여준다.

클린톤이 두뇌전에서 걸음마다 패한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며 그를 약자로 보아서는 안되며 그렇게 볼수도 없다. 그는 《세계유일초대국》의 군통수권을 쥔 최고사령관이었고 그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기때문이다.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강경한 《강자》인가 하는것은 핵대결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미제가 남조선피뢰들과 함께 《팀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데 대처하여 우리의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었을 때 클린톤은 조선이 감히 미국을 위협하고있다고 놀라며 불안해하면서도 그것이 저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냉변지구에 대한 기습폭격을 노린 《포커스작전》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며 여기에 더하여 핵무기사용시의 작전지휘통신체계인 《씨3아이체계》까지 발동하여 우리의 수뇌부를 《경악》케 하려고 획책한다. 이처럼 그는 단호하고 횡포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성명하시었을 때에도 클린톤은 그것이 저들의 핵전략을 파탄시킬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조선과의 전쟁을 결심하고 《포커스작전》을 계획한 날자에 수행하여 미국의 힘과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그는 계속 강경하고 오만하였다. 이것은 물론 무모하고 황당한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시점에서서는 결코 무모하고 무분별한것인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그에게 미국이 조선을 무력으로 말살할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있다고 믿는 자기만의 《타당한 근거》와 《승산》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이처럼 저들의 강대한 군사력을 믿고 조선정복에서 자기의 지도력을 과시하려던 《강자》가 드디어 군사적대결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우리와의 협상을 원하게 된다. 그러면 어찌하여 클린톤이 《포커스작전》을 개시하려고 한 그 결정적인 시각에 물러서고 투항하였는가?

그것은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두 차례의 드센 공격에 이어 군단규모의 대련합부대의 강력한 반공격훈련인 《섬광》작전으로 또 한차례의 섬멸적인 공격을 가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보여주었기때문이었다.

클린톤은 《포커스작전》을 개시해야 할 전야 우리 인민군대의 《섬광》작전을 위성통신화면자료로 보면서 그 전철할만한 위력과 북조선군최고사령관의 지략과 담력과 의지를 그대로 과시하고있다고 느낀다. 소설에서 그때의 그의 정신상태, 심리상태를 보자.

《온밤 궁식거리며 잠들수 없었다. 줄곧 그를

괴롭힌것은 북조선군 최고사령관의 지략과 공격정신, 비상한 결단에 대한 신비의 공포였다. 그는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결단이라고 세계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왁자하니 떠들 때부터 그가 지니고있는 지략과 거침없이 그리고 련속적으로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그 공격정신에 놀랐으며 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의 상대를 덮어놓고 무시하기에는 그는 너무도 현명했다. 그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이 세계의 《유일초대국》과 결투를 벌리는 그 용기와 배심에 놀랐으며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제때에 급소를 타격하는 그 종횡무진하는 술책에 감탄하였으며 승리를 확고히 믿는 그 신념과 의지를 존경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여 나날이 자신심은 적어지고 불안은 커갔으며 따라서 그의 의아쩍은 감탄은 마침내 미칠듯한 분노로 바뀌는것이였다.

날이 밝아 부석부석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이를 앙다물며 생각하였다. 북조선을 격멸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클린톤의 심리에 대한 이 분석적인 묘사는 참으로 예리하고 진실하다. 북조선을 격멸해야 한다는 클린톤의 생각은 광적인 분노에 지나지 않았으며 **김정일**최고사령관에 대한 리성적인 사고는 자기의 전쟁결심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클린톤은 프랑스대통령 미테랑과의 단독회담에서 전쟁의 방법은 해결책이 못된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낀다.

그는 최근에 읽은 우리 인민군대의 《섬광》작전의 자료까지 첨부된 컴퓨터에 의한 북조선과의 모의전쟁에서 최종적인 답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전자계산기는 전쟁개시 2주일만에 북조선군이 40여만의 미군병력을 과멸시키고 800억달러의 물질적손실을 주고 승리하리라는 답을 냈다. 이 답을 보고 클린톤은 경악하였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어떻게 되여 이런 일이 벌어질수 있단말인가?... 순간 그에게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미테랑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리고 또한 북조선이 이라크와는 전혀 다르다고 한 프랑스국방상의 말도 상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갑자기 허탈상태에 빠진듯했으며 그가 마지막으로 믿고있던 절대적 힘이 자기의 손에서 빠져나간것을 느꼈다. 현실주의자인 그에게서 최후의 지령점이 무너져버린것이다.

이처럼 소설에는 전쟁광신자 클린톤이 어찌하여 전쟁에서 물러서서 협상을 제기하고 투항했는가 하는것이 매우 설득력있게 묘사되어있다. 그것은 바로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뛰어난 지략과 담력, 그이의 련속적인 드센 공격때문이었다.

보는바와 같이 소설은 조미핵대결전의 전과정

과 그 결말을 우리의 최고사령관과 미국대통령간의 갈등관계로 형상하면서 적대적갈등대상인물을 만만치 않은 《강자》로 형상함으로써 그 《강자》를 굴복시키고 미제를 타승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위대성,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그이의 민족사적, 세계사적업적을 더욱 힘있게 부각시켜준다.

3. 높은 인간학적품격, 뜻깊은 종자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높은 품격을 갖추고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문학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철저히 구현한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어야 한다. 주체의 인간학의 생명은 주체성이며 문학의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인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핵대결전에서 발휘된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을 투철하게 구현한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이며 그 높은 인간학적품격은 민족의 운명문제를 안고있는 심오한 종자, 민족자주정신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성격과 자주적인 인간전형들의 빛나는 형상, 종자의 요구에 맞게 엮어진 짜인 구성과 핵대결전을 폭넓고 심오하게 묘사한 기품진 예술적화폭들, 정론적이고 지성적인 문장들과 감각적이며 정서적인 언어형상 등에 의해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독자들도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작품이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먼저 거기에 뜻이 깊은 종자가 심어져야 한다. 그러면 이 소설에는 어떤 종자가 심어져있는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승리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에 많은 사상이 구현되어있지만 그 사상들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 그 모든 사상들의 기초에 놓여있는 알맹이사상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승리한다는 사상이기때문이다. 이 사상적알맹이는 작가의 머리속에서 주관적으로 고안된것이 아니라 핵대결전의 객관적현실에서 그 승리의 결정적요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초하여 탐구된것이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의 핵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게 된것은 바로 비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때문이었다. 그런것만큼 핵대결전을 묘사한 이 소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승리한다는 사상적알맹이가 작품의 종자로 심어진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것이다.

이 종자야말로 참으로 철학적으로 심오하다. 그것은 준엄한 핵대결전에서 확증된 생활의 진리이며 지난날과 오늘은 물론 래일의 력사에서

그 진리성이 계속 확증될 항구적인 불변의 진리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와 우리 민족의 자주권, 세계의 사회주의재건운동과 자주화운동은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확고히 고수되고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승리한다는 이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는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를 안고있는 심오한 종자인 동시에 인류의 운명문제, 력사발전의 기본요인까지도 안고있는 무게있는 종자이다. 이러한 철학적으로 심오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작품의 종자로 잡았기에 작가는 장편소설의 제목을 《력사의 대하》라고 달고 그 거창한 력사의 흐름을 선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이처럼 격조높이 칭송할 수 있었다.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앞에 마음속으로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입니다!》라고 엄숙히 말씀드리는데서 끝나고있다. 이처럼 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신에 넘치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는 영광스러운 **김정일**세기로 더욱 빛날것이다. 이것은 작품의 종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론이며 핵대결전의 력사에 이어지는 그 거창한 흐름의 필연적인 래일이다.

소설을 읽고나면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이의 령도밑에 새 세기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하겠다는 철석같은 각오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략관이 가슴에 차오른다. 여기에 바로 이 소설의 커다란 감화력과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

소설창작에서 이처럼 커다란 사상에술적성공과 이룩된것은 무엇보다도 핵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때문이었다. 작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여러모로 연구체득하고 그이의 위대한 정신세계에 접근하여 무적필승의 명장의 뛰어난 성격과 령도풍모를 방불하게 형상할수 있었다.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 감정, 정서를 깊이 체득하고 작품에 심오하게 반영하는 여기에 창작성과의 기본열쇠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작가의 창작적노력은 시종일관 력사적사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작가는 력사적자료들과 실화들을 깊이 연구하고 형상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것은 형상의 사실성, 신빙성과 지성도를 높여주고 독자에게 력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예술적흥미, 친근감을 한층 돋구어주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소설을 손에서 놓기를 아쉬워하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작가가 수령형상작품의 생리에 맞

게 소설을 역사적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창작하였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 작가의 피타는 노력은 인물들의 성격형상에서는 물론 매 장면, 매 문장에서 뜨겁게 느낄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 작품은 작가의 열렬한 충성심과 불타는 열정, 완강한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는 작가가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작가는 이미 높은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작가는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자각하고 더 높은 고지도 능히 점령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그의 다음번 장편소설을 기다린다!

산문시

조국이며 앞으로 앞으로!

한원희

들려온다 들려온다 지심을 울리는 발걸음소리
새해의 진군길에 하늘땅을 울리는 크나큰
발걸음소리
승리의 북소리런가 천지가 열리는 명동소리
들려온다 들려온다 가슴을 친다 위대한 장군님의
발걸음소리
어려운 날에 귀에 익고 몸에 배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인민이 알아듣는 그 발걸음소리
조국이며 나가자 그 발걸음소리에 맞추어 앞으로
앞으로

아, 그이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첫번째로 맞이한
이 새해는 조국청사에 또하나 력사의 거봉으로
솟아
이 땅에 오고 또 올 해와 해, 번영하고 번영할
승리의 해의 시작점
얼마나 뜨거운 격정이 터져오르고 한없는 감격이
솟구치느냐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앞으로!

무궁하고 무궁할 사랑으로 빛내주시며
폭풍만리를 헤쳐가시는 만능의 예지와 불굴의
기상으로
이 새해를 펼쳐주시려
아아 앞에 계시도다! 새해의 진군길앞에
계시도다
우리의 장군님 우리의 령도자 **김정일**동지!

보여온다 보여온다 눈시울 뜨거이 마음속 가득히
붉은 기쁨, 붉은 노을이 비긴 하늘땅 한가운데
승엄히 어려오는 그 영상
앞날을 예언하시고 파란만장을 이겨낼
진리를 호흡하시고 우주를 호흡하시는 거룩하신
그 모습
그 뜨거운 숨결 이 땅에 가득찼도다

가득차 가득차 혁명의 열풍을 일으키도다
이 땅 이 하늘아래 천만 아들딸들에게
열정의 박동을 주고 강철의 심장을 주고
영웅의 위훈을 주도다

들려온다 들려온다
석탄폭포 쏟아지는 지하막장 대발파의 메아리
질풍을 안고 폭풍을 안고 달리는 기관차의
바퀴소리
한마음 장군님께 드리는 맹세의 분출인가
울려울려 하늘땅을 흔든다
온 나라가 필승의 신심넘쳐 나아가는 발구름소리
조국이며 진군이다 앞으로 앞으로

소토를 굽는 설날의 발머리 우등불가
그 열기를 안고 소곤소곤 울리는 목소리
-애야, 오늘은 좀 쉬면 안되느냐
-이 설날에 벌써 우리 장군님께서서
머나먼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그 발걸음소리 이 가슴에 울려와 잠들수 없어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그이께서도
좀 쉬시지 않겠나요...

조국이며 눈덮인 설날아침에
발머리에서 울리는 그 진심의 목소리
이는 온 나라의 마음 지심에 끓는 용암처럼
뜨겁고 뜨거운 하나의 마음이거니
우리의 새해는 장군님께 드리는 충효가 새로워
새해도다
의리로 받드는 신념이 더욱 굳세지고 맹세가
새로워 새해도다
지구가 깨지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변함없을
일편단심을 새롭게 가다듬어 새해도다
그 신념 그 맹세 그 일편단심을 안고
조국이며 앞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력사의 새벽길을 개척한 위대한 선구자의 빛나는 형상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에 대하여-

김해월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된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은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공감과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 (김정민 작)은 항일혁명투쟁이전시기 우리 나라에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어떻게 개척되고 어떤 시련의 로정을 거쳐 발전하게 되였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준 《력사의 새벽길》(상)의 련속편으로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10(1921)년 여름부터 주체15(1926)년 6월 서거하실 때까지 팔도구와 무송을 중심으로 벌리신 빛나는 혁명활동을 예술적화폭으로 재현하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은 김형직선생님께서 국내외 독립운동자들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이룩하시였으며 주체위업의 개척과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없이 귀중한 유산을 남기신 불멸의 업적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품위있게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분석과 미학적평가, 성격형상에 대한 작가적담구정신, 밀도높은 묘사로 하여 훌륭한 사상예술적경지에 이르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력사의 새벽길에 대한 깊이있는 철학적문제를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심오한 철학성을 보장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철학성을 구현하자면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잘 가꾸어야 한다.》

작품의 심오한 철학성은 무엇보다도 종자의 철학적무게와 심오한 문제성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새벽은 밤이 지새면 밝아오지만 력사의 새벽은 피로써 안아와야 한다. 이것이 소설에서 제기하고있는 기본사상적알맹이이다.

력사의 새벽, 그것은 광복의 려명, 독립의 새날이다.

이 력사의 새벽은 희생성과 헌신성을 동반하는 간고한 투쟁, 피의 대가로써만 안아올수 있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작품이 내포하고있는 이 사상적알맹이는 일제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압제자와 싸워 력사의 려명을 안아오느냐 하는 력사의 새벽에 대한 철학을 민족의 운명문제로

제기하고 형상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소설이 제기하고있는 이 문제는 고요한 서재속에서 나온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피의 교훈에서 얻어진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팔도구와 무송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우리 나라 반일투쟁은 간고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3.1인민봉기후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주의자들은 그 대부분이 반일투쟁을 포기하고 일제의 충실한 앞잡이로, 민족개량주의자로 굴러떨어져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저애하는 파렴치한 책동을 감행하고있었다. 또한 중국의 동북지방과 로씨야의 연해주지방에 망명하여 반일투쟁을 계속하던 독립군부대들은 《흑하사변》을 계기로 전면적인 와해상태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독립군부대들은 자기파세력을 넓히기 위한 추잡한 파벌싸움만 벌리고있었다.

파멸과 침체상태에 빠진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구원하는 길은 일제의 테로와 학살만행이 극도에 달한 당시 형편에서 생명까지 내대야 하는 준엄한 길, 한걸음한걸음 피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는 간고한 시련의 초행길이였다.

등불도 없고 노대도 없는 이 력사의 새벽길을 피로써 헤치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이끌어가신분은 과연 누구이시며 우리 나라에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 력사는 어떻게 밝아오게 되였는가.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은 바로 이처럼 무거운 종자와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장편소설이 체현하고있는 무거운 종자와 심오한 철학성은 김형직선생님의 생동한 성격형상을 통하여 보다 더 진실하고 품위있게 담보되고있다.

작품은 형상화폭의 중심에 김형직선생님을 정중히 모시고 영광스러운 반일투쟁사를 엮어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위대한 사변적인 의의를 띤 사건들의 순간순간에 발현되는 선생님의 숭고한 사상적풍모를 통하여 감동적으로 그려보이고있다.

소설에서 형상하고있는바와 같이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무산혁명승리에 대한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시고 각계각층 군중속에 들어가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진로와 투쟁방략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계몽각성시키시여

력사의 새벽을 안아오도록 이끄신 시대의 위대한 선구자이시였다.

작품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위대한 선구자로서의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을 선생님께서 벌리신 혁명활동의 역사적사실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재현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압록강 연안으로 옮기시여 팔도구와 무송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민족주의운동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산주의운동으로 나가기 위한 강한 지향으로 몸부림치고있었다.

그러나 초기공산주의운동은 그자체의 제한성으로 옳은 지도이론과 전략전술을 제기하지 못하고 대중속에 뿌리박지 못하였으며 과벌싸움으로 대중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다가 붕괴직전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관전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에 무장대원들을 파견하시는 한편 자신께서 몸소 황해도 구월산지구에 나가시여 국민회지역책임자들과 반일단체지도자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신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민족주의운동의 제약성을 분석하시면서 무산민중속에 조직을 확대하며 무산혁명에 나설 독립군후비들을 키울데 대한 절박한 과업을 제시하신다.

한편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독립군거두들인 려운형, 량기탁, 허근, 심목사를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계몽각성시키시여 반일투쟁으로 이끌어주신다.

바로 김형직선생님의 이러한 투쟁모습을 통하여 작품은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 력사를 마련해가시는 선생님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소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각이한 주의주장을 내세우면서 제각기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운동》자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의 위대한 풍모를 매우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상해림시정부 초대 외무차장으로서 상해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자치조직인 교민단 단장과 신한청년단 단장을 겸임하면서 상해과 《고려공산당》에서 간부로 활약하고있는 려운형, 국내외에 명망높은 량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일제를 반대하는 비밀결사《신민회》를 결성하고 그 합법적신문으로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독립군무관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를 설립한 독립군거두인 량기탁 등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진로에 대한 옳은 방략을 갖지 못하고 모대기고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진로와 투쟁방략을 가르쳐주신다.

소설은 이러한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선생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작품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새 정부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려운형의 잘못된 견해와 상해림시정부의 그릇된 립장에 대하여 바로잡아주시고 독립운동의 경륜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며 쇠진한 몸으로 여러번 옥고를 치르고 좌절과 실패만을 거듭하는 독립운동을 돌아보며 락심하여 투쟁을 포기한 량기탁에게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밝혀주신다.

《저는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령술할수 있는 정치조직을 시급히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아직은 당을 못기에는 우선 리념상의 통일이 부족합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반일광복의 리념밑에 우선 부대통합을 실현하고 행동통일이 나마 보장하자는것입니다.... 그래야만 독립운동대렬이 분별되어 민중의 버림을 받거나 적들에게 각개격파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막을수 있고 우리가 결심한 무산민중혁명의 대업도 추진시킬수 있습니다.》

마디마디에 《지원》의 높은 뜻이 뜨겁게 젖어있고 민족자주정신이 맥박치는 선생님의 선진사상, 그것은 민족주의자들의 사대주의적이며 개량주의적인 견해를 폭로하고 민족의 앞길과 조선독립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였다.

하기에 신심과 열정에 넘쳐 열변을 토하시는 선생님의 열렬한 호소를 한마디한마디 가슴에 새기는 량기탁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것이다. 그것은 진정 피눈물나는 실패와 곡절속에 헤매이던 조선독립운동이 비로소 새로운 진로를 찾게 된것을 심장으로 깨달은 애국지사의 기쁨의 눈물, 충의의 맹세였다.

소설의 이 장면들은 김형직선생님이시야말로 탁월한 정치적식견과 투철한 민족자주정신, 무산민중의 승리에 대한 철철같은 신념을 지니고 반일민족해방운동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선구자이시라는것을 형상적으로 격조높이 확인하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은 또한 숭고한 헌신성과 희생성으로 독립군무장부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반일투쟁의 기치아래 굳게 단합시키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서의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혁명가는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을수도 있다는 3대각오를 가지고 력사의 새벽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숭고한 헌신성과 투쟁정신, 이것이 김형직선생님의 성격의 핵이다.

력사는 아직 김형직선생님처럼 설사의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불굴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바쳐가신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다.

무송의 말리혀초가삼간지붕아래서 민족단체련

합축진회가 결성되고 그후에 고려혁명당이 창립되기까지는 사선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소설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독립군무장부대인 《광복군총영》과 《왕정독립단》의 통합을 실현하는 문제와 교직자 심목사를 무산민중투쟁에 인입시키는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었다. 그것은 독립군사령들인 오동진, 허근, 교직자 심목사가 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한 각이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독립운동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었다.

나라의 독립을 민족자체의 단합된 힘으로 무산혁명의 방법으로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는 오동진에 반하여 조국광복은 왕정을 복귀하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완고하게 주장하는 허근, 일제의 《문화통치》에 동조하면서 민족개량주의를 부르짖으며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는 심목사였다.

각기 서로 다른 주의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반목질시하는 이들을 설복하여 통일단합을 시키는 문제는 무산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운명적인 문제였다.

하기에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상해에까지 가서 자신께서 간고한 투쟁속에서 마련하여준 군자금으로 사오는 무기를 탈취하는 사건으로 《광복군총영》과 《왕정독립단》의 대립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이르렀을 때 오동진사령을 부르시여 수년세월 한탄한단 공들여 쌓은 통합운동의 탑을 일조에 무너뜨리겠는가고 준렬히 타이르신다. 그리고

무슨 위험이 닥칠지 예측할수 없는 삼엄한 《왕정독립단》에 단신이나 다름없는 몸으로 찾아가시여 그들이 탈취한 무기를 독립단에서 그냥 쓰도록 해주시고 통합에 대한 옳은 견해를 가지도록 하신다.

특히 선생님의 로고로 마련되어가던 통합이 일제의 간계로 류혈적인 참극을 빚어내고 결렬될 위험에 직면했을 때 말파리를 박달평으로 몰아 그 험악한 사태를 수습하시는 장면은 숭고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지닌 통일단합의 화신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절정이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적들에게서 받은 고문과 심한 동상으로 운신하기조차 힘든 몸이었지만 오동진부대를 제압하려 출동준비를 갖추고 정렬해있는 허근부대의 한복판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거연히 나서시여 일제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분별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허근을 엄하게 질책하시는것이다.

참으로 이 장면은 반일투쟁대오의 단합을 위하여 기울이신 선생님의 피타는 노력의 밑바탕에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열렬한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이 놓여있다는것을 가슴후덥게 느끼게 한다.

작가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불굴의 희생정신을 작품전반에 끌고가면서 특히 연포리주막집에서의 탈출사건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그리고있다.

적들의 집요한 추적을 받으며 눈보라세찬 산언덕을 달리시는 장면, 인민들에게 화를 입힐가봐 땅굴막을 에돌아가시는 모습, 조난가리속에서 뼈속까지 예이는 바늘추위를 사흘낮과 밤동안 이겨가시는 장면, 도중에 빠져죽을수도 있는 살얼음진 강을 장대기에 의지하여 건너가시다가 나중에 배밀이로 기여가시는 압록강도강장면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얼마나 모진 간난신고를 겪으시며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오시였는가를 사무치게 느끼게 한다.

바로 이러한 선생님의 헌신성과 희생적이고 또 적극적인노력에 의하여 완고한 민족주의자 허근사령과 같은 독립군두령도 선진사상을 접수하고 광복의 성전에 떨쳐나서게 되었으며 일시적인 흥분과 물리해로 허근을 경원시하던 오동진사령도 통일단합의 중추로 자라나게 되었다.

소설은 또한 민족개량주의를제창하는 심목사를 뜨거운 인간애로 끝내 설복하시고도 그가 그곳에 나타난 《상해림시정부》의 《리론가》로 자처하는 장요한이때문에 곤경에 처할가봐 또다시 먼길을 걸으시여 그놈의 반동리론의 본질을 밝혀주시는 김형직선생님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감명있게 보여주고있다.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헌신성과 희생정신은 광풍에 시달리던 애어린 나무에 지나지 않던 윤님을 독립군꽃으로, 활범이를 독립군대장으로, 독립군대장 정지상을 렬사로 되게 하였다.

소설은 이처럼 민중을 무산혁명의 기치아래 단합시키기 위해서라면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수천수만리 간고한 밤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으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애국애족에 넘치는 숭고한 헌신성에 의하여 력사의 새벽은 밝아오게 되었다는 작품의 사상을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장편소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발휘하신 시대와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의 근저에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광복군총영을 원쑤처럼 여기고있는 허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는 심목사를 무산혁명의 기치아래 묶어세운 비결도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반일감정을 귀중히 여기신 그 진심에서 우려나오는 일관한 믿음이였다.

리관린의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혁명임무에 대한 무조건성도, 무산혁명의 길에 꽃다운 청춘을 바친 열혈의 정지상의 불같은 충성심과 숭고한 희생정신도 선생님께서 돌려주신 사랑과 믿음 속에서 꽃피난것이다.

선생님께서서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

길부사에 걸린 평범한 교인 《함경도집》 너인과 교인들을 죽음의 나라에서 구원해주시고 배사공의 아들도 소생시키시었으며 장산목재소 황해도 청년도 구원해주시다. 두만강원혼으로 뿔뿔한 윤님과 이름없는 산중의 무주고혼이 뿔뿔한 활범이의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뜻깊은 결혼식까지 마련해주신 김형직선생님의 뜨거운 은정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극치를 이룬다.

선생님께서 가시는곳마다에 걸어놓으신 《광제》, 《무림》 의원의 간판은 병마에 시달리는 수많은 환자들과 독립운동자들을 끝없이 불러들이어 굳게 단합시키는 사랑의 간판이었고 독립운동의 표대였다.

소설은 선생님께서 이처럼 뜨거운 인간애와 믿음을 지니고계시기에 완고한 독립군거두들은 물론 적기관에 복무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산혁명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실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은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시여 아드님께서 자주시대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시도록 더없이 훌륭한 유산을 남겨놓으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을 숭엄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에 대한 큰 뜻을 품으시게 된 근저에는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영향이 컸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그것은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산이었다. 그렇지만 나에게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 없었다.》

소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어리신 아드님을 《지원》의 원대한 사상을 간직하도록 심혈을 기울이신 모습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있다.

어리신 아드님을 《지원》의 원대한 뜻을 이어가시도록 《배움의 천리길》을 걷도록 하시는 김형직선생님, 아드님을 외국에 류학을 보내라고 권고하는 량기탁에게 조국에 내보내서 공부시켰겠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이 결심을 오래전부터 새기고계시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선생님께서는 아버님이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시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림강에 도착하신 아드님으로부터 조선을 독립하기전에는 다시 강을 건너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다시시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것처럼 기뻐하시며 혁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시는것이다.

소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아드님에게 혁명가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재산은 혁명동지이며

나라의 독립은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이룩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주시는 위대한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선생님께서서는 병환으로 더는 운신할수 없는 몸이었지만 거리로 나오시여 아드님에게 회중시계를 생일선물로 사주시면서 동지의 귀중함을 새겨주시기도 하시며 추석날 9살나시는 아드님을 낚시터에 데리고가시여서도 우리 2천만 조선사람들이 다 이 주먹처럼 굳게 뭉치면 독립이 된다고 하시며 단합된 힘이 제일 크며 나라의 독립은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이룩된다는 진리를 터득하시게 하신다.

1920년대초엽을 피로 물들인 반일항전의 교훈우에 새 사조를 세우시고 민족해방운동의 방향타를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너무나도 일찌기 애석하게 두자루의 권총과 함께 뜻깊은 유언을 남기시었다.

《...아버지는 내가 품은 뜻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둠을 뚫고 력사의 새벽길을 걸은셈이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력사의 해돋이를 맞이하거라. 그날은 꼭 온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밤길을 걸으며 스스로 력사의 새벽을 불러와야 하는것이다. 그 길은 험치 않다. 굶어죽을수도 얼어죽을수도 맞아죽을수도 있다. 하지만 필승의 비결은 필사에 있다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는 없는 법이다.》

《나는...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를 믿고간다.》

혁명가는 3대각오를 가지고 기어이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데 대한 선생님의 자주적립장과 조국광복의 역사적해돋이를 맞이할데 대한 절절한 념원과 지향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비탄의 슬픔속에서 일으켜세워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게 한 사상정신적원천과 힘으로 되었다.

이처럼 소설은 주체위업의 개척과 승리를 위한 더없이 고귀한 유산을 남겨놓으신 김형직선생님의 위대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참으로 소설은 어둠속에 해매이던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홀어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우시여 민족해방위업의 기틀을 마련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조국광복의 려명은 선진사상으로 민중을 깨우치고 묶어세우신 김형직선생님에 의하여 앞당겨지게 되었다는 심오한 사상을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의 사상예술적가치와 풍격을 규정하는 철학적깊이와 무게가 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은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영상과 함께 위대한 혁명가를 낳은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결한 풍모를 깊이있으면서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뜨거운 사랑과 깊은 존경심을 안고 위대한 혁명일가를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은 력사문헌적 작품창작에서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와 력사주의 원칙을 옹계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훌륭히 구현하여 산 인간의 숨결이 차넘치고 1920년대 력사와 시대상이 그대로 생동하고 감명깊게 안겨오는 진실하고 풍만한 예술적형상으로 가득찬 대작이다.

장편소설은 방대한 력사적사실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작품생리에 맞는 제재의 옹은 선택, 탐구된 생활과 인간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적묘사로 하여 날로 발전하는 우리 소설문학의 높은 경지

를 보여주고있다.

작가는 지난 기간 여러편의 력사물작품창작과정을 통하여 터득하고 련마한 창작적재능과 원숙한 기량을 이 소설작품에서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소설이 달성한 성과는 작가의 높은 탐구정신과 창작능력과 해박한 지식의 결과이다.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하)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위하여 강행군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힘차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우리는 기어이 승리의 날을 맞으리라

김영력

해가 솟는다

력사의 또 한페지를 긍지로이 번지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 발걸음도 역세인
우리의 신념에 떠받들려
희망찬 새날이 밝는다

눈부신 해살이 쏟아져내리는
거리와 마을, 초소와 일터에서
울려오는 노래는 얼마나 우렁찬것인가
시련과 고난의 길을 웃으며 헤쳐온
사람들의 얼굴마다는 또 얼마나 밝은것인가

피와 땀을 바쳐온 그만큼
지켜낸 사회주의가 소중해
우리의 붉은기가 귀중해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다그쳐가는 우리의 마음

흘러온 세월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간고했던 나날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허리띠 조이며 마지막이랑을 번졌고
한덩어리의 석탄을 위해서도
피땀은 가슴이 그대로 갱목이 된
투쟁의 사연사연을

이 하늘 이 땅우에
래일을 확신하는 마음들이
신념으로 새겨온 창조의 열매로 하여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는 우리 마음은
그 얼마나 자부로 넘쳐나는것인가
바쳐온 그만큼 보람도 큰것이어서

우리의 가슴은 그 얼마나
긍지로 부푸는것인가

누가 허물랴 우리의 사회주의
누가 막으랴 우리의 진군길을
신념으로 다져지고
투쟁으로 굳건해진
우리 마음마음들에 떠받들려 다가오는
희망찬 새날의 밝음을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왔다
이 걸음으로 마지막 한자욱
최후의 한자욱을 다그치며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어
장군님 구상을 이 땅우에 펼쳐간다

이제 또다시
사나운 광풍이 불어온다 해도
웃으며 헤쳐가리라
우리 장군님 새해의 첫 아침부터
승리의 전선길
우리가 갈길을 앞서 열어주셨나니

장군님 계시어
우리는 래일을 믿는다
노래도 드높이 강행군길에 나선다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그 역세인 걸음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
우리는 기어이 승리의 날을 맞으리라
한껏 밝아진 우리의 새날을
환희로이 맞으리라

풀향기

박원초

오랜 세월 생활에 밀착되어온 《농장원》이라는 직업을 밀어놓고 《부양》이라는 두글자가 공민 중에 새겨졌을 때 황도범은 자기가 이제는 여생의 언덕을 넘어섰다는 어쩔수 없는 생각에 서글렀다.

환갑이 될 때까지 자신이 공민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과 자부심도 큰 것이었지만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다는 쓸쓸한 감정을 가실수는 없었다.

그랬던 황도범에게 편채반응이랄가, 둘째아들 창호가 갖다놓은 자기의 공민증퇴거란을 보게 되는 그의 마음은 불안간 연추덩이에 끌리듯 깊은 물속으로 젖어드는 것 같았다.

공로보장자로 부양이 된 황도범은 정무원에서 간부로 일하는 맏아들로부터 평양에 올라오라는 당부를 여러번 받았다.

했지만 그때마다 황도범은 도리머리를 저었던 것이다. 비록 태를 묻은 고향은 아니었지만 농촌 지원자로 진출하여 어언간 30년 세월을 넘긴 때 묻은 땅이어서 쉽게 뜰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 이제 떠나게 댔단말이지.》

황도범이 푸념처럼 혼자소리로 탄식을 내지르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언제나 이런 때면 드넓은 논밭이 가슴속을 후련하게 펼쳐주었다.

벌을 둘러싼 산밭들이 오붓한 마을을 거느리고 있어 그 살뜰한 풍경으로 하여 자기가 좋은 고장에서 산다는 행복감으로 마음이 흥그려웠던 것이다. 그랬던 눈앞의 정경이 지금은 석별을 아쉬워하는 듯 흐릿해진 망각속에 침통한 표정으로 젖어드는 것이었다.

젊었던 한창시절에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체제를 받들고 배낭우에 맏아들을 엮어놓고 이고장에 진출했던 황도범이었다. 만삭이 된 안해가 종종 곁음으로 뒤따라섰었다.

《아이, 정말 좋은 고장이군요. 마음에 드누만요. 온통 사과꽃, 배꽃...》

안해는 흰이를 드러내며 동구길에서부터 기뻐했다. 따뜻하게 맞아주던 마을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했다.

정녕 그날로부터 이 벌에 찍혀진 황도범의 발자국은 만근자의 영예로 이 땅에 새겨졌다. 가슴에 《로력훈장》도 빛나게 되었다.

참으로 농장원 30년에 못해본 일이 있었던가. 젊어 한때는 분조장도 했고 나이들면서 논물관리

공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

아침세수를 논물에 하고 논고를 돌아보면서 해돋이를 맞을 때면 논두렁을 밟는 《만보걷기》의 첫 일과가 장쾌한 채운속에 장식되는 것이었다.

그 덕에 지금까지 건강했고 환갑이 언제 넘었느냐 싶은 의혹이 불쑥 머리를 쳐들곤하였다. 환갑이 넘어서도 소관리를 맡아했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부림소의 비중이 각별히 높아지자 젊은 사람에게 이자리를 내주었다. 밀려난 것이 아니라 《량심의 지령》으로 스스로 용단을 내린 것이었다.

지금은 축산작업반 기술지도원으로 일하는 둘째아들과 리유지원 교양원으로 있는 며느리의 부양을 받으면서 로친네와 함께 살고있었다. 자식들의 부모공대도 괜찮았다. 황도범은 때없이 이런 흠냄새가 덜 풍기는 가풍이 못마땅하게 여겨졌고 변천되는 시대의 요구앞에서 약한 고리가 되어 어느뎡가는 튀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도 없지 않았다.

《여보, 국이 식겠수다.》

재삼 점심밥상에 부르는 로친네의 목소리에 황도범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전실에 차려놓은 밥상머리에 아들며느리가 공손히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고있었다.

논판도랑에서 잡아낸 민물잔살이 고기반찬에 시금치국이 물물 김을 울리고있었다.

몇달전에 집에 왔던 맏아들이 부모들이 넘기는 허술한 식찬을 보고 그래도 저희집이 여기보다 낫다고, 로년에 식성이 떨어져서야 되겠는가고 불같이 평양이주를 촉구했었다. 살림집도 네칸짜리 큰 큰집을 새로 받았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부모들의 시중을 자기가 맏아들로서 해야 한다며 열기를 피우고 올라갔던 것이다.

황도범은 맏아들이 고마웠다. 어려운 때 부모를 거두겠다는 그 마음이 돋보였다.

황도범은 한동안 생각던 끝에 시부모 잘 대접 못해 민망스러워하는 둘째며느리의 기색에 눌러 평양이주를 수락하고야말았던 것이다.

물론 황도범이 생각한것은 호강하자고 맏아들한테 업혀살자는 것도 아니었다. 평양아들이 자꾸 오라는 판에 한사코 여기에 눌러앉겠다고 내미는 일이 둘째며느리의 눈에 곱게 비껴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쳤다.

말없이 점심밥상을 물린 황도범은 머리를 푹

숙인채 오늘따라 기가 눌려있는 아들을 이상스럽게 쳐다보며 아직도 꺾긋한 허리를 펴든채 옷방 창가에 다가섰다.

《정말 가야 하는가?》

이제는 락착된 기정사실이건만 황도범은 느닷없이 이런 입속말을 굴렸다.

정작 부모들을 평양에 보내게 된다고 생각이 가자 둘째아들내외가 저렇게 기가 죽어있는것이라고 황도범은 제딴으로 뻗힌 마음을 돌렸다.

《그런즉 인젠 로인<동맹>에서도 탈퇴해야 한단 말이지...》

불현듯 이 말을 옮기게 된 황도범은 명치끝이 찢어졌다.

번번히 꼬리를 무는 집집의 대사때면 각별한 환대속에 자리를 같이하는 로인들의 좌석은 사뭇 흥그러웠다. 나이가 동갑이라도 난달이 앞서면 껍듯이 《형님》으로 대접을 받는 도덕과 레절로 존엄있는 마당이였다.

그 파반수가 전정로병들이어서 《고난의 행군》에서 부양노릇을 할수 없다고 자진 부업분조도 무어 남새도 가꾸고 여러가지 초물제품도 만들고 있었다. 로동의 즐거움으로 젊음이 되살아난듯싶었다. 황도범은 이 생활과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속이 허전해지고 우수가 뒤머리를 감싸는것이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철들어 반생이란 참된 의미에서의 일생이다. 마흔에 선다는 말도 있듯이 황도범이 여기 농촌에 뿌리내려 살아온 30년 세월이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밟아온, 그래서 소중한 추억으로 빛나는 생활의 금잔디였다. 여문 벼알과 푹 불겨진 강냉이이삭을 귀한 자식 머리 쓰다듬듯 애정으로 불안고 살아온 정든 농장과 물닭이 우는 소리를 귀담으며 김을 매던 다감한 포전정서가 불현듯 런던으로 번져져 목줄을 당겼다. 두석대 거쳐 피우는 줄담배를 힐책하며 호미자루를 만들던 로친네의 잔소리도 이제는 지난날의 노래소리처럼 귀가에서 멀어지게 될것이니 이 모든 향촌정서와 결렬한다고 생각이 갈 때 황도범은 애잔하기가 그지 없었다.

(파연 가야 할가?)

닭알날가리를 자꾸 가리듯 같은 생각을 되씹을수록 황도범은 마음의 평온을 잃는것이였다. 방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아들 창호가 들어온다. 밥상머리에서부터 별스럽게 보이던 아들이 아버지의 기색을 불안스럽게 살핀다.

《웬일이냐?》

창호는 잠간 궁식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리당에서 저를 염소분조장으로 갈 생각이 없느냐구 묻더군요.》

《너를?》

황도범은 움찔하고 놀란 얼굴을 쳐들었다. 몸집이 제 어머니를 닮아 퐁퐁한 창호가 키큰 아버지앞에서 더 작아보였다.

염소분조장으로 가라면 농장에서 조성한 백리밖풀판에 이사짐을 꾸리고 가서 살아야 하는것이였다.

황도범은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달구지길도 없는 외진 산판이였다. 이미 농장에서 다섯세대가 가있다. 한두세대 더 보내여 염소분조를 꾸린다는 말은 들어 알고있었다. 거기에 아들이 꼽힐줄은 미처 몰랐다.

겨울엔 달구지길마저 막히는 산간오지, 무인지경에 농장이 조성한 풀판, 그곳에서 아들을 책임자로 기다리고있을줄이야...

황도범은 축산기사인 창호한테 응당 맡겨질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가면서도 그곳에 가서 영주한다고 볼 때 돌잡힌 애기엄마인 며느리가 과연 어떻게 나올것인가 하는 위구가 불쑥 머리를 쳐드는것이였다. 점심에 밥상머리에서 별로 풀이 죽어앉아있던 며느리모습이 떠올랐다.

《그래 뭐라고 대답했느냐?》

《생각해보겠다구 말했습니다.》

《뭐? 생각해보겠다구?》

《예.》

황도범은 어쩐지 아들의 이 대답이 서운했다.

풀판이란 당이 부르는 보람찬 초소다.

황도범은 지그시 눈을 감고 그 풀판을 다시 그려보았다. 산판이동작업때 몇번 가보군했던 낮익은 고장이였다. 그곳 소재지에서도 30여리 떨어진 강과 벼랑썸에 사람 하나 빠질 외통같이 나팔통처럼 벌어진 골개에로 이어진곳이다.

금야강을 끼고 병풍처럼 절벽을 이룬 산발너머로 태고연한 수림이 펼쳐져있었다. 이곳에 룬환식채벌로 산림구획이 조성되였다.

봄이면 진달래가 한벌 덮여 금야강을 분홍색으로 물들였고 깎아지른 절벽을 이룬 계곡으로 방목소들과 염소, 양들이 봄날의 훈향속에 풀썩을 찾아다녔다. 여름경치 또한 좋아 푸른 우산속에 든듯 한번 그속에 묻히면 향방을 찾기 어렵도록 수림이 무성했다. 가을단풍은 또 얼마나 가관인가. 수려한 계곡에 락조가 비길 때면 염소와 양들이 마치 금관을 쓴듯 황금빛으로 번쩍이였다.

농장이 여기에 백여정보의 풀판을 조성할 결심을 한것이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길을 넓혔다. 이주세대들을 위해 몇채의 살림집이 꾸려졌다. 아이들의 학교길도 멀어 학생이 없는 가족들이 먼저 갔다.

진료소도 멀고 상점도 멀고 모든 편의망이 멀었다. 여러모로 몇해는 고생을 각오하고 접어들

어야 할곳이었다. 더우기 책임자의 중하가 이만 저만이 아닌것이다. 그렇다고 선뜻 나서지 못했더니 가슴이 알찌근했다.

더우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게 하신 가르치심을 제고장에 꽃피우는 일이 아닌가. 아들의 립장에 황도범은 민망스러운 생각을 가질수 없었다.

이런 때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나서야 할 젊은 당원이 군대시절의 그 정신을 어디다 두고 그렇게 우유부단한 소리를 할수 있단말인가. 더우기 리당비서로 말하면 아들의 장인이다.

예로부터 사돈간은 제 가풍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면서 서로 도고하게 처신하기가 일쑤인데 먼저 약수를 보였단말인가.

전실에서 며느리의 잔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황도범은 평양과 풀판으로 갈라져 가게 될 문제가 자신의 가정에 심각하게 걸려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황도범은 지금까지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하듯 늘 자식들이 곧은 마음으로 성실히 살것을 바랬으며 그 어떤 일에서든 사회앞에 낮이 깎이지 않도록 생활을 잘하라고 닥달질해왔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요구도 높이면서 존엄있는 가풍을 유지하느라고 제탄에 노력해왔다.

황도범은 아들의 처사가 불만스러웠다.

《그러니 못가겠단말이지?》

창호는 부지중 아버지의 마음을 눈빛에서 느낀 것 같았다. 그래서 들렸던 얼굴이 꺼멥게 질려 숙여졌다.

《가겠습시다. 한두해 가있다가 내려오드라도...》

《그렇게나 가있을바에야 뭇하러 이사집을 꾸러? 거기 가합숙인줄 아느냐?》

창호는 자기의 처사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아버지를 흘끔 쳐다보았다.

《아버지, 풀판이 뭐 평양인줄 아세요?》

순간 황도범은 쇠방망이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 자신은 평양에 가면서 아들더러 풀판에 가라고 하는것은 족제비상통을 들고서나 할 소리가 아닌가.

《음...》

황도범은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자기가 로망에 든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때 전실에서 엮들던 로친네가 들어왔다. 갱뽀한 얼굴에 쪼들쪼들한 입술이 마른 밤알처럼 물려있었다. 그 입이 한동안 오물거리더니 힘들게 말이 빠져나왔다.

《이보다 령감, 풀판에 가라구 딱 찍은것두 아

닌데 뭇 기를 내시우. 교양원을 하는 며느리생각두 해야 하지 않소. 리당비서가 제 딸 궁냥을 못했을까요?》

황도범은 로친네의 소리에 짓눌렸던 탕개가 풀리듯 와락 소리를 질렀다.

《그자리가 뭇 타고난거요? 그애 아니래두 얼마든지 교양원재목이 있단말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황도범은 며느리생각에 가슴이 찢렸다. 시집온지 3년째 되는 며느리였다. 돌지난 아기를 들쳐업고 그 산지로 가라는것도 진정 아버지와는 달라 시아버지로서는 선뜻 할수 없는 말이었다.

집에서 고스란히 자라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리유치원에 배치된 며느리였다. 그런 딸을 풀판에 보내자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중이 불현듯 생각키웠다. 그런즉 사돈인 리당비서와 며느리사이엔 벌써 의사소통이 있었단말인가. 그랬다면 며느리가 선뜻 받아들였을가. 사람이 하자고 결심하면 못할일이 없지만 별방포전에도 발목을 못적서 본 아녀자가 과연 심산계곡을 넘어다니면서 염소떼와 씨름을 할수 있을가. 아련한 며느리의 체질속에서 이런 각오가 좀처럼 생겨날것 같지 않았다. 그때문에 점심밥상머리에서도 의기소침해 앉아있던 며느리가 아니던가.

전실에 있던 며느리는 그릇들을 가져놓더니 호미를 들고 터밭에 나가 활짝 머리를 풀어헤친 봄배추를 솟아낸다. 당대 그 터밭을 떠나지 않을 듯...

《풀판이 평양인줄 아세요?》

방금전 창호가 한 말이 다시금 황도범의 귀전에서 울린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방안에서 황도범은 잠시 명상에 잠겼다. 정작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다.

로친네가 곁에서 자식들이 들을세라 귀속말로 읊는다.

《그 사돈의 생각이 제딸이 며느리구실을 쓰게 못해 시부모가 평양에 가는것처럼 여기는것 같단말이오다. 그래서 그 고정한 성미가 사돈체면을 세우느라고 그애들을 풀판에 보내자는거지요.》

황도범은 불시에 목줄이 당겨지는것 같았다. 과연 그럴수도 있지 않는가. 어느땐가 자기와 로친네 있는 자리에서 리당비서가 답답한 소리를 한적이 있었다.

《사돈님, 우리 딸을 농산반에 내보내면 어떻겠소. 지금 리일군들의 가족들이 다른 부문에서 농산반으로 다시 돌아와 일하는데 내가 대를 못세우겠구려.》

이때 로친네가 앞질러 대답한 말이 오늘까지 그로 하여금 용단을 못내리게 했던것이다.

《아니, 머느리야 당당히 대학을 졸업한 자격잔 데 누가 시비한단말이요. 나라에서 공연히 대학 공불 시키겠소?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여복 장하 요.》

로친네의 말도 옳았다.

농장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뽀뽀하며 돌아가는 농 촌마을에서도 교양원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화장 까지 곱게 하고 아무런 구애없이 나다니고있는것이 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웅당한것으로 치부하고 있 었다.

그런데도 리당비서는 제 딸을 풀판에 보내자고 한다. 그런 결심을 리당비서가 가졌다면 황도범 으로서는 돋보이는 사돈이었다.

황도범은 착잡한 생각을 가시려고 호미를 들고 머느리와 좀 도간을 두고 마늘밭에 들어앉았다.

황도범은 이제 자기가 평양에 가면 흙냄새, 풀 냄새를 맛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높은 고층주택의 창문너머로 굽어보는 평양거리.

이따금 쉬는 날에 자식들과 더불어 모란봉에도 오르고 저녁이면 텔레비죤수상기앞에 마주앉는 그런 재미가 고작일것이다.

평양에 가 살 생각이야 왜 없겠는가. 늘 마음 속에 안고 온 평양이었다. 자기 한생애 평양시민 증을 품고 살아본다는것도 더없는 영예라는 생각이 굴뚝을 세웠다. 하지만 할일이 부양으로 살아야한다고 볼 때 황도범은 속이 썩어드는것이 었다.

그래도 여기서는 마을로인들과 휩쓸려 손발에 흙 묻히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처럼 터밭에 앉아 김매는 재미, 로끼풀도 염소풀도 한단씩 해치고 돌아오는 재미, 부엌가마뚜껑 열리는 소리에도 소리를 치는 돼지에게 물을 주는 일... 생각할수록 정이 가슴그득히 고여올랐다.

두뿔이나 자란 새파란 마늘대가 선들바람에 흔들거렸다. 굵을 찌주면서 머리를 올려미는 능쟁이풀들을 찍어낸다. 드문드문 박혀있는 박하풀이

호미에 찍힐 때마다 향긋한 풀내가 풍겼다. 삼 십명되는 터밭이지만 갖가지 냄새가 강냉이대들을 위장병처럼 세우고 제판의 모습을 활짝 드러 내고있었다. 덩실한 오간집 둘레를 돌아가면서 빈땅이 있을세라 일년초도 심었고 줄당콩도 박아 넣었다. 벌방인 마을주변엔 어느곳 할것없이 낱알종자를 박았다. 이젠 집마당도 사람 다닐 길에 구멍탄잡을 자리나 내놓고는 고추대를 빼곡이 들여세웠다. 그래서 염소들을 먹이는 일도 집집에서 다 먹이자면 풀판이 모자랐다. 그래서 풀판을 산판에 크게 마련하러는것이였다.

널바자를 가즈런히 둘러치고 유리문이 드렁드렁 소리를 내는 이 네귀들린 기와집을 자기가 뜨

는것도 아쉬웠는데 이제 아들내외까지 풀판에 가고나면 이런 집과 터전을 두고가는 마음이 더욱 허전해졌다. 본조가 모두 떨쳐나선다면 몰라도 한두집 뿔쳐가는 조건에서 아들이 꼭 가야 한다는 법은 없었다. 하지만 염소분조장으로까지 점 찍혀졌으니 이런 믿음에 보답할 생각부터 앞세워야 한다. 아직도 결심을 못내리고있는것을 보면 아들은 자기생각만 하는것이 분명했다.

언제 저렇게 변했는가. 입당을 하고 대학도 나오고 혼장도 타고 장가를 가고 아이아버지가 되고 맞춤한 직업에 덩실한 집까지 쓰고사니 이제는 더 바랄게 없다는건가. 지금 이러루하게 생활 조건이 보장된 사람들중엔 이 《보금자리》에 변동이 생길가봐 《걱정》을 하는 현상이 있었다.

과연 아들도 그런 추물로 떨어지고있단말인가. 그러니 풀판이 아니라 평양이라면 남의 발등까지 밟고나설수도 있다.

순간 황도범은 제딸을 풀판에 보내려는 리당비서앞에 아들이 부끄러운 존재로 서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도범은 《풀판, 평양》, 《평양, 풀판》 하는 말을 입속으로 읊기며 로친네가 서있는 토방마루로 가 앉았다.

《여보, 로친, 우리가 그래 부양이 옳소?》

로친네는 한동안 두눈이 켜혀있었다.

《아니, 령감이야 당당한 부양이지요. 공로보장자가 아니요.》

《아니, 나는 부양이 아니요. 우리가 이 부양이라는 생각만 버리면 내 집 문제는 다 풀리오.》

《예?》

로친네의 작은 눈이 커졌다.

《우리 다같이 풀판으로 갑시다. 나도 염소분조원으로 일하겠단말이요. 아빠트에서야 풀맛을 보겠소?》

《령감, 그제 진소리요?》

로친네는 펄쩍 뛰었다. 이 소리에 방에 있던 아들도 토방에 나섰다.

《아버지, 그제 정말입니까?》

《내가 언제 빈소리를 하더냐?》

황도범의 엄한 눈이 무직하게 담겨진 입술을 내려누르고있었다.

이때 남새를 한바구니 채우고 터밭에서 나오던 머느리가 황도범앞으로 다가섰다.

《아버님, 저희들때문에 괜히 그러시는게 아님니까? 저는 풀판에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황도범은 그런듯 서있는 머느리를 쳐다보았다. 《그렇다?》

《네. 저희들은 이미 의논이 있었습시다. 다만 한두해 계획한것이 잘못이었어요. 풀판도 사람 살곳인데 정이 붙겠지요. 가겠습니다. 나라가 풍

죽해지자면 우리가 힘써 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농장에서 살면서 량심에 가책되는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저희들 걱정은 마시고 평양에 가십시오.》

황도범은 그만 가슴속이 빠개지는것 같았다. 얼마나 착실한 며느리인가.

로친네는 한동안 어리벉벉해 갑자르고있다가 며느리 손을 덥석 잡아쥐었다.

《아니 애야. 넌 자격증을 가진 당당한 교양원인데 뭐가 질려서...》

《아니예요. 어머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낮으면서도 담찬 목소리로 밀막았다.

《친정아버지도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평양에서도 한다하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자원진출하고 있는데 네 교양원자리가 뭐냐구, 이때까지 사돈집 인정을 꺾지 못해 그냥 놀러둔건데 밥먹는 사람이 농사일 한번 못해본다는게 도리가 아니라구 하셨습니다.》

황도범은 순간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에 눈썹미가 들렸다. 지금 며느리가 앉고있는 그런 자리로 눈돌림을 보내고있는 녀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자리를 이처럼 쉽게 벗어던지고 풀판으로 간다는것이 험한 일인가. 제 먹을 쌀은 제가 책임져야한다는 며느리의 말이 황도범의 폐부로 뜨겁게 파고들었다. 그러니 오룩이 성해 부양이란 무슨 말인가. 평양에서도 로병들의 활동이 활발할 것이었다. 그러니 자신이 지금까지 안고있은 인식이 아들 창호에게 옮겨져 평양과 풀판을 상극에 놓고 아버지를 쳐다본것이 아닌가. (아니, 내가 무슨 실수를 보였는가.)

황도범은 며느리를 통해 늦게나마 깨닫게 된 자신의 생활관점을 돌이켜보며 풀판에 가서 살수 없는 인생은 결코 평양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는 철리를 발견한것이였다.

자기가 안식처를 찾아 평양에 가려던 때 풀판 문제가 참된 인생의 부활제로 작용하게 된것이 무등 기뻐다.

《고맙다. 하지만 나도 풀판으로 가야겠다. 너희들이 나를 부양할 생각은 하지 말고 염소관리공으로 여기면 된다. 내가 평양에 가서 말아들한테 엿혀살 생각을 한것이 큰 잘못이였다. 지금 수십마리씩 되는 염소를 풀판에서 기르는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니. 지금 지도일꾼들도 허리에 낫을 차고 풀판으로 가고있지 않느냐. 나라의 덕으로만 살아오던 이전날의 습관에서 벗어나야지.》

그랬다. 나라의 은덕을 누리는데만 습관되고 보답하는데서는 이처럼 용렬해진 아들을 볼 때 황도범의 가슴은 무거워지지 않을수 없었다. 일이 이쯤 되면 아들이 어차피 풀판으로 갈것이지

만 간다해도 코궤운 소 일하듯할것이였다.

아들내외를 풀판의 참된 주인으로 내세우자면 그들의 뒤받침을 잘해주어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이 황도범의 가슴속에 뿌리내렸다.

지금은 아들내외가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책도 보며 기타도 타고 텔레비존앞에서 문화정서적인 시간을 여유있게 보낼수 있는것이지만 이제 풀판에 가면 어디 그럴 여유가 있겠는가. 그야말로 풀판은 아들내외에게 있어서 강행군으로 달려야 할 산지였다. 이들 가정의 뒤시중만 잘해준다 해도 얼마나 큰일을 하겠는가.

참된 미소는 어려운 때 피어나는 법이다. 사회앞에서 참담게 웃을줄 아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풀판에서 키워내고싶었다.

《풀판도 사람 살곳인데 정이 붙겠지요.》

황도범은 며느리가 한 이 말을 다시 새겨보면서 늘씬한 키에 목이 쭉 빠진 며느리의 하얀 얼굴을 폭양이 내려쬐이는 여름풀판에 세워보았다. 이제 그 살결이 불깃불깃하게 타번져질것이였다.

가늘게 휘여든 눈썹밑에서 늘 놀란 토끼처럼 동공이 초점을 못찾군하는 유별한 눈동자가 염소들을 다루느라고 갈팡질팡할것이였다. 자유분방한 염소들의 꼬리를 따라다니면서 애간장도 흠뻑 타야 할것이고 때로 쓴눈물도 쏟을것이였다. 교양원생활에 비하면 육체적부담이 너무도 많은 방목공생활이였다. 그러나 황도범은 그것이 며느리의 말대로 시련의 고비를 반드시 이겨낸다고 생각할 때 그 풀판에서 개척자들의 노래소리가 울리고 밝은 미소가 반드시 피어날 때가 온다는것을 믿게 되는것이였다.

자신의 인생로정을 돌이켜볼 때도 급변되는 생활에 부닥칠 때마다 시련을 겪군했지만 종당엔 노래가 울리고 웃음이 피어나지 않았던가. 황도범은 자신의 이 생활신조를 자식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마당이 바로 풀판이라는 인식으로 굳어지는것이였다. 사실상 젊은 아들내외보다도 풀판은 황도범에게 있어 더욱더 시련의 언덕이기도 했다.

아들의 사업이자 자기 일이라고 생각이 갈 때 풀판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풀판을 조성하자면 자연풀판과 인공풀판의 배합으로 먹이풀의 성장성을 촉진시키고 번식시켜야 하는것이다. 또 해마다 풀이 번창하자면 풀씨도 옮겨심고 독초도 제거하면서 유익한 풀로 짝 채우자면 얼마나 뼈심을 들여야 하는가. 넓은 지역에 풀판을 형성하고 겨울나이사료를 넉넉히 장만하자해도 수많은 일거리가 겹치는것이다.

황도범은 전화의 나날에 자기가 섰던 전호로

생각한다면 못해낼것 없다는 로병의식으로 풀판 조성하고 염소기르기에 나서서 온갖 고충을 제힘으로 해제할 의지가 되살아났다.

(일은 힘이 들겠지만 빠심들여 일한 보람에 대면 그것이 대순가. 로병기질은 이런 때 빛을 내야지.)

황도범은 로친을 힐끔 치며보았다.

《그래, 로친네는 반대요?》

기상이 꺼져있는 로친을 황도범은 탄성과 함께 일별했다. 로친의 조물입이 열렸다.

《저애들이 간다는건 바른 일이지만 령감이 가겠다는건 모를 일이우다. 여기서 사는것두 못마땅해 평양에 올리끄는 만아들이 좋다구 하겠소?》

황도범은 단호히 로친네의 푸념을 일축했다.

《아니요. 설사 평양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나는 풀판으로 가겠소. 만아들이 제 아버지의 뜻을 몰라준다면 그애도 평양에서 살 자격이 없소.》

《예?》

모자가 동시에 눈을 홑떴다. 황도범은 진중한 낮빛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창호야, 너는 풀판이 평양인줄 아느냐고 말했지만 그렇다. 아버지 풀판이 곧 평양이라고 생각한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풀판조성인데 여북중한 일이나.》

황도범은 이 말을 해놓고보니 삼시에 심신이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자기가 내린 용단이 들뜬 호기에서 빚어진것이 아닐가 하는 위구가 얼핏 머리를 스치기도 했지만 황도범은 스스로 머리를 저으며 부정했다.

로친네는 고집스러운 눈빛을 유순한 빛갈로 돌리며 황도범을 지그시 쳐다보고있었다. 령감의 성미를 잘 아는터여서 바늘가는데 실 간다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황도범 역시 로친네의 그윽히 빛나는 눈길을 보면서 젊은 시절의 모습이 불쑥 그려졌다. 완고한 아버지의 강요에 못이겨 열여섯살에 두살 우인 녀자와 조혼을 했던 황도범은 동네청년들의 놀림속에 몸둘바를 몰라하다가 전쟁전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때 동구길에서 자기를 바래주며 떡꾸레미를 쥐여주던 오동통한 몸집에 복실복실했던 안해의 얼굴모습이 지금도 상념속에 때때로 살아나군했던것이다.

《차라리 잘됐수다. 함께 갑시다. 산에야 낯알씨도 뚜저널올데가 많은데 <아흔아홉째기로친>이 그걸 마다하겠소?》

로친네는 웃었다. 그러자 모두가 따라 웃었다.

손바닥만한 땅도 묵이지 않는 로친네를 두고 동네사람들이 붙여준 별칭이다.

황도범은 한시를 풀린듯 올라리너머 논벌을 바

라보았다.

《그래 제밥벌이를 못하는 인생이 부양이지. 우리야 어디 그렇게 살겠소.》

황도범은 낮과 망태기를 들고 집을 나서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창호는 리당에 가서 우리 집 결정을 알려라. 평양엔 내가 편지를 쓰겠다.》

최쪽에 염소도 다시 옮겨매고 토끼풀도 해야 했다. 이른여름날의 풀향기가 꽃향기보다 더 강렬하게 황도범의 코를 찌르는것 같았다.

이 세상에 가장 흔한 풀이었다. 이 풀로 하여 사람들과 짐승들이 크게 덕을 보면서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가. 풀복을 타고앉아있으면서도 그 복을 비싸게 다룰줄 몰랐다.

황도범은 그 풀내를 가슴속에 한껏 들이켰다. 이제 이 풀과 정답게 살아야 하는것이다.

풀판엔 사람에게도 좋은 풀이 얼마나 많은가. 백년 묵은 산삼도 있을것ियो, 로인들의 장수를 담보하는 약초들과 산채들이 또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가. 산삼과 그 후손들인 인삼을 비롯해 다년생초본식물인 만삼, 세신 등 강장제로 쓰이는 삼지구엽초와 오이풀, 수박풀, 외순나물은 황도범이 산판에서 각별히 낮을 익힌 약물이였다. 이밖에도 황도범의 구미를 늘 돋구었던 머루, 다래, 산딸기, 찔방이, 돌배 등 산과실들과 천리중, 향나무, 찔레꽃, 은방울꽃, 정향나무, 백리향 등 짙은 향기로 심신을 취하게 하는 풀들이 눈앞에 그러지는듯싶었다.

이러한 풀판환경은 황도범으로 하여금 백년장수케 할 터전이 아닐수 없다. 그대로 청춘이 탄생되어 그 풀판에서 용을 쓰게 할것 같았다.

황도범은 문득 뇌리를 두드리는 충격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제 오붓한 풀판마을이 늘어날수록 그곳에 영주할 결심으로 올라간 로인들로 새롭게 로인《동맹》도 무어 천하절경에서 장수자들의 지상락원을 펼쳐놓으리라는 호방하고도 랑만적인 기분이 드는것이였다.

목동이 피리를 불면서 하루해를 무료하게 보내던 그전날 목가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도고한 기상으로 풀판을 거느리고 군림할 풀판의 《왕자》다운 자기 모습을 그리느라니 입술이 흐뭇하게 늘어지는것이였다.

풀판에 생소한 아들의 사업을 여러모로 돕자면 그를 따라가는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것이다.

《내가 왜 부양이람? 큼!》

황도범은 코마루를 그 무슨 항변처럼 크게 울렸다.

《인생추억담》으로 로년을 빛없이 보낼번 했던

자기 여생을 풀향기로 숨쉴 풀판이 건져주었다고
황도범은 감사의 정에 넘쳐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진정 풀향기는 삶의 복향기였다.

×

며칠후 황도범은 가족을 데리고 풀판으로 떠났다

헝겍그레 빈 집에 어느 세대를 넣을가고 리사
무장이 궁리하고있을 때 황도범의 맏아들이 출장
길에서 들렸다. 전후사연을 알게 된 맏아들은 멀

리 풀판쪽으로 하염없이 생각깊은 눈길을 돌렸다.
그렇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무장동지! 이 집에 내가 오겠습니다. 우리
아버진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랜 세월 키워주신 사
회주의조국의 공민입니다. 그러니 달리아 살수
없지요. 내가 여기로 와야 부모들이 가까운 맏아
들 집에 자주 올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부
양으로 생각한 제 잘못이 컸습니다. 헛헛헛...》

통일세대의 노래

송재하

해빛밝은 유치원 교실에 앉아
한자두자
우리 글을 배우던 그 시절
조국이란 말과 함께
통일이란 두 글자를 익혔다

놀음을 놀아도
통일렬차놀이를 하였고
글짓기시간에는
너선생의 이슬맺힌 눈을 보며
통일에 대한 시를 썼다

즐거울수 없었다
모래불 하얀 야영의 백사장
은구슬 금구슬 햇빛에 반짝이여도
가슴속엔 아버지의 고향땅
남해의 검은 물결 파도쳐

누릴수만 없었다
공원으로 극장으로
동무들과 즐거이 오가는 그 시각에도
온몸에 불을 단 남녘의 젊은이들
항쟁의 포도우에 피흘리며 쓰러져

아, 부럽없는 행복과 함께
얼마나 큰 민족의 아픔이
우리 세대에 차레졌던가
두동강난 조국을 안고
몸부림치던 낮과 밤들이여

우리도 아버지세대처럼
하나된 이 땅을 부르며

온밤 잠못이루어야 하는가
언제까지나 피눈물을 삼키며
통일의 목마름을 느껴야 하는가

밝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통일이란 두 글자를 이제 더 새기게 한다면
이 땅의 아들이라고 부를수 없으리
수치스러운 저 콩크리트장벽과 함께
다가서는 21 세기를 맞는다면
내 조국의 푸른 하늘 마주볼수 없으리

아, 피를 바쳐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된 이 땅을 안아올 그날에라야
한생을 통일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앞에
땀땀이 실수 있는 우리 세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제일 근위병이라고
당당히 가슴 펴 우리 세대

숫구치는 활화산마냥 타오르는
젊은 심장과 심장
너와 나 하나로 뜨겁게 합치면
반역의 무리들은 쓰러지고
통일원년의 새 력사 시작되리니

펼치자 이 땅을 책임진 세대여
백두대산줄기 뻗어나래 남해끝까지
통일의 환호성 터쳐올리자
하여 우리 불리우자 조국의 피더운 아들들이여
분렬된 땅에서 태어난 마지막세대로
위대한 태양조선의 첫 통일세대로!

봉화는 불라고있다

류희숙

나는 얼마전 대지에 약동하는 새봄의 노래를 안고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에 대한 취재를 목적으로 봉화산에 올랐다.

런런히 뻗어간 이 나라 산발들에 자기의 한쪽 끝을 이어놓고 거연히 솟아 산천경개 수려함을 사랑하는 봉화산.

이 산에 찾아드는 춘하추동이 다 그러하겠지만 엄혹한 추위를 몰아내고 양춘을 불러온 봄계절은 더더욱 의미심장하다.

온 겨우내 지동치듯 몰아친 찬바람, 눈보라를 이겨내고 찾아온 봄을 맞아 새움을 띄우며 재생의 환희로움에 한껏 심취된듯한 대자연의 설레임은 내 심중에 그야말로 형언키 어려운 감정을 불러주었다.

겨우내 쌓여있던 눈더미들이 눈석이 되어 흘러내리고 통통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한 진달래꽃순이며 파란 풀싹들이 빠끔히 머리를 내밀고 따스한 해빛과 입맞춤한다.

술술 불어오는 산들바람도 좋고 골짜기를 따라 지줄대며 내리는 눈석이기도 좋다.

나는 감미로운 정서에 젖어 천천히 산마루로 향했다.

걸음을 옮길수록 활시위를 당긴듯 여기저기서 소리치며 태동하는 봄기운에 가슴이 확 열리는데 바로 이 봄을 불려오고저 김형직선생님께서 조국강산을 끝없이 밟으시며 한생을 바치셨다고 생각하니 눈부리가 더워남을 어쩔수 없었다.

이제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 산천도 강산도 몰라보게 변화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강의하고 고결한 넋이 이 산 굽이굽이에,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한줌의 흙속에도 숨배여있어 마치나 열정에 넘친 그날의 선생님의 체취가 풍겨오는듯한 심정이다.

봉화산기슭을 감돌아흐르는 열과강도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고심참담한 인생행로를 헤쳐오신 선생님에 대한 못잇을 그리움을 안아서인가 처절씩처절씩- 맥전나무에 머물러 한참이나 뒤척이다가 천천히 흘러내린다.

산마루에 오르니 비운의 도탄속에 허우적이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코저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오신 김형직선생님의 길지 않은 한생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선생님에게로 달려가는 마음바이 누를길 없다.

조용히 눈을 감으면 금시라도 이슬에 젖은 두루마기자락 날리시며 우리를 반겨주시면서 《지원》의 뜻을 잊지 말고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 사회주의 내 나라를 끝까지 굴함없이 지켜가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뵈울듯싶다.

끝없는 사색의 심연이 나를 이끌어간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던 나는 무성한 아지를 한껏 펼치고 키높이 자란 한그루 소나무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언제 올라왔는지 구면의 작가가 그앞에 서있었다. 그로 말하면 독자들속에서 애독되는 팔목할만한 력사물주제의 장편소설을 여러편 발표하여 우리 문단에서뿐아니라 력사학계에서까지 유감없이 인정받는 권위있는 소설가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 산마루에 올라왔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갔다.

지난해 그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장편소설을 창작하였었다.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나를 알아보고 무척 반가와하더니 이윽하여 조용히 말꼭지를 뗐다.

《감회도 새로운 이 산에 오르니 김형직선생님의 생각이 더 간절해 집니다.

장편소설을 쓰기 위해 선생님의 생애에 대한 자료를 취재하면서 나는 하나의 큰 대학을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한생토록 <지원>의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아픔을 참으시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오신 선생님에 비하면야 우리모두는 인생의 초학도에 불과하죠. 것처럼 크고 심원한 삶과 투쟁의 진리를 선생님은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바로 이 소나무에 것처럼 견결하시고 드팀없이 시였던 선생님의 넋이 깃들어있고 그 념원이 실현된 내 조국의 기상이 어려있는게 아닐가요.》

나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소나무에 눈길을 돌렸다.

소나무! 얼마나 많은 사연과 의미를 간직한 소나무인가.

황포무도한 자연의 괴벽스런 광란과 요염한 번덕에도 끄떡없이 언제나 한모습으로 굳건히 서서 푸르려 설레이는 소나무.

모진 세월의 눈비에다 절대로 꺾이지 않고 굽히지 않으며 천연안배에 깊이 뿌리내린 역센 모

습을 자랑하는 소나무는 그야말로 정의와 진리로 온갖 불의를 불사르며 민족해방의 진로를 위해 사생결단해오신 선생님의 그 모습이었고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를 찾고야말리라던 불타는 념원이 담긴 선생님의 한생이었다.

이윽토록 소나무를 바라보느라니 3천리강토가 암흑속에 묻히고 수난당한 겨레의 신음소리 더욱 높아갈 때 양춘을 불러오시려 《지원》을 안으시고 결사의 각오, 피의 각오로 심장을 뚫이시며 선생님 헤쳐오신 파란만장의 초행길, 무수히 뻗어간 그 력사의 새벽길들이 응축되어 안겨왔다.

저 소나무에도 그날의 우리 선생님께서 지니셨던 철석의 각오- 3대각오의 심원한 진리가 비껴 있으리라.

...혁명가는 3대각오를 가져야 한다. 아사, 타사, 동사, 다시말하여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

홍안의 청춘시절부터 숨지는 생의 마지막까지 선생님 목숨처럼 지켜오신 3대각오.

외세의 칼에 맞아 몸부림치는 조국과 민족의 아픔을 안으시고 선생님 끝없이 오가신 내 조국 방방곡곡, 멀리 이역의 남만과 간도의 길들에 3대각오에 대한 가슴치는 이야기 그 얼마나 많이 새겨졌던가.

그 길에서 선생님께서는 힘이 진하면 지팡이를 짚고 배가 고프면 생눈을 집어 삼키시면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시었고 철창속의 령어의 몸으로 거듭되는 중세기적고문과 악형도 웃으며 꿋꿋이 이겨내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천하가 얼어붙는 동산의 눈보라에 온몸을 얼구시며 장대 하나에 의지하여 압록강을 기어서 건너가신 가슴저미는 이야기도 그 길우에 남기셨다.

그 길우엔 새겨져있다.

오래동안 계속되는 모진 병마에 시달리시면서도 자신의 아픔보다 조국의 아픔, 겨레의 아픔을 더 뼈저리게 절감하시며 한몸 깡그리 바치시어 이슬뼉인 새벽길만을 헤쳐오신 선생님의 그 로고, 몸소 해불되어 밝혀주신 민족해방의 그 진로가...

작가의 이야기 내 가슴 파고든다.

《저는 너무나도 모질게만 살아오신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치밀어올라 서재에서 집필중에도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무릇 인간의 의지력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나 오직 초인간적인 불가항력으로 자신께서 세우신 목적달성을 위해 모든것을 참고 견디시며 불철주야로 살아오신 선생님의 한생에는 그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선생님의 한생은 너무나도 짧았다.

그러나 꺾이지언정 굽히지 않은 백철불굴의 한생이었고 한번 들어선 길에서 주저와 변심을 모르고 육박해간 견인불발의 한생이었으며 자신보다 겨레를 더 생각하고 가정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신 청렴결백한 애국애족의 한생이었다.

정녕 선생님의 한생은 타오르는 불이었다.

선생님께서 그날에 그토록 바라시던 《지원》의 사상은 내 조국강산에 꽃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김형직선생님의 한생의 념원이 어린 《지원》의 사상을 받드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어 조국광복의 새날을 안아오셨고 이 땅우에 백화만발하는 사회주의락원을 꾸려 주시었다.

그래서인가. 수많은 사연을 안고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봉화산도 거연히 서계시는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이런듯 내 가슴에 더욱 숭엄히 안겨든다.

만경대가문의 혈통, 백두산일가의 혈통, 김일성 민족의 혈통을 우리의 장군님께서 오늘도 굳건히 이어가고계시기에 봉화는 불타고있다.

지난해 설날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도 마다하지고 몰아치는 만경대눈보라를 맞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 그 이튿날에 일군들에게 시《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지원》의 뜻을 받들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실 불굴의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그리고 가을에는 김형직선생님의 력사의 자취어려있는 구월산을 찾으시어 선생님의 한생에 대하여 뜻깊게 말씀하시면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갈 철석의 맹세를 더욱 굳히시었다. 그 맹세대로 올해에도 정초부터 붉은기를 역세계 틀어잡으시고 끊임없는 군령도의 길, 위대한 사회주의승리의 길을 이어가고계시지 않는가.

그날에 선생님 지니셨던 3대각오, 오늘은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리는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장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자폭정신의 영웅들을 낳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이 나라 사람들의 담력과 배짱, 기질로 되어 온 강산에 나래치거니.

봉화는 불타고있다!

오늘도 봉화는 불타고있다.

아니, 래일도 먼 미래에도 봉화는 불타오를것이다

영원히, 영원히...

이것이 봉화산에서 내가 받아안은 감흥이고 새로 집필할 기사의 종자이기도 했다.

별들이 웃는다

최양수

렐차는 석양이 비껴무렵에 도소재지역을 떠났다.

예성은 도소재지에서 진행된 《교육일군경험토론회》에 참가하고 돌아오고있었다. 사실 회의일정을 마치고 어머니곁에서 이삼일쯤 보낼 계획이었으나 도리어 함께 갔던 교원들보다 하루 먼저 떠난셈이었다.

아름다운 일화들과 깊은 사연들로 엮어진 선배 교원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전을 울리는것 같았다.

《학생들의 마음을 모르는 교원은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은 수학방정식에서 미지수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미지수를 찾자면 학생들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성은 자기 어머니나이쯤 될 백발이 성성한 녀교원의 말을 다시금 외워보았다.

(미지수라... 그 미지수를 찾자면, 찾자면? ...)

예성은 찬바람이 뒤흔들어오는 렐차승강대에 나와섰다.

그는 외투깃을 올리고 우중충한 산발들이 언뜻 언뜻 스쳐지나가는 차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창에 방학기간에 있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어스름이 깃을 펴기 시작한 교실안은 고즈넉한 정적속에 잠기었다.

학생의자에 앉아 검붉은 불길기 너울거리는 난로를 점도록 바라보고있던 예성은 연분홍색갈의 인조털장갑을 그려쥐며 호-하고 긴숨을 내쉬었다.

(봉남이... 그애가 왜 그렇게 나를 보았을까? ...)

방금전, 학과실력이 낮은 세명의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에 진행할 보충학습과제를 칠판에 써주고 돌아선 예성은 은근히 당황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만년필을 든 손에 턱을 고이고 자기를 뵈히 쳐다보고있던 봉남학생이 눈길을 어데다 돌지 몰라 황급히 머리를 숙이는것이였다.

《봉남학생!》하고 부른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따져물으려다가 그만두고말았다.

《어서 숙제문제를 쓰세요.》

벌떡 일어나 우물쭈물하던 봉남은 노루털깃을 추스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부지런히 펜을 달리는 다른 두 학생의 학습장을 살펴본 예성은 창가로 다가갔다.

땅바닥을 활으며 불어대는 눈보라로 하여 학교

건물들과 체육기재들이 허공중에 뚱뚱 떠있는것처럼 안겨온다.

예성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뜻밖의 일이었다.

새 학급을 담임하여 녀달동안 봉남학생은 그의 남다른 관심사로 되고있었다. 거의 매일이다싶이 아침 첫수업에 지각을 했고 공부가 끝나면 누구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가는 날이 드문했다. 텔레비존중계소가 자리잡은 뽕죽산봉우리에 집이 있어 등교길이 멀다는것을 매번 고려해주군했으나 학과실력이 문제였다.

방학기간에 봉남이를 비롯하여 성적이 낮은 학생들과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짜고들기로 결심한 예성은 방학을 앞두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낸것이다.

그런데 봉남이는 왜 숙제문제를 쓰지 않았을까? ...

봉남이의 필기가 끝나자 예성은 세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설명절을 잘 쇠세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숙제검열날이라는걸 잊지 마세요.》

그들이 돌아간후 난로불이 사위여치기를 기다리며 상념에 잠겨있은지도 한식경이 되여온다.

난로뚜껑을 열려던 예성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그는 흠칫 놀라 굳어졌다.

(?! ...)

커다란 토끼털모자를 쓴 봉남이가 머리를 수곳이 하고 앞에 서있는것이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예성은 활랑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봉남이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봉남학생, 웬일이예요?》

《저...》 봉남이는 털모자를 벗어들고 웅얼거렸다. 《숙제가 많아서...》

《네?! ...》

예성은 봉남이의 어깨에서 슬그머니 손을 내리웠다.

《그래서요, 어서 말해봐요.》

《저... 저한테는 아무래도 숙제가 좀...》

《숙제가 힘에 부치단말이지요?》

봉남이는 머리만 돌릴뿐 대답이 없다.

무너지듯 주저앉은 예성은 앞의자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한결 낮추었다.

《앉으세요. 봉남학생.》

그러나 봉남이는 곳곳이 선채 움직일념을 하지

않았다.

《숙제가 좀 힘에 부치겠지만... 방학기간에 앞선 동무들을 따라잡아야 할게 아니예요.》

봉남이는 입술을 꼭 다물고 발끝을 내려다보기만 했다.

예성은 막연한 생각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어찌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봉남학생, 하여튼 알겠어요. 설명절을 최고 다시 만나자요. 숙제는... 해야 해요!》

봉남은 꾸벅 인사를 하고 터벅터벅 교실문을 나섰다.

예성은 복도끝쪽으로 멀어져가는 발자국소리에 귀기울이며 난로앞에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저앤, 저앤 어떤 애일까?...)

설명절이 지나간 첫 숙제검열날이었다.

예성은 그날오후 텔레비존중계소가 자리잡고있는 뽕죽산마루로 향했다.

봉남이와 새해의 첫인사를 나누지 못했던것이다. 숙제검열을 받으러 교원합숙에 오자마자 텔레비존앞에 마주있더니 급히 뛰어나갔다고 한다.

계획한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끝마칠 때까지도 그애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집으로 간것일까? 그앤 아직 철이 없어. 자존심도 없구. 다른 애들을 따라잡을 생각은 왜 못할까?)

해질무렵이었다. 급한 경사지를 이룬 눈덮인 산길로 걸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눈우에 우묵이 패인 길자리를 따라 어림짐작으로 걸을수밖에 없었다. 산골짜기의 물이 얼어붙어 거울처럼 반들반들한곳도 있었고 아차 잘못하면 몇길이나 될 벼랑에서 허공 떨어질수 있는 위험한 구배길도 있었다.

발끝에 힘을 모아 조심조심 걸었건만 예성은 골짜기를 가로질러갈 때 얼음판우에 끝내 넘어지고말았다.

참기 어려운 아픔보다도 민망스럽고 야속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뽕잇한 눈가루속에 묻힌 엉성한 산발들이 휘유- 우이- 하고 휘파람소리를 내지른다. 누구인가 자기를 지켜보는것만 같은 께름직한 육감이 들기도 했다. 눈덩이를 움켜쥐고 일어선 그는 가파로운 산길을 툭아올랐다.

어슬넙에야 산봉우리에 올라선 예성은 땀기가 뻗 머리스건을 끄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학교며 마을이 저 아래 까마득하니 내려다보였다. 그걸 바라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숨이 후- 나갔다.

(봉남이가 이런 길로 다녔구나! 그러니 지각이 많을수밖에...)

이윽히 산길을 굽어보던 그는 각이한 모양의

크고작은 안테나들이 지붕우에 주련이 서있는 봉남이네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울바자를 가끈히 둘러친 마당에 들어서자 뒤집어엎어놓은 절구통우에 올라서서 처마끝에 주렁주렁 매달린 메주덩이들을 손질하던 봉남이 어머니가 털썩 뛰어내렸다.

《아이구나! 선생님이 우리 집일 어떻게?》

너인은 헤덕비며 달려와 예성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다.

《이 추운 날에, 날래 들어갑세다.》

예성은 봉남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집안으로 들어갔다.

옷방문이 벌컥 열렸다. 봉남이 아버지가 불편스레 다리를 움직이며 달려나왔다.

예성은 두손을 앞으로 모아쥐고 머리를 숙여보였다.

《아아, 이런 참! ...》

봉남이 아버지는 부랴부랴 옷웃을 꺼입었다.

《아, 여보! 뭘하고 서있소, 선생님을 모시지않구.》

봉남이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가마목을 척척 짚어가며 수선을 피웠다.

《여기 아래목으루 내려앉으슈. 집이 루추해서...》

몇마디 인사말들이 더 오갔다.

봉남이 아버지는 담배쌈지부터 펴놓고 미안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집의 애녀석때문에 선생님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말이지.》

예성은 치마자락을 손더듬하며 앉은 자세를 고쳐했다.

《봉남학생이 그렇게 험한 길로 학교에 다닐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별말씀을, 그녀석이야 늘쌍 다니던 길인걸요.》

《헌데 봉남인 어델 갔습니까?》

《글쎄, 오후엔 학습반에 간다고 떠났는데...》

《네? 봉남이를 기다리다가 떠났습니다.》

담배를 말던 봉남이 아버지의 두툼한 눈섭이 꿈틀했다.

《내 별스레 빠르다 하면서도. 이녀석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선생님, 이거 면목이 없습니다.》

《저야 뭐랍니까. 그런데 봉남이가 어델 갔을가요?》

예성은 근심어린 눈길로 어스무레해진 창가를 바라보았다.

방바닥에 널어놓은 기장쌀을 번지고있던 봉남이 어머니가 손을 툭툭 털며 돌아앉았다.

《녀석이 막녕이어서 응석받이로 자라서인지 형들과는 달리 온갖 장난질을 도맡아한답니다. 죄진놈 제 그림자 보구두 놀란다구 눈치가 멀쩡한

너석이니 보나마나 아래마을 삼촌집에 박혀있을 겁니다.》

봉남이 아버지는 성급히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을 득- 그었다. 이어 짙은 담배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체소한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중늙은이의 성난 목소리가 방안의 공기를 울렸다.

《중계가 잘되지 않는다고 뛰어왔길래 어허참! 내 이너석을 그저...》

그 소리에 널찍한 잔등을 둔하게 흠칠한 봉남이 어머니가 남편의 심상치 않은 거동을 결눈질해 보고는 목을 움츠린다.

(봉남이가 그래서?! ...)

비로소 사연을 알게 된 예성은 안도감과 함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방안엔 뽀얀 담배연기속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료감을 덜어보려고 연거퍼 담배연기를 내뿜던 봉남이 아버지는 앉아있기가 딱했던지 어쩔어쩔 군기침을 짓으며 텔레비존중계기구들이 짹 들어찬 옷방으로 올라갔다.

그제야 봉남이 어머니가 음성을 낮추며 말했다.

《이너석 혼썰나게 됐지, 예그 참! ...》

장정들처럼 뼈마디들이 굽직한 봉남이 어머니의 손이 별스레 허둥허둥하는것을 여겨보던 예성은 옷방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소리없이 웃었다.

봉남이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더 오고갔다. ...

더이상 지체할수 없게 된 예성은 봉남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다.

래일아침에 떠나라고 거들 만류하던 봉남이 아버지는 멀리까지 따라나와 예성을 바래워주었다.

사면팔방이 수림으로 둘러싸인 산촌의 밤은 무시무시한 고적감을 자아냈다.

예성은 삼촌집에 가보겠다고 손전지를 켜들고 나선 봉남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 음침한 산골짜기를 내려갔다.

《예그, 집의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줄 알면 얼마나 가슴아파할가. 쫓쫓... 자식이란게 무시젠지. 내 주책머리없이 로망을 해서 마흔고개에 그너석을 보았는데 늘그막에 요렇게 속을 썩일줄은... 자식이 애물이라더니 이것도 무슨 <재미>인가보지요? 내참! ...》

너인은 무춤 멈추어서서 커다란 바위가 우뚝 솟은곳을 가리켰다.

《저기 벼랑근처랑 이 주민이 몽땅 그너석의 <사냥터>랍니다. 까마득한 나무에 바라올라가 새둥지들을 털어내지 않나, 오소리굴이란 오소리굴은 돌아가며 들쭈시지. 가만있는 이고장 짐승들이 기를 못퍼게 하지요. 어휴- 언제 공부생각

을... 령감이 잔소리야 하지요. 당초에 말을 듣는줄 압니까? 우리 령감은 한다리를 잃은 영예군인이라우. 게다가 나이까지 적지않으니 어디 나다니길 힘들어하지요. 그너석이라도 아버지처지를 알아줘야겠는데... 이담에 선생도 알게 되겠지만... 예그- 너자들이 부담스럽다는게 더 말해 뵈하겠수.》

《어머니두 참.》

예성은 얼굴을 붉히며 손등으로 입을 가리웠다. 《사냥터》들을 눈여겨 살펴보던 그는 어머니두 놀랐다.

《어머니! 저기 무슨 검은것이...》

그곳을 주시해보던 봉남이 어머니는 커다란 손으로 예성의 팔을 잡으며 히죽이 웃었다.

《아마 굶주린 메돼지들이겠지비. 겁내지 말구 내 뒤를 바짝 따르시우.

우리 봉남이너석이 뭐랬는지 아우.

새 선생님은 곱게 생겼는데 밥이랑 빨래랑 할줄 모를거라구. 하, 이러질 않겠수. 그것두 사내코배기라구 내 어이가 없어서...》

(봉남이가 나를 두고 그런 말을... 호, 역시 봉남이는 어딘가 모르게 엉뚱한데가 있어. 봉남인여기가 무섭지 않을까? 혹시 범이라도 나타나면, 아휴! ...)

예성은 저도 모르게 온몸이 오싹해지는것을 느끼며 황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수림속에는 역시 괴괴한 정적만이 깃들어있었다.

예성이가 넘어졌던 산골짜기의 얼음판을 지나던 봉남이 어머니가 허리를 구뱃하고 전지불로 주변을 비쳐보았다.

《온참, 여기다 흙을 퍼놔구만. 누가 그랬을까?》 머리를 기웃기웃하던 너인은 《그참, 조화로다.》 하며 천천히 걸음을 내짚었다.

나무가지들이 설레이는 소리가 들려올뿐 산골짜기는 휘휘한 적막속에 잠겨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산길을 내렸다. 어느덧 마을이 가까와졌다. 점점 바람이 사나와졌다. 바람을 막느라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봉남이 어머니를 따라가던 예성은 갑자기 기겁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저앞에... 저게 뭐예요?》

《응? 어째 그러시우?》

너인은 넙죽한 잔등으로 예성을 가리우며 길한 복판에 나타난 거뿔한 그림자를 향해 전지불을 비쳤다. 거센 너인의 목소리가 야밤의 정적을 깨며 날아갔다.

《뉘기요? 예, 뉘긴가말이요?》

말뚝처럼 우뚝 선 자그마한 형체는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너인이 치마자락을 펄럭이며 저춤저춤 걸어갔다. 쯔있어 반가움과 노여움이 뒤섞인 청높은 목

소리가 들려왔다.

《이, 이녀석… 어째 이리 속을 태우냐? 봐라. 너때문에 선생님이 이밤에…》

저도 모르게 비칠하는 몸을 가까스로 유지한 예성은 심신을 가다듬고 반달음을 놓았다.

봉남이 어머니가 아들의 허리아래를 철썩 때리고는 뒤통리를 떠민다.

《인사법도 모르는, 뉘길 닳아 이런지…》

《놓으라요!》

봉남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이 철딱서니없는, 내 이걸 그저…》

녀인은 괜히 한손을 쳐들었다가 도로 내리운다.

예성은 봉남이의 솜옷단추들을 채워주며 갈린 음성으로 물었다.

《숙제검열을 받으러 왔다가 왜 돌아갔어요?》

발끝을 비비적거리기만 하던 봉남은 한참만에야 입안소리로 대답했다.

《중계가 잘 안돼서… 텔레비전에서 공동사설을 보도할 시간이 됐는데…》

예성은 불시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그는 여러여지는 마음을 힘겹게 되돌려세웠다.

《봉남이, 숙제는 했어요?》

《했습니다. 아니, 두문제를 채…》

《그런데 여기서 뭘 해요? 어서 대답해봐요.》

봉남은 바지 혼술을 주무르며 머리를 기웃이 돌렸다.

《저… 선생님이 오시는걸 봤됐습니다. 무서워 할가봐…》

《네-에?!》

예성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말았다. 모욕감, 그다음엔 어처구니가 없었다. 벼랑에서 얼씬거리던 검은 그림자가 떠오른다. 그러니 내가 마음에 올라올 때부터 내 뒤를 따르며 얼음판에 넘어지는것도 다 지켜보았을것이다. 무릎을 꿇고앉은 그는 봉남이의 두손을 잡고 마구 흔들었다.

《누가… 누가 그런 걱정이나 하랬어요! 아이참, 숙제는 안하고 이 추운 날에 밖에서 뭘하느냐 말이에요. 네?》

《저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숙제가…》

눈보라가 휘익 불어치면서 봉남이의 다음말을 어둠속공간으로 날려가버렸다.

《에그, 추운데 날래…》

등을 떠밀어주는 억세고 푸수한 손길을 느낀 예성은 부지중 목소리를 높였다.

《봉남학생! 래일부터 선생님이 오겠으니 어태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해요. 오늘 못한 두문제도 마저 풀고, 알겠어요?》

봉남은 정 피할수 없으니까 그러듯 《네.》 하고 대답할뿐 꾀꾀한 자세 그대로 서있었다.

그들과 헤어져 합숙에 돌아온 예성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걸린 초생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뽕죽산을 오르내리면서 겪은 일들이 떠올랐다.

《무서워할가봐…》 하던 봉남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렬차가 벗어나자 예성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어둠속에 가장자리만 보이는 소나무숲너머 아득한 공간쪽에서 파도소리가 들려온다.

휴양소가 자리잡은 바다가마을 간이역이었다.

세명의 손님이 내리고 오르는 손님은 한명뿐이었다. 예성의 도움으로 커다란 지함을 승강대 발판우에 올려놓은 중년의 사나이가 바래주러 나온 두명의 사람들과 작별인사를 하고있었다.

렬차가 덜커덩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강대손잡이를 잡고 손을 흔들던 손님이 한참만에야 돌아섰다. 예성을 본 그는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추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 다음다음역에 내려야 합니다.》

《오- 그래도 차칸안에 들어가 몸을 좀 녹일걸.》

《고맙습니다. 전 여기 그냥 있다가…》

손님은 싱글벙글 웃으며 제후에 겨워 말꼬리를 늘어놓았다.

《이렇게 나와있다고 기차가 더 빨리 달리는것도 아닌데… 역전에서 애인이 기다리는데지요?》

《네?! 아이참! …》

예성은 승강대쪽으로 뺄 돌아서고말았다. 차칸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손님의 푸접이 좋은 인사말을 들으면서도 예성은 벌써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호, 애인 하긴… 우리 학급애들은 모두 좋은 애들이야. 장난꾸러기들, 그래도 숙엔 어른이 들어차있어. 봉남이랑 뭘 하고있을가? 내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줄 알기나 할가?)

예성이가 급히 떠난것은 경험론을 들으면서 받은 충동때문만이 아니었다. 회의 첫날부터 가슴이 텅 비여있는것 같았고 방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것으로 하여 은근히 조바심이 났던것이 다.

(방학숙제들은 다했을까? 봉남인 오늘도 사냥만 하지 않았을까?…)

예성은 성에가 하얗게 불린 차창유리를 입김으로 녹여내며 《봉남이!》 하고 나직이 불러보았다.

봉남이네 집을 다녀온 이튿날부터 예성은 뽕죽산을 오르내렸다. 산길에 발에는 물집이 생기고 찬바람에 얼굴은 거칠어져갔다.

애기주먹만큼씩한 눈송이들이 해종일 그칠새없이 내리던 어느날이었다.

학습과제를 마친 봉남은 여느날과 달리 산골짜기까지만 예성을 내려워주고는 건너편 산으로 오르는 것이었다.

두툼한 눈이불을 쓰고 깊은 잠에 취한듯싶은 높고낮은 산발들이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물들었다.

토끼털모자 귀덮개를 너풀거리며 생눈길을 헤쳐가는 봉남이를 돌아본 예성은 발길을 멈추었다.

《봉남이, 어델 가요?》

다리 짧은 《난쟁이》가 되어버린 봉남은 앞으로 푹 눌러온 털모자를 제껴올렸다.

《눈이 많이 와서 전주대들을… 바람이 터지면 전기줄들이 끊어질수 있습니다. 그럼 중계를 못하지 않습니까.》

(호, 그래서! …)

깊이를 알수 없는 눈바다앞에서 잠시 주저하던 예성은 발고랑처럼 패인 봉남이의 발자취를 따라 산기슭에 접어들었다.

발을 헛디더 허둥거리는 예성을 본 봉남이가 뉥뉥마주 달려왔다.

《선생님, 어델 가시렵니까?》

《전주대들을… 함께 돌아보지요.》

봉남은 엉금스러운 속심이 물켜있는듯싶은 몽툰 코등을 축축히 젖은 빗어리장갑으로 쓱 훑쳐냈다.

《선생님, 이런 날엔 노루도 다니기 싫어합니다.》

봉남이의 눈길을 보는 순간 예성은 방학을 앞두고 보충학습과제를 주던 날이 얼핏 떠올랐다. 잊혀지지 않는 인상속에 새겨진 의문점이 그제야 확연해졌다. 봉남이는 도시물림의 아련한 녀선생이 이 험한 산골에서 건디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하고있는것 같았다.

예성은 은근히 불쾌해했으나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봉남인 다니지 않나요. 봉남이가 가는 곳이면 선생님은 어데든지 따라갈수 있어요.》

봉남은 무슨 궁리가 떠오른듯 획 돌아서서 정중경중 산언덕길을 뚫아올랐다.

예성은 그를 따라잡으려고 젖먹은 기운까지 다내어 허우적거렸으나 거리는 자꾸자꾸 멀어지기만 한다.

홀깃홀깃 뒤돌아보며 어느새 산마루에 올라선 봉남이가 아래쪽에 대고 소리쳤다.

《선생님- 빨리 올라오십시오-》

예성은 허리를 펴고 가쁜숨을 내쉬었다. 땀기가 축축히 내배인 이마를 손등으로 훑쳐냈다.

《같이, 같이 가지요- 봉남이! -》

《하하하… 좀더 올라오면 계단이 있습니다-》

(장난꾸러기같으니… 아이, 조 심술쟁이를 어쩌면 좋을가…)

예성은 종주먹을 쥐고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얼기설기 뒤엀킨 잡관목들을 헤치고 나오자 산등성이에 길이 나졌다. 봉남이가 앞질러가며 눈을 헤쳐놓아서인지 언덕밭이들마다에 쌓아진 돌계단들이 드러나있었다.

걸기가 수월했다. 마침내 평평한 공지에 올라선 예성은 세그루의 잣나무가 가지런히 서있는곳에 이르러 폴짝 주저앉고말았다. 목안에서 겨불내가 확확 풍긴다.

저쯤 떨어진 전주대아래에서 눈세수를 하고있던 봉남이가 솜옷자락으로 얼굴을 문대며 달려왔다.

예성은 목에 드리운 하얀 수건을 여미고 머리를 단정히 쓸어넘기였다.

《선생님, 힘들지 않습니까?》

《호, 참! 괜찮아요. 봉남인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는가요?》

《형들이 군대에 나가서 작년 가을부터 혼자 합니다.》

봉남은 잣나무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다.

《제일 큰 나무는 21살, 가운데것은 19살, 그다음은 13살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막내가 아니라요.》

예성은 검푸른 잎새마다 소담스러운 흰눈을 띄고 서있는 잣나무들을 정겹게 바라보았다.

《봉남인 참 좋은 일을 하는군요!》

《중계가 잘 안되면 우리 집에선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욕하는 전화들이 별난데서 다 걸려오거든요.》

가리마처럼 쪽 갈라진 숲속에 연줄연줄 늘어선 전주대들이 한눈에 안겨온다. 바오리처럼 굽어진 전선줄들이 악보줄같이 뻗어갔는데 이름모를 새들의 우짖음소리며 수림이 설레이는 소리가 그우에 새겨진 대교향악의 선율인듯 보라빛채운이 서린 하늘가에 울려퍼진다.

두사람은 전선줄을 살펴보며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다.

봉남은 앞에서 눈길을 헤쳐가며 줄창 입을 다물줄 몰랐다. 밤이랑 도토리랑 가득가득 채워놓은 다람쥐네 고간을 털어내던 일, 독수리바위 중턱에서 새둥지를 들추다가 사납게 달려드는 까마귀무리한테 혼썰나던 일, 메돼지의 습성이며 산토끼옹노를 놓는 방법 등 주로 사냥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생동하게 펼쳐놓았다.

예성이가 새롭게 알게 된것은 봉남이의 등교길이 바로 이 길이며 《사냥터》들도 대체로 전선줄 부근에 있다는 것이었다. 급한 경사지마다 쌓아진 돌계단들에도 석비레흙을 퍼놓은 얼음판들

에도 봉남이의 손길이 닿아있었다.

예성은 봉남이의 숙내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가 점차 기록해냈다. 또 자기가 봉남이를 따라 여기올라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남이는 정말 아버지를 도와 장한 일을 하는 구만요.》

봉남이는 쑥스러운듯 뒤더수기를 문댄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잘 돕자면 공부도 잘해야 해요. 봉남이는 앞으로 무엇이 되려고 해요?》

《난 커서 지금처럼 중계를 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텔레비를 볼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예요. 그런데 그걸 하자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거예요. 지금처럼 뒤꼬리를 차지해가지고서는...》

봉남이의 얼굴이 새빨갭게 달아올랐다.

예성은 더 말하지 않고 런던히 뻗어간 산발들, 울창하게 우거진 숲을 바라보았다. 소소리높은 거목의 아스라한 우듬지를 이윽히 올려다보던 예성은 꺼칠꺼칠한 소나무의 껍질을 뜯어내어 생각에 잠겼다.

(《사냥터》마다 《학습카드》들을 붙여놓으면 어떨까? 아이참, 내가 왜 이제야 그 생각을! ...)

저녁해는 어느새 서산마루로 팔각 숨어버렸다.

봉남이의 《감시구간》이 끝나는 마지막 산길을 내리던 예성은 그만 돌부리에 걸쳐여 눈속에 파묻히고말았다.

뽕죽한 나무그루터기가 무릎뼈를 심하게 자극했다. 숨이 딱 멎어버리는것만 같았다. 강인히 입술을 사려물었건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막을 힘이 없었다. 꺾진꺾진한 상처부위를 쓸어만지던 그는 소스라치듯 머리를 들었다. 다행히도 봉남은 멀찌감치에서 금방 자기쪽을 돌아본다.

예성은 어떻게 자리를 차고 일어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산길을 내려왔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다. 그애는 웬일인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더니 오던 길로 총총히 사라졌다. ...

합숙에 돌아온 예성은 문고리를 잡자마자 쓰러졌다.

식모어머니는 예성의 배개머리에 앉아 잔소리를 섞어가며 말끝마다 혀를 찼다.

상처자리가 퐁퐁 부어오르고 진통이 심해갔지만 예성의 마음은 날아오를것 같았다. 아픔을 참느라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인 그는 식모어머니에게 텔레비존을 켜달라고 부탁했다.

《이거 웬 감투끈인지 종잡을수가 있어야지. 범한데 쫓기우다가 혼을 잃은게 아닌가.》

식모어머니는 마지못해 텔레비존스위치를 눌렀다.

장중한 음악과 함께 백두산일대의 무연한 천연 수림이 화면에 펼쳐진다.

(아, 조국의 목소리! ... 봉남인 조국을 위해 피흘려 싸운 아버지처럼 그뒤를 이어 억세게 자라나고있구나!)

예성은 산등판에 무성한 아지를 펼치고 서있는 세그루의 잣나무를 그려보았다.

비바람, 눈바람 세찬 험한 산정에 지심깊이 뿌리내린 잣나무, 그 아름답드리거목의 활기찬 설레임소리를 그는 듣고있었다. 온넋으로 느끼고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님밤중에 성급한 문두드림소리가 울려왔다.

줄음이 가득 실린 눈으로 텔레비존을 보는동안는등하던 식모어머니가 이마살을 찌프리고 밖으로 나갔다. 누군가와 한참이나 다투다설이하던 그가 환히 밝아진 얼굴로 들어왔다.

《웬 학생이 토끼 두마리하구 이걸 주고가더구만. 곰열은 어혈에 좋다면서, 들어가자니까 래일 부턴 자기가 매일 오겠다면서 <난 선생님이 아파하는 얼굴은 보지 않겠어요.> 이러질 않겠나.》

곰열을 정히 썬 종이봉지를 손에 쥔 예성은 눈앞이 깜 흐려왔다. 창가로 절룩절룩 다가간 그는 문턱을 잡고 어둠속에 잠긴 밖을 내다보았다.

(봉남이! ...)

저도 모르게 눈곱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깊어가는 밤, 검푸른 하늘가엔 못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삼일후 예성은 봉남이네 학습반 학생들을 이끌고 뽕죽산으로 올랐다. 널판자는 후에 마련하기로 하고 마분지를 먼저 해결한 그는 밤을 새워가며 《학습카드》들을 만들었던것이다. 겨울치고 보기도문 잠퐁한 날씨였다.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앉으며 저마끔 고운 청을 돌구는 산새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모양으로 두리몽실한 동화적풍치의 아름다운 설경, 흰눈덮인 고요한 산촌에 호아호아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리공식, 수학공식, 외국어단어들 올긋볼긋 써넣은 《학습카드》들을 맞춤형 나무들에 붙일 때마다 포실포실한 눈가루가 뽀잇하니 쏟아져내린다.

새파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 두팔을 활짝 펼친 아이들의 밝은 얼굴이며 쟁쟁한 목청으로 《학습카드》내용을 외워보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길을 직감하고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는 봉남이... 그 모든것은 예성의 마음을 그지없이 황홀한 꿈의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렬차는 수은등불빛이 환히 비치는 역홈에 서서히 들어섰다.

승강대에서 뛰어내린 예성은 소형트렁크를 두 손에 맞잡고 역구내를 둘러보았다.

날씨는 쌀쌀했다. 이따금씩 눈보라가 불어쳤다.

오르고내리는 손님들, 마중나온 사람들로 붐비던 역홈은 열차가 떠나기도전에 조용해졌다.

허전한 기분으로 개찰구쪽을 바라보던 그는 은연중에 《저애들이?! …》 하고 소리쳤다.

안내원과 옥신각신하던 한무리 아이들이 알시에 《야, 선생님! -》 하며 달음질쳐온다.

《아이, 윤성이! 달님이! 옥별이!…》

예성은 숨 한번 돌릴새 없이 아이들의 포위속에 들고말았다.

《선생님, 트렁크를 주십시오.》

《난 방학숙제를 다했습니다. 수학보충문제도 풀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보고싶었습니까?》

햇병아리들처럼 오구작작 떠들어 대는 아이들 속에서 어쩔바를 몰라 찢찢매던 예성은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야휴- 어디 말할수가… 보고싶었어요. 동무들이… 동무들이…》

《뽕, 뽕-웅-》

차창가에 바투 다가앉은 러객들의 호기심어린 얼굴을 싣고 열차는 떠나갔다.

때아니게 소동을 일으킨 꼬마손님들을 위해 참을성있게 기다려준 안내원처녀의 정겨운 눈길을 받으며 그들은 개찰구를 나섰다.

역대합실에 들어서서도 예성은 반시간이상 아이들한테 들볶이워야 했다.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들을 꾸짖다싶이 얼리어 집으로 돌려보낸 예성은 얼마후 합숙에 들어섰다.

《아이구, 이제야 왔구만. 이제야! …》

식모어머니가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니, 그게 편안했어요?》

《편안히가 다 뭐가. 말도 말라구. 오늘 아침부터 합숙문돌쩌귀에 불이 일번했다니까.》

너인은 손을 뻗혀 내저으며 예성의 트렁크를 받아들고 그를 방안으로 이끌었다.

《오빠네 집에 들리겠다더니 제창 돌아선게구만. 그러길 잘했어. 초저녁엔 해남이랑 토끼털모자랑, 아 코에 밤알이 달린것 같은 얼굴이 둥글넙적한 <사냥군>인지말이야. 한 네댓번씩 들락날락한것 같애. 대관절 오늘 온다구 약속을 했게?》

《아니, 그런 일은…》

예성은 파스한 아래목에 앉아 열댓권 됴직한 방학숙제장들을 끄당겼다.

《세상에 별난 일두 있지.》

식모어머니는 그의 손에서 방학숙제장들을 듬췌 빼앗아안았다.

《에그, 오자마자 밥그릇부터 찾을 노릇이지.》

너인은 다짜고짜로 방학숙제장들을 책상우에 올려놓는다.

류달리 검고 시원스러운 예성의 눈가엔 기쁨의 미소가 찰랑거렸다.

《어머니도 제가 울줄 알았어요?》

《으응?- 글썸…》

너인은 잠시 병병히 서있더니 부엌쪽으로 나가며 짐짓 어성을 높였다.

《다 그 코흘리개들때문이야. 내 원참! …》

(내가 오늘 온다는걸 어찌 알구. 봉남인 그 면에서… 애두 참! 빈걸음으로 돌아서자니 얼마나 서운했을가. 얼마나…)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를 듣고있던 예성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트렁크에서 봉남이에게 줄 참고도서를 꺼낸 그는 부엌으로 나갔다.

가마안에서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밥그릇을 꺼내던 식모어머니가 뒤로 벌렁 나앉는다.

《이제 또 어델 갈려구?!》

《제 인츰… 봉남이가 기다릴거예요.》

《약속이 없었다면서?》

《그래도… 아니, 약속했어요. 나자신이야.》

《자신이라니?! …》

《호호호… 어머니 정말… 전 가야 해요.》

《고집스럽기란… 내 예성이앞을 막을 재간은 없네만 가더라도 요기를 해야 할게 아닌가.》

《어머니, 고마워요, 제 걱정은 말고 이제 그만 쉬세요.》

합숙울타리까지 따라나온 너인이 계속 푸념을 늘어놓았다.

《욕을 해야 할지 어찌야 할지. 하여간 조심해서 다녀오라구. 기다리겠으니 채우 돌아서라구.》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었다.

뽕죽산마루에서 봉남이의 눈빛인양 한점의 불빛이 반짝이고있었다.

살을 에여내는듯한 바람이 얼굴을 선풍하니 스칠 때마다 그 불빛은 벌어지기도 하고 가까와지기도 한다.

마을어구를 벗어나자 산골짜기로 향한 길이 나졌다.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숨이 킁킁 막히고 당장 날려가버릴듯 몸이 휘친거린다. 가까운 어데서 눈사태가 일어났는지 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아츠럽게 들려온다. 산짐승의 울부짖음같은 피이한 소음이 바로 곁에서 울리는가 하면 모래알같은 눈가루가 언불을 사정없이 후려갈기기도 했다. 사방에 눈더미들이 쌓아져 다니던 길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얼마나 걸었는지… 한숨 돌리며 방향을 가늠해 보려는데 거뭇한 덩어리가 불췌 앞을 막았다. 웅

크리고 앉아있는 산짐승인줄로 착각한 예성은 앓 소리를 지르며 몸균형을 잃고말았다.

전신에 식은땀이 꼭 내돈는다. 그 한순간이 지나자 자기가 바위를 보고 놀랐고 나무등결에 걸쳐 넘어졌다는것을 의식한 그는 손에 꼭 그려진 참고도서를 가슴우에 올려놓은채 무수한 별들이 짝 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을가? 여긴 어델가?)

나무가지들이 잉잉 소리를 내며 몸부림친다.

문득 《학습카드》 생각이 떠올랐다.

(눈보라에 날려버린건 없을가?)

그는 손에 닿는대로 앙상한 나무줄기를 휘여잡고 몸을 일으켰다.

때마침 구름에 가리워졌던 대보름달이 교묘히 내리비쳤다.

낮익은 나무들이 몇대 보였다. 눈을 걸어차며 흰버섯모양으로 되어버린 소나무앞에 다가간 예성은 옷부분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학습카드》는 그대로 있는데 마분지보다 규격이 큰 널판자로 만들어 붙인것이였다.

누가 바꾸어달았을가?...

그러던 예성은 미심결에 고개를 돌렸다. 약간 둔덕진 산웃쪽에서 불빛이 반짝이였다. 크고작은 두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아래를 향해 누구를 찾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선생님 아십니까?》

(아이, 봉남이구나!)

예성은 황황히 머리수건을 풀어헤치고 화답했다.

《봉-남-이-가- 아니예요?》

그의 부름소리가 채 끝나기도 바쁘게 한자리에 머물러있던 불빛이 물결치듯 들까불며 내려온다.

예성은 책을 가슴에 붙안고 무릎을 치는 눈속에서 허청거렸다.

별찌마냥 불꼬리를 달고 놀랄만치 빠른 속도로 가까와지는 한점의 불빛...

《선-생-니-임!》

《봉남이!... 천천히, 덤비지 말아요!》

서로 찾고 부르며 어쩔사이없이 부둥켜안은 그들은 지탱점을 잃고 눈우에 나뉘어졌다. 맑고 명량한 웃음소리가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가로 울려 퍼진다.

《어델, 어델 가됐어요?》

《선생님 마중을...》

《호, 내가 올줄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요?》

《거야 선생님은... 에참,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지 오늘 꼭 오시리라고...》

《호호호... 나도 봉남이가 이렇게 나와있을줄

알았어요.》

《네?!- 선생님도 말입니까?》

《봉남인... 봉남인... 아이참,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아이, 봉남인 훌륭한 학생이니까요.》

봉남이의 부촉을 받아 일어난 예성은 일부러 지어낸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도 산토끼사냥만 하지 않았어요?》

《아 아닙니다. 낮에 전주대들을 돌아볼 때 새끼노루 한마리를... 잡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숙젠 어제까지 다했습니다!》

봉남은 통통한 볼에 한가득 웃음을 담고 코등을 쭉 훔쳤다. 예성에게서 《흥미있는 물음과 대답》이라는 참고도서를 받아안은 그는 책을 든 손을 허공에 대고 흔들며 산골짜기가 짜랑짜랑 울리게 소리쳤다.

《선생님, 난 박사가 되겠습니다. 물리박사가 되겠습니다! -》

(고마와요. 봉남인 꼭 박사가 될거예요, 영웅도 되구... 봉남이를 위해서는 선생님은 이런 길을 천리라도 걸겠어요. 만리라도 걸겠어요.)

예성은 봉남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겹게 미소를 지었다. 웃으면서도 그는 두눈을 습벽이였다.

(그래 난 미지수를 찾아냈어. 찾아냈어! ...)

봉남이 어머니가 뒤늦게야 그들에게로 달려왔다.

《원, 녀석두. 산토끼들이 몽땅 달아날라.》

남정네들처럼 결결한 목청으로 웃으며 좋아라 펄박질하는 아들을 바라보던 녀인은 예성의 손을 다정히 감싸쥐었다.

《온다더니 정말로 왔구만! 이녀석이 글썽 오늘 선생님이 꼭 오신다면서... 요샌 <학습카드>인지 하는걸 널판자로 바꾸어달자느니, 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느니 하면서 공부에 어찌나 열성인지 모릅니다. 어제오늘은 자기 일밖에 모르던령감이랑 온 산판을 장판지에 얼이 지도록 오르내렸수다.》

《어머니, 고마와요. 봉남인 좋은 애예요. 우리 학급 학생들은 모두 좋은 애들이랍니다.》

《그렇지 않구요. 애들이야 제 선생을 따르기마련인걸요. 우리 봉남인 마음이 놓입니다. 참말이지 이답에 큰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눈보라, 수림이 설레인다.

휘영청 밝은 달이 등실 떠있는 검푸른 하늘가엔 도글도글 여문 명롱한 별들이 유난히 반짝인다.

아름다운 밤이였다.

예성은 언제까지라도 명상에 잠겨있고싶었다.

아, 저 하늘의 별들은 몇개나 될가?

생일날에 대한 생각

리수혁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날이 있다.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것이 생일날이다. 생일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온 한해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도 하며 친척, 친구들과 함께 즐기곤 한다.

하지만 나는 얼마전 레사롭게 맞이하고 지나보 내던 생일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얼마전 아들의 돌생일을 맞는 박동무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을 찾았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 박동무의 안해가 문을 열어주며 반겨맞아주었다.

《아주머니, 아들의 돌생일을 축하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들고온 기념품을 넘겨주며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서는 북스럽고 귀엽성있게 생긴 박동무의 아들 충성이가 걸음마를 뒤흘거리며 할머니와 함께 놀고있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구, 어서들 오라구. 무척 반갑구만.

애 충성아, 삼촌들한테 인사해라... 어서...》

모두의 얼굴에 행복과 기쁨의 웃음이 한껏 어려있었다.

어느덧 나의 무릎에 충성이가 와안졌다. 그를 그리안고 북스러운 불과 머리를 쓰다듬어주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생일이란 어머니품에서 태어난 날이 아니겠나. 그러나 이애의 생일날엔 사연도 많소...》

이렇게 허두를 뎌 할머니가 그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기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칠삭둥이로 어머니 품에서 태어난 충성이는 평양산원 보육기안에서 석달동안이나 치료를 받으며 자기 달수를 다 채우고서야 퇴원하였던것이다.

《임자네들도 알겠지만 옛날부터 칠삭둥이는 살지 못하질 않았나. 우리 손주애가 어미품에서 나오자마자 죽어야 할 명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당에서 세워준 산원이 있어 저렇게 건강한 몸으로 인생의 첫걸음마를 떼지 않았나. 그러니 우리 손주애의 생일이야 제 어머니가 해산한 날이 아니라 응당 보육기에서 정상으로 태어난 그날이 아니겠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는 충성이의 귀여운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자기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충성이.

저 충성이가 우리 나라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정상아도 아니고 미숙아로 태어난 충성의의 운명은 뻔한것이였다. 모름지기 이름조차 지너보지 못하고 스러져 버리고 말았을것이였다. 충성의의 부모들도 그러한 운명을 어찌할수 없었을것이였다.

그러나 지금 충성이는 저렇듯 건강한 몸으로 활짝 웃으며 어머니의 품에서 마음껏 재물을 부리고있지 않는가.

이것이 과연 누구의 덕이겠는가. 충성이가 부모를 잘 만난 덕이겠는가?...

아니다. 박동무는 우리 사회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근로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축복의 선물로 세워주신 산원이 아니었더라면, 나라의 《왕》들을 위해서는 아꼈것이 없다시며 억만금도 아끼지 않고 마련해주신 사랑의 보육기가 없었더라면 과연 저 충성이가 지금 저렇게 어머니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결국 충성이는 비록 어머니품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났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다시 태어난것이 아니겠는가.

문득 언젠가 신문에서 본 남조선어린이들에 대한 글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았나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사회악에 짓밟히고 버림받는 남조선어린이들의 피타는 절규이며 몸부림이다.

어머니품에서 마음껏 뛰놀아야 할 나이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거리바닥을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는 어린이들, 정든 어머니품을 떠나 낯설은 이국땅으로 《양자》로, 몸종으로, 인체실험의 대상으로 팔려가는 어린이들... 이것이 오늘 남조선어린이들의 비참한 운명이다.

하다면 저 충성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저렇듯 이 세상 복이란 복은 다 누리며 행복둥이로 자라는데 한지맥으로 이어진 남조선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뼈도 채 굳기전에 짓밟히고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저주해야 하는가. 이것이 타고난 운명이란말인가.

결국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는가 하는것이 그

어린이의 운명을 결정하는것이다.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는가 하는데 따라 그날은 그 어린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을 타고난 날로 될수도 있고 가장 불행한 날로 될수도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저 충성이에게 있어서 생일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긴 날이며 그의 행복한 앞날과 밝은 미래를 담보해준 가장 큰 행운의 날, 만복을 받아안은 날인것이다.

어찌 충성이뿐이겠는가.

새 생명의 탄생이 수령에 의해, 축복되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꽃피워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품에서 저 충성이가 태어났고 내가 살며 우리 인민모두가 사는것이다.

정녕 우리의 생일날,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 성명의 첫 고고성을 울린 날이 아니다.

우리의 생일날은 온 나라 인민모두를 한없이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긴 행운의 날인것

이다. 그 행운의 날이 있어 우리의 행복에 찬 오늘이 있는것이고 더욱더 휘황한 래일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정녕 쪽정리로 될 운명으로 떨어진 자그마한 하나의 씨앗도 뜨거운 사랑과 은정으로 싹틔우고 꽃피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은혜로운 대지인 사회주의 내 조국의 품, 그 품은 우리 인민 모두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인것이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으로 자기의 돌생일을 맞는 충성의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뜨거워났다.

사람들이여, 자기의 생일날을 무심히 생각지 마시라.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자신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의 크기를 다 아시는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생일날 하루에 한생이 비껴있는 충성의의 돌생일을 뜨겁게 축복해주었다.

군량미

박호범

평범한 나날에 바친것이 아니다
먹고도 남을것을 바친것도 아니다
《고난의 행군》이 건인불발의 나날에
은덕마을의 한 작업반이 한낱한시에
나라에 군량미를 바친것은

평양의 회의에 갔던 영웅작업반장이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장군님도 때로 죽을 드신다니
그게 어디 될말이나고
눈물로 말을 끝맺던 그날밤

농장원들은 헤어져 집으로 가면서
자기가 자기에겐 물었더라
누구때문에 조국이 있어야 하고
누구때문에 군대가 있어야 하고
무엇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했는가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주머니도
물건도 마음도 저울로만 다루던 로인도
제집으로 달려가
한해 식량에서
그 절반을 퍼냈더라

그리고 퍼냈더라
이날이때까지

은혜만을 받아안던 가슴에서
인간의 량심을 퍼냈고
뜨거운 뜨거운 의리를 퍼냈거니

사람들이여
은덕마을 사람들이 바친 군량미를
쉽사리 저울로는 계산하지 말라
인간의 량심을 다루는 저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에

어제는 김제원농민이 애국미를 싣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던 그 길로
오늘은 은덕마을 농민들이
알알이 고른 군량미를 싣고
김정일장군님을 찾아 떠났나니

그들이 오늘은 《고난의 행군》길에
군량미를 싣고 평양으로 떠났지만
래일엔 만풍년의 노래
사회주의 승리의 기쁨을 싣고
김정일장군님을 찾아 떠나리라

가장 어려운 나날에 제것을 바칠줄 알고
저를 키운 나라와 운명을 같이할줄 아는
아, 이것이 **김정일**장군님의 조선
그 조선의 량심들이여라!
그 조선의 인민들이여라!

-은파군 은덕마을에서-

소쩍새가 울면

구월산 월정사에 가면 산연부도(산연이라는 중의 돌탑무덤)가 유명하다. 술한 부도들중에 왜 하필 이 부도가 지금토록 이름이 남았을까?

지금은 다 깨여지고 그루만 남았지만 그 그루 위에 전설이 전해오고있다.

1

《소쩍 소쩍 소쩍...》

어데선가 소쩍새가 구슬피 울고있었다. 소쩍새가 울면 산연은 어릴적 옛노래가 떠올랐다.

소쩍아 우지 말아 네가 울머는
떠나온 고향산천 생각이 난다
두고온 부모생각 눈물이 난다

가득이나 무인지경이 해만 지고나면 사위가 바다속처럼 고요했다. 골짜골짜 끝모르게 드러누운 구월산의 적막은 숨이 막히도록 외롭고 눈물이 나도록 쓸쓸한것이었다.

산연은 이 고요속을 걸으며 자연 감회가 깊었다. 어찌구려 불문의 몸이 되긴 했지만 과연 이렇게 한생을 흘려보내야 한단말인가...

《소쩍 소쩍 소쩍...》

소쩍새는 이밤도 누굴 울리고야말려는듯 이 골짜 저 골짜 피를 뿌리고있었다.

소쩍은 왜 우나 누굴 울리려
가득이나 설음겨운 이 나그네는
네가야 아니라도 눈물이 난다

소쩍새소리를 들으며 옛노래를 부르니 산연은 저절로 눈물이 났다.

5살때였다. 아버지가 무슨 화적작당을 했다고 판가에서 끌어가더니 그날로 시체가 되어나왔다.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날, 그밤도 저렇게 소쩍새가 피를 쏟았다. 7살때는 동생이 굶어죽었다. 그밤도 저렇게 소쩍새가 슬피 울었다. 10살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그밤에도 산연은 소쩍새와 함께 밤새도록 어머니를 불렀다.

그후 의지가없는 산연은 문전걸식으로 목숨을 이어갔다. 뉘집문간에서 밭길에 채여 쉴게 올던 그밤에도 저렇게 소쩍새가 울었다.

하여 저 새는 산연에게서 눈물의 새, 설음의 새, 쓰리고 아픈 추억의 새였다.

《소쩍 소쩍 소쩍...》

그밤도 소쩍새가 울고있었다. 주린배를 안고 어느 골목에서 울고있는데 지나가던 월정선사가 소년을 데려다 구원해주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

여 산연은 산사람이 된것이였다.

했지만 산연은 불도에 무슨 남다른 신앙이 튼 것도 아니였다. 그는 다만 세상사람들이 살생을 아니하고 악행을 아니하고 천하만생이 다 선심과 자애로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그 뜻을 따른 것이였다. 정말 그럴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만년 태평하고 하나같이 행복할것이 아닌가, 그럴수만 있다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생도 그렇게 불쌍하게 죽지 않았을게 아닌가...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도처에서 악과 불의가 살판치고 살생과 류혈과 설음과 눈물이 범람했다. 지옥을 따로 말할것이 무엇이랴. 사람들도 그대로 악마가 아니고 무엇이란말인가...

악마악마해도 저 왜놈들보다 더한 악마가 어디 있으랴... 백주에 남의 나라로 건너와 백주에 살인강탈을 일삼는놈들...

산연은 문득 소름이 끼쳤다. 어둡기전에 월정사에 닿자고 떠난 걸음이 그만 이렇게 밤을 밝게 된것이였다. 금시 어데선가 왜병들이 뛰어나올 것만 같았다. 더구나 며칠전에 그 딱바리패들의 귀자루를 보고난 다음부터는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때였다.

《앗-》

《꼼짝말앗!》

아니나다를가 앞언덕 뒤편에서 난데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뛰어나리더니 검도깨비들이 우르르 앞을 막는것이였다. 박쥐옷같은 검은 사무라이복장에 살기찬 눈빛들, 마냥없이 휘둘러대는 왜검의 서리찬 칼날들...

왜병이였다. 며칠전에 당했던 그것들과 똑같은 몰골들이였다.

왜구가 예까지 들어왔구나... 이놈들이 이제 나를 칼로 찌르고 귀를 자르겠지...

산연은 가슴이 섬찔했다.

《이놈아, 어딜 가는놈이냐?》

우두머리인듯한 팽팔보가 칼끝으로 행객의 멱통을 겨누고 묻는 말이였다.

산연은 앞서 겪은 일이 있는지라 든든히 잡도리를 하고 뻗뻗하게 맞섰다.

《나는 월정사의 중이거니와 무고한 행객에게 무슨 야료냐?》

《중? 좋은것이. 우리나라 구월산스님 많이 찾았다. 우리하고 함께 가자.》

그자는 왜관물이나 종이 먹은듯 조선말을 제법 쉼얼거렸다.

어쩌서 나를 죽이지 않고 잡아갈까?... 산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월정사에 들어서니 왜병들이 한벌 깔렸다. 왜병 3백군이 절간에서 오늘밤에 호궤(대접하여 먹임)를 하고 숙영을 한다고 했다.

법당섬돌위에 말뚝뿔을 주련이 세우고 그곁에 왜장 요시라가 틀고앉아 취관(취사)을 지휘하고 있었다. 뒤에는 큰 마대들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 자루들을 올려다보는 순간 산연은 몸서리를 떨었다. 저기에 든 물건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것이다.

소 열마리, 돼지 백마리가 섬돌아래 서서 죽음을 기다리고있었다. 땅딸보가 해불아래로 가더니 복명을 고했다.

《분부대로 월정사중을 하나 끌어왔소이다.》

《영? 왜 하나뿐이나? 열은 있어야 열갈래로 길잡이를 세울게 아니냐?》

요시라는 금시 목을 칠듯 독살을 부렸다. 해불이 땅딸보의 얼굴을 비치는 순간 산연은 깜짝 놀랐다.

《아니, 저자가?》

무슨 인연으로 저자를 여기서 또 만났을까?...

머칠전 일이었다. 소순과 아도 두 제자를 데리고 은정굴 류화공에게 가서 주문했던 《부처탈가출성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은정굴 큰재를 거의 넘어왔을 때 뒤에서 웬 낯설은 검은 무리가 우르르 쫓아오는것이 보였다. 하나같이 시꺼먼 복색들, 큰 박쥐들이 너울거리는것 같기도 하고 검은개비들이 춤을 추는것 같기도했다. 여섯그림자가 산연네를 보고 달려오는데 모두 머리우에 칼을 찡추며 악악 고향을 지르고있었다. 왜병임에 틀림없었다.

두 제자는 산연을 등뒤에 숨기고 팔을 벌리고 왜병들을 향해 마주나갔다. 산연도 이 순간 무고한 사람을 죽이라 싶어 방비없이 무심히 서있었다.

한데 맨앞에 달려온 코수염쟁이 왜병이 소순앞에서 경총 뛰더니 소년을 한칼로 찍어넘기는것이였다. 《악-》 외마디비명과 함께 소순은 목이 꺾이여 풀우에 덩굴었다. 그가위에 코수염은 소년의 시체우에 허리를 굽히고 무엇을 찾는듯 잠시 어름거렸다.

《어?...》

순간 산연은 눈앞에서 번개가 일었다. 난생처음 정말로 살생을 아니 살인을 본것이였다.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것은 본적이 있으나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찍는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맞아죽는것은 처음이였다. 그것도 남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제자, 죄없는 어린 소년이 왜병의 칼에 목이 잘리웠다.

아! 이게 살생이로구나!

살생이란 이다지도 모진것인가. 해서 부처님은 불살생을 선의 제일로 삼은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런 악의 무리들이 무고한 인명을 해

치고있는터에 무작정 불살생을 외우며 수수방관한다면 세상은 몽땅 살생을 당하고말것이 아니냐?

불살생의 도를 이루려면 저 살생을 막아야 한다. 저 살생은 《살》해야 한다!

그렇다. 불살생은 살살생(살생자를 살함)이다! 살생하는 무리들을 살해야 진짜 불살생을 이룰수 있다!

산연은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너무나도 큰 불살생의 리치를 새로이 깨닫고있었다.

그러는사이 두번째로 달려든 왜병은 아도를 향해 칼을 겨누고 달려들고있었다. 소년의 목숨이 찰나에 놓여있었다.

《앗-》

산연은 저도 모르게 쇠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와 함께 산연의 몸이 왜병의 머리우에 날아올랐다. 산연이 한발로 아도를 차던지는 서슬에 칼을 들고 달려들던 왜병이 이마를 싸쥐고 뒤로 너부러졌다. 그자는 팔바가지가 열려 팔이 허영게 드러났다. 그자에게서 칼을 앗아챈 산연은 이번엔 코수염을 향해 칼을 날렸다. 묘하게 몸을 틀어 적수의 칼을 흘려버린 코수염은 이를 사려물고 《니쁜도》를 들어 산연의 목을 내리찍었다. 산연의 목이 발밑에 떨어지는가싶은 순간에 난데없는 바위가 포알처럼 날아들어 코수염의 입코를 들이쳤다. 산연이 몸을 날려 골받이를 안긴것이다. 코수염은 입코 다 날아나고 형체없이 깨어진 얼굴을 쳐들고 하늘을 향해 자빠져있었다.

옆에서는 아도가 세번째 왜병과 판가름을 하고있었다. 왜병은 적수가 소년인것만 믿고 두손으로 칼을 쳐들고 여유작작하게 다가들고있었다. 한걸음 또 한걸음... 왜병이 막 칼을 내리찍으려는 순간 소년은 번개같이 몸을 굽혀 적수의 눈에 모래를 휘뿌렸다. 왜병이 얼굴을 돌려 모래를 피하느라 같이 겨눔을 잃고 잠시 흔들리는찰나 소년은 감추어들었던 돌맹이를 왜놈의 상통에 안기였다. 적수가 반사적으로 몸을 탁 터는바람에 돌맹이는 얼굴을 놓치고 칼잡은 손목을 때렸다. 손목이 깨여졌는지 피물은 칼자루가 땅에 떨어졌다.

싸움은 자연 육박으로 넘어갔다. 왜병은 유술 깨나 있는듯 게처럼 집게발을 앞으로 길게 쳐들고 몇바퀴 감돌더니 벼락같이 소년의 어깨를 덮쳐잡았다. 그러자 소년은 이때를 기다렸던듯 적수의 턱밑으로 바람같이 새여드는 서슬에 주먹으로 적수의 명치를 지르고 머리로 턱을 치받고 무릎으로 살을 올리짚렸다. 그때마다 《헉- 딱- 짹》 피이한 소리가 련발하더니 왜병은 갑자기 파쩍 질처럼 그자리에 주저앉는것이였다. 이것은 아도가 자랑하는 고무려수박 고무려택견이였다.

소년이 왜병의 칼을 집어 들고 돌아서니 산연은 코수염을 요정내고 아도에게로 달려오고있었다. 남은 왜병 둘은 어디로 도망쳤는지 그림자도 없

었다. 그제야 산연은 소순의 시체생각이 났다.

《영? …》

소년의 얼굴에 눈길 닿는 순간 산연은 불식간에 비명을 올렸다. 귀가 없었던것이다. 귀를 베여낸 자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소년의 얼굴이 피덩지에 덮여있었다.

《아!-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산연은 아픔만도 아닌 설움만도 아닌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가슴을 허비는 비탄이 새어나왔다.

하고보니 왜병들의 차림새가 기겁할 물골이었다. 모두 바랑(배낭)같은 자루를 등에 지고 손에는 보통이나 주머니들이 들렸다. 어떤자는 목에 둥그런 테를 걸기도 했다. 긴 버들가지에 무슨 조박조박한 물건을 죽 꺾어 끝을 맺은것이였다. 그런것을 목에 걸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했다.

무슨 물건이기에 저렇게 알뜰히 꺾었을가? 버섯?… 유심히 들여다보니 사람의 귀바퀴였다. 피가 엉켜붙은, 아니 금방 베여낸듯 피가 똑똑 돋는것도 있었다.

《이것 보시와요!》

아도가 칼끝으로 자루를 헤쳐놓고 산연을 부르 고있었다. 역시 귀였다. 자루마다, 보통이, 주머니마다 귀쫂이 가득했다.

《아! 부처님이시여! 천하에 어찌 이런 악을 용납하오리까…》

산연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하늘을 향해 부처님을 불렀다.

이러는데 뒤에서 또 한떼의 검도깨비들이 나타났다. 앞에 다섯은 조총을 들고 뒤에 여라문은 칼을 들었다. 딱바리가 우두머리인듯 앞을 달리고있었다. 총까지 들었으니 너무나 중과부적이였다.

《애, 저기 숲으로 들어가자.》

산연은 칼을 아도에게 던지고 소순을 안았다.

《앗-》

《서랏-》

왜병들의 아우성이 뒤를 따르고 땅- 땅- 총소리가 귀를 찼다.

이제 언덕만 넘으면 숲이였다.

《땅땅땅…》

총성이 물방으로 터졌다. 순간 앞서 달리던 소년이 가슴을 안고 무릎을 꿇었다. 산연은 아도를 들쳐업고 소순을 옆에 끼고 다시 달렸다.

소년의 더운피가 장삼을 적시고있었다. 소년의 몸은 점점 식어가고있었다.

《서랏-》

딱바리의 고함소리가 파갑게 뒤를 따르고있었다.

2

그 딱바리를 오늘 다시 만날줄이야… 그러나 다행히 그자는 산연을 알아보지 못하고있었다.

요시라는 산연을 점잖게 대하느라 했다.

《한가지 힘을 빌릴 일이 있어 스님을 청했소이다.》

《…》

《우리 군사가 길이 서투니 스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공을 크게 갚겠소이다.》

길안내를? … 산연은 문득 저 섬돌우에 놓인 귀자루와 앞서 저 딱바리패들의 귀자루들이 눈앞에 서물거렸다. 그 귀임자들의 참혹한 주검과 울부짖음이 들리는듯했다. 어찌 그뿐이랴. 저 소돼지임자들의 아픔은 또 어떠하랴…

저 왜놈들은 악귀들이다. 저것들을 죽여야 한다. 저것들을 죽이는것이 불살생이다!

이것은 이미 앞서 딱바리패와의 싸움에서 톡톡히 당해본 일이였다. 그후 산연은 혹시나해서 독약을 세말이나 장만해다 법당밀 비밀지하실에 소금에 섞어 간수해두기까지 했다. 그 소금을 먹일수 있다면 저것들을 피 안묻히고 몰살시킬수가 있다. 그러자면 취관군(취사병)이 되어야 하는데 길잡이를 하란다.

저자의 취미와 비위를 잘 이끌어서 길안내를 뿌리치고 취관군자리를 따내야 한다.

그는 생각끝에 왜장의 비위를 잔뜩 굽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왜장은 들으시오. 만사는 다 리치가 있고 일이란 리치가 닿아야 하는것이요. 당신은 내 집에 뛰여든 도적이요 나는 주인이거니 주인이 어찌 도적을 안내한단말이요?》

요시라는 서리를 뒤쫓듯 소름이 돋았지만 짐짓 점잖게 말을 받았다.

《못하겠단 말씀이요?… 못하면 죽어야 할텐데…》

《도적의 손에 죽기가 쉽지 도적의 길안내는 어렵소!》

산연은 자연히 속에서 불이 일어 붉은 얼굴이 더욱 붉고 검은눈이 더욱 크게 이글거렸다.

요시라는 산연을 단칼에 베고싶었지만 주장이 당당하고 용모거동이 너무 태연하고 엄엄해서 얼른 손이 나가지 않았다. 하긴 죽이기는 쉬운 일이었다. 좋기는 저자의 뜻을 꺾고 기를 죽여야 한다. 목숨을 죽이는것은 그다음에도 늦지 않는 일이 아닌가.

왜장은 탄에 묘한 수를 생각해냈다.

《하다면 내가 백보 양보해서 다른 일을 내놓겠소. … 우리가 지금 손이 딸리니 취관을 맡아하면서 오늘밤엔 저 짐승들을 좀 잡아주시요.》

도살을 하라는것이였다. 불살생을 제일계물로 삼고있는 불도를 보고 소돼지를 죽이라는것이였다. 그것도 자그만치 백여마리나, 그것도 하필 법당앞에서…

남에게 못할 일을 강요하고 남의 고민과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요시라였다. 파시 왜인다운

취미였다.

했지만 산연은 너무나 반가웠다. 《고소원이 불감청》이라고 그 일을 달라고 못해 안달이었는데 굳이 그 일을 하라니 이런 행운이 어데 있느냐 말이다. 그러나 기쁜 내색을 해선 안되지… 산연은 짐짓 아닌보살로 태가락을 부렸다.

《못하겠소!》

《…》

《내가 불살생을 하는 불도인걸 잊었소? 이 사람은 벌레도 밟지 못하는 사람ियो.》

산연의 거동은 엄숙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했다. 할수록 요시라는 기어이 그를 꺾고싶고 이기고싶어 안달이 났다.

《길잡이도 못해 소잡이도 못해 그럼 제잡이밖에 별도리 없지.》

하면서 좌우로 턱을 두르며 호령을 놓았다.

《아- 이자의 목을 쳐랏-》

두 졸병이 야차같이 달려들어 산연을 도끼모태우에 덜미를 잡아엎었다. 이제 도끼질을 할판이다.

《아직도 불살생인가?》

요시라의 마지막겨름이었다.

그제야 산연은 갑자기 살고싶어진듯 굶어드는 시늉을 했다.

《에라, 중노릇 말면 그만이지. 어디 한번 해볼가… 》

왜장은 흐뭇했다. 비록 중이지만 조선사람을 굴복시킨 쾌감이었다. 살생을 앓는다니 왜병의 목숨이 안전해서 좋았고 그보다도 이제 차차로 길잡이도 시킬수 있을것 같아 기대가 컸다.

왜졸들을 데리고 소잡이가 벌여졌다. 법당앞에서 왜도끼들이 서리를 뿌렸다. 소가 울고 피가 흘렀다.

《움매-》

《우머-》

《매-》

소울음도 각각이었다.

산연은 이밤 소울음소리가 사람의 울음처럼 아니 어찌 들으면 그보다 더 처절하게 들렸다. 소울음속에 그 끔찍한 귀자루, 귀보파리, 귀목걸이들이 떠올랐다. 피가 꺼명게 굳어진 소년의 창백한 얼굴, 귀를 잘리운 소순의 몸서리나는 얼굴이 눈을 찔렀다.

《움매-》

《우머-》

《매-》

마당가득 백여개의 여물가마에서 백여마리의 소돼지가 뚫고있었다. 산연은 분주히 뛰어다녔다.

익는대로 꺼내서 뜯기도 하고 소금도 두고 양념도 치고, 밥도 짓고, 술도 거르고… 일이 여간 많지 않았다.

소금이 모자란다고 취관군사들이 아우성을 하자 산연은 기다렸던듯 슬그머니 법당뒤 지하실로 내려가 비상품소금가마니를 메어내왔다. 그것을

취관군졸들에게 들킨 나누어주어 백술에 고루 치게했다.

《자, 먹자! 실컷 먹고 래일은 새벽출정으로 낮메꿀을 내리밀자!》

요시라는 호쾌령에다 래일의 로략일정까지 결 불렀다. 3백군사가 백여마리의 소돼지에 달라붙었다. 뜯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덩굴고 쓰러지고 하더니 치고받고 죽일내기가 벌여졌다.

왜병들은 이 맛에 산다. 이 재미로 살인을 하고 불을 지르고 마을을 툰다. 왜군은 이것이 공로였다. 왜나라에서는 그 공로를 귀를 가지고 계산했다. 해서 왜군사는 살인을 하고는 꼭 귀를 베어 자루에 메고, 주머니에 들고 끈이나 테에 꿰어 목에 걸기도 했다. 말리우기도 하고 소금에 절이기도 했다.

웃음소리, 아우성소리, 울음소리… 월정사법당에 아비규환이 펼쳐지고 수라장이 그려졌다.

《자, 스님도 한다리 뜯소이다.》

젊은 취관군사 하나가 돼지다리를 들고와서 산연에게 내밀었다.

《응, 고맙네만 난 살생을 앓다나니 육식을 모른다네.》

산연은 이렇게 사양하고 꺼칠한 턱을 슬슬 만지면서 아귀들의 만찬광경을 굶어보고있었다. 그의 입가엔 느슨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이튿날아침.

새벽출정을 뛴대던 왜병들이 어쩐 일로 해가 장바한기장이나 떠오르도록 기척이 없었다. 마치 매복을 깔아놓고 누굴 기다리는 집 같았다.

밝기를 기다렸던 산연은 어디 꼴을 보려고 법당앞을 돌아보고있었다. 살아남은것이 있으면 덧손질을 해주려고 왜도끼를 두자루나 손에 들었다.

보다보다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있었다. 요시라의 삼백군졸이 하루밤새 3백송장이 되어 월정사오래를 한벌 덮고있었다. 가로세로 덩구는 칼자루, 총자루와 함께 배를 그러안고 엎어진자, 흠을 그러안고 코를 박은자, 거품을 문자, 피를 토한자… 죽은 모양이 천대만상인데 한가지 같은점은 모두 얼굴이 퍼렇게 죽고 살이 문질문질 묻어나는것이였다. 살생의 무리들에게 부처님이 대살을 내리신것이였다.

산연은 자연히 요시라쪽으로 걸음이 갔다. 파시 장수였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있을뿐아니라 산연을 알아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듯 입술을 놀리려고했다.

그는 총대를 짊고 웃음을 일으키더니 산연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왜… 우… 우리 군사를 주… 죽였느냐?》

산연은 기다렸던듯 쾌히 대답했다.

《도둑놈을 징벌했을뿐이다!》

《부… 불살생… 버… 벌레도 밟지 않는다더니 어째서 살생을 그리도 심하게 했느냐?》

그 말에 산연은 그것이 꼭 하고싶었던 말이었

던듯 포박포박 힘주어 말했다.
 《왜장은 듣거라. 나는 살해를 했지 살생은 하지 않았다. …》
 왜장은 눈을 크게 뜨며 다시 물었다.
 《왜병을 죽인건 살생이 아니란말이나?》
 《살인자를 죽인건 살인이 아니니 왜군을 죽인건 살생이 아니라 활생(생명을 살려줌)이고 호생(생명을 보호해줌)이다!》
 왜장은 아득바득 되물었다.
 《왜병을 죽인건… 살생이 아니라고?…》
 하며 표시라는 버릇처럼 문득 칼자루로 손이 갔다. 했지만 손이 친근같이 무거워 놀릴수가 없었다. 왜장은 다시 입을 열었다.
 《한가지만 더… 왜 달아나지 않고 여기 남았느냐?》
 산연은 역시 기다렸던듯 거침이 없었다.
 《달아나다니? 내 집에서 내가 왜 달아난단말이나? …》
 산연은 다 죽은 송장한테 손을 대기가 무엇해서 그냥 도끼를 버리고 몸을 돌려 문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요시라는 팔을 허우적거리며 맥빠진 비

명을 놓았다.
 《모… 모… 못간다! …》
 이때였다.
 《땅-》
 난데없는 총성이 울렸다.
 순간 산연은 흠칫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섰더니 가슴을 불안고 모으로 쓰러졌다. 그는 갑자기 노오란 불씨들이 눈앞에 가물거리며 어데선가 소울음소리가 멀리 들렸다.
 《옴메-》
 《우머-》
 《매-》
 그 울음속에 귀자루, 귀보파리… 피흐르는 귀바퀴들이 하늘가득 날아다니고있었다.
 《소쩍, 소쩍, 소쩍…》
 뒤산에서 때아닌 소쩍새가 울고있었다.
 소쩍새가 울면 산연은 늘 같이 울었다.
 그는 지금 마지막으로 소쩍새소리를 듣고있었다.
 《소쩍, 소쩍, 소쩍…》

리학남

이런 《법》도 있다

곽명철

이 땅우에 인류가 태어나고
 지구우에 크고작은 나라들이 일떠서
 지금껏 얼마나 많은 법들이
 꼬리를 물고 생겨났던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자고
 온갖 범죄의 근원을 막자고
 어마어마한 문구로 새겨진 법들이
 지금껏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법이었거늘

허나 그 수백수천의 법을 무색케 하는
 류다른 법이
 내 사는 이 땅에 태어나고있었으니

들어보라
 만사람의 가슴을 끝없이 적시며
 뜨겁게 울리는 그 목소리들을

-남의 자식을 위해
 제눈에서 각막을 떼내주다니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특류영예군인인 내 아들에게
 꽃같은 딸을 시집보내다니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

항소도 아니다
 절규도 아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평범히 바칠수 없는것을
 너무나도 레사로이 바친 까닭에
 눈물이 앞서 목이 메어
 저도 모르게 돌아본 법의 력사여

아, 이런 《법》도 있다
 사람을 제일로 여기는 내 나라엔
 남을 위해 자기를 서슴없이 바침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공산주의미풍의 나라 내 조국엔

스스로가 정한 법 아닌 《법》이기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도 마음 괴로워
 끝없는 자책속에 모대기고 또 모대기는
 내 나라의 고상한 사람들

이런 《법》도 있다
 국가회의에서 거수가결로 통과시킨것 아닌
 량심과 도리와 의리에 뿌리를 둔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인간중의 인간으로
 우리모두를 참답게 키워주셨으니
 날로 번영하는 내 나라엔
 또하나의 법
 자랑스런 미풍의 《법》이 있다

60돛 생일상을 차리지 말라

김봉운

별로 한일도 없이
내 나이 60이 되었던만
자식들은 바빠 서두른다
한생에 한번밖에 없는
아버지의 60돛 생일상 잘 차리자고

누가 볼세라 옛들을세라
토론한다 상론한다
아버지는 떡보다 국수를 더 좋아한다며
새옷도 한벌 잘 짓자고

들릴듯말듯
문틈사이로 소곤소곤 새어나오는
그 말 듣기에 앞서
가슴 뭉클 젖어든다
값없이 흘러버린 나날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것만 같아

언제 한번 그냥 넘긴적 있었던가
부모들이 정성고여 차려준
첫돌생일상을 받은 그날부터
병사시절엔 중대의 전우들이
독신자합숙어머니들도 내 생일 잊지 않았다

부끄러워라
임무를 다하지 못한채
생일상 받아안던 그날들에
못다한 일 그 얼마더나
행복에 취해 흘러보낸 인생길

불같은 시대앞에

가슴에 혼장도 적지 않고
40년을 군복입고 복무했건만
못다한 일 많아라
후회 또한 많아라

오, 량심의 인간으로 살자고
뜨겁게 깨우쳐주는
시대의 부름앞에
부끄러운 흰서리어
정녕 받을수 없으랴
60돛 생일상을

내 마음은 아직 젊다
벽찬 오늘의 시대
최후의 승리를 위한 강행군길에서
내 량심의 인간
성실한 복무자의 한생 다하려니

우리 당을 보위하는 전선
그 어느 보이지 않는 초소에서
색날은 군복입고 말없이 량심을 바쳐
내 몇몇이 한생을 총화하려니

애들아
이 아버지의 이 진정 알아다오
오늘만은 오늘만은
60돛 생일상을 차리지 말아다오

수정천, 고향의 강아

문동식

너는
비가 내려도 수정처럼 흐른다

너는
세찬 바람 불어도

거울처럼 유난히 반짝이며 흐른다

아롱아롱 들여다보이는

너의 물속 하얀 모래불엔

진주보석같이 수놓인 조약돌

그우로 꼬리치며 노니는 붕어떼

물을 차며 은구슬 쏟아내는 청제비...

수정천 고향의 강아

너를 보면 눈앞에 어려오는구나

내 어릴적

한줄금 소낙비만 퍼부어도

산자락밭들이 떠내려간다고

탄식하던 마을어른들의 얼굴이

정녕 잊을수 없구나

장마끝에 하늘이 들리면

버들치잡이에 신바람나던 일

그런 때면 어느새 물억에 달려나와

누런 흙물이 몸에 오른다고

소리쳐 불러내던 어머니의 음성을

나서자란 고향의 실개천 하나라도

제몸처럼 그렇게 가꿀줄 모른다면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고향산천

어이 뗏뗏이 마주볼수 있으랴

강변에 돌기돌기 장석을 쌓고

굽이굽이 기슭에 버들숲을 가꾸며

내 아낌없이 흘린 구슬땀은

물구슬로 아롱져 저리도 빛나고

탁상등 불빛아래 도면을 펼쳐놓고

내 그려낸 아름다운 꿈들은

저 화창하게 뻗어간 유보도

경쾌하게 솟아오른 정각들과 구름다리...

고향의 풍치를 한껏 돋궂주어라

수정천 고향의 강아

너를 잊고 산다면

내 어이 고향의 아들이라 말하랴

자라며 마신 너의 맑은 물은

이 가슴에 높뛰는 피방울 되었거니

수정처럼 흘러가는 너의 순결함은

고향과 맺고 사는 깨끗한 나의 량심

그래서 사랑한다 고향의 강아

너와 나는 한숨결 하나의 모습

노래하며 흘러가는 나의 기쁨아

그렇게 흘러가자 아름다운 미래로

세월이 흘러 명은 끝나도

고향의 산천으로 영원히 푸르를

애국의 참된 생을 키워주는 젖줄기로

아, 수정천아 흘러가자

천년을 하루같이 만년을 하루같이

후손들의 가슴을 흥건히 적셔주며